

# MAXIM

SOUTH KOREA

## EXCLUSIVE LINDSAY LOHAN RELEASED

세치 혀 속의 손자병법  
협상의 길

레이싱 모델 최유정의  
HONDA  
바이크 투어링

LOVELY LADY  
With a CAT  
홍수현

남자의 刀 쓰기 편한 나이프  
남자의 酒 싱글 몰트 위스키  
남자의 車 BENLEY의 최신 컨버터블

GIRL-NEXT-DOOR  
독자모델 콘테스트

주식 홀로서기  
미래가 있는 타이거 JK  
배우 김영호  
김태희와 김인권  
NFL 치어리더 화보

OCTOBER 2010



9 772093 422007  
ISSN 2093-422X

www.maximkorea.net

정가 4,900원



Halloween

# EYE CANDY

할로윈 특집 초미니 코스튬

링 밖으로 걸어나온 과수  
랜디 커투어

Fall in Love with  
GEAR, STYLE & DRINK

빛나는 뮤직 기어 총집합  
트렌치코트와 가을 패션 아이템  
있어 보이는 빈티지 패션  
여심을 끄는 에스프레소 머신





**옵니이트 : 20% 더 따뜻하게!**  
은색점이 열을 반사에 극한 추위에서도 따뜻함을 유지

**Columbia**  
THE GREATER OUTDOORS



© 2010 Columbia Sportswear Company. All rights reserved.

\* 유사품 주의 : 컬럼비아스포츠웨어 정식 매장 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유사품이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품 신고접수 : 026908-0293 전국 각 지역 대리점 모집 columbiakorea.co.kr

경북054 구미점 453-2453 안동점 655-6525 포항점 241-2020 경남055 통영점 646-1080 전남060 광주북성점 673-2555 전북063 익산점 833-6363 ● 오프라인점 : 경산점, 예천점, 재천점, 철원점 ※매장 위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KENZO**



# MAXIM은...

독자님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MAXIM 아이폰 APP 누적 다운로드 수가  
5주 만에 22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애플사 2010년 9월 7일 리포트 기준 22만6천8백17건)



MAXIM App 받기

# 잡지의 미래다.



## iPhone 4로 만나는 MAXIM

새로 업데이트한 MAXIM APP은 APPLE 앱스토어에서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 곧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MAXIM을 만날 수 있습니다.

# Features

OCTOBER  
2010

80

## 린지 로한

김동적인 수감 일기는 없지만  
만 김동적인 그녀의 미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린지, 두부 한 모 해아지?

## 28 GIRL NEXT DOOR

MAXIM의 아로미은 여성 독  
자를 렌즈에 담았다. 2010  
MAXIM 독자 모델 콘테스트

## 70 MAXIM BUSINESS

주식투자 홀로서기를  
위한 대원칙

## 72 스포츠 진상들!

잘나가는 스포츠 스타 중  
진상들만 모아본다. 이놈들  
하는 짓이 참 가림이구나 그려

## 76 남자 김영호

MAXIM이 진짜 남자를 만났다.

## 86 ICON:

### 타이거 JK

의정부 사는 제이케이  
씨에겐 미래가 있다.

## 96 NFL 최어리더 퍼레이드

2010 NFL 시즌을 더욱  
뜨겁게 달군 최어리더를  
한자리에 모았다

## 100 현상의 길

세 치 혀만 잘 놀려도 세상  
사는 게 편해진다.  
당신 허가당행하지 않도록  
MAXIM에서 상황별 대처법을  
알려주겠다.

104

알렉산드로스대왕,  
그리고 나폴레옹  
그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땅따먹기에  
일가견을 보인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나폴레옹의 공통점을  
MAXIM이 공개한다.

## 129 TRICK OR TREAT

대란의 차지들도  
할로윈이라면 이렇게  
입어주세요. 플리즈~.



**FX**  
남자의 모든 것

**UFC**



FX 채널  
누끼고 선물받자

UFC 양동이 선수

대한민국 진짜 남자 채널

# FX 진정한 UFC를 깨우다!

tcast

e channel SCREEN FOX FOXlife FX

[www.fxchannel.co.kr](http://www.fxchannel.co.kr)

Copyright © 2010 FOXChannel KOREA. All right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 채널

# Departments

## 90 홍수현

때론 순수하게,  
때론 귀엽게,  
때론 섹시하게  
고양이 같은 그녀의  
매력에 빠져보자.



## 66 MAXIM WHEELS

지구별에서 가장 빠른 컨버터블.  
벤들리 컨버터블 슈퍼스포츠 출시

## 112 STYLE

남자의 필수 아이템 트랜치코트,  
가을 멋쟁이로 만들어줄 아이템  
(가죽, 데님, 재킷, 점퍼, 맨바지, 체크무늬  
위키를 이용한 스타일 출처보기,  
빈티지 패션의 모든 것

## 124 IN DA CLUB

섹시하고 와일드한 코요테들이  
클럽에 모였다! 그리고 알다시피  
MAXIM은 동물을 무척 사랑한다.

## 8 MAXIM INSIDE

본격 MAXIM 커튼 (보리의 마음) 제1탄!  
작가/ 굿뉴스스트  
주연/ 오늘도 아근 열매로 배를 채우는  
MAXIM 편집부 일동

## 16 CIRCUS MAXIMUS

회사 생활 풀리는 오피스 풍수지리, 황당 발명품,  
트위터 알인 모음, 괴짜의 반격, 나뭇로 만든 화전,  
풍성한 동물성 가을 식단, 중국이 영어를 만났을 때,  
투덜이 소편하우어, 계단 운동법, Beat The Caption

## 32 FITNESS

트레이너 강이 알려주는 섹시한 등 근육 만들기

## 34 RATED

HALO: REACH, 테화와 인권의 신작 영화,  
진짜 같은 픽션 영화, 마성의 게임 (DJ MAX 포터블 3),  
돌아온 개념 아이돌 2탄, 진짜 죽이는 책,  
귀경길에 읽기 좋은 책

## 42 LOCO FOR LOKEN

추석 선물로 (테이네이터3)의 T-X 크리스타나 로렌  
을 보내다. 풍만한 황금빛 한가위 선물, 맘에 드나?

## 48 24 HOURS TO LIVE

링 밖으로 뛰쳐나온 괴수 랜디 커투어가 자신의  
마지막 하루를 보내는 방법은?

## 50 RISING STAR: CHOCOLATE

그를 초콜릿을 보면 스티비 원더도 눈을 번쩍 뜨며  
"이른 쉬 러블리" 라고 외칠지도 모른다.

## 55 STUFF

레이싱 모델 최유정과 함께한 시원한 바이크 화보,  
아이폰 4G, 귀를 즐겁게 해줄 뮤직 기어를 총집합,  
신학기에 질리아 할 제품 리스트, 당신을 돋보이게  
해줄 나이프!

## 64 DRINK

우리 좋은 것 좀 마시면서 살자.  
음, 그러려면 싱글 몰트 위스키 같은 걸 끼었나?





실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수입되는 모델과 상기 모터사이클을 이따지는 그 구성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11 HARLEY-DAVIDSON® FORTY-EIGHT™

스타일과 안정성, 라이딩의 역동성까지 살린 최고의 스트리트 바이크

1,200cc 블랙 에볼루션(Evolution™) 엔진의 여유 넘치는 파워  
 핸들바 아래 장착된 독특한 스타일의 사이드미러  
 젊은 라이더의 감성을 자극하는 피넛(Peanut) 스타일의 연료탱크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Motorcycles, Motorclothes, Parts & Accessories, Service

본사/할남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94-4 Tel: 02-796-8279

강남점/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86-16 송인빌딩 Tel: 02-3452-8279

용인점/서비스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79-1 Tel: 031-252-8279

대전점/서비스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강동 39-12 Tel: 070-4048-4830

대구점/서비스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1번지 Tel: 053-851-8279

인천공항점: 인천광역시 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구상 신세계캐회점 내 Tel: 032-763-4769

할리데이비슨 2011년 모델의 품질보증 기간은 24개월(주행거리 무제한)이며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본사 및 지점에서 2011년 모델을 시승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 편집인 대표이사 이예성

전무이사 김경선 / 이사 양지웅 / 이사 원해진 / 이사 소상혁

**FEATURE EDITORIAL Team**

김동수 iwanty@maximkorea.net 김민태 ny@maximkorea.net  
김성현 psycho@maximkorea.net 김소영 jly@maximkorea.net  
김희성 alice@maximkorea.net 유승민 sm@maximkorea.net  
이영희 yb@maximkorea.net

**FASHION EDITORIAL Team**

고경희 kko@maximkorea.net 조정민 jj@maximkorea.net

**EDITORIAL DESIGN Team**

이은혁 eastlocust@maximkorea.net 장미연 Berryem@maximkorea.net  
장지민 doitol@maximkorea.net

**STRATEGIC PLANNING Team**

STRATEGIC PLANNING Director 소상혁 so@maximkorea.net  
ADVERTISING Manager 박태진 maxvim@maximkorea.net  
김진욱 14@maximkorea.net  
STRATEGIC PLANNING Manager 잔문민 wozin@maximkorea.net  
CRM / FINANCE PLANNING Manager 최정원 jy@maximkorea.net  
CREATIVE PLANNING Manager 유승민 sm@maximkorea.net  
홍승희 soumata@maximkorea.net  
HR / MARKETING PLANNING Manager 김종국 jk@maximkorea.net

교열 신성경 kshin0111@daum.net

**WEB SERVICE** 도병 / IT Director 사영민 orwiss@town.com

**PHOTOGRAPHY ARC STUDIO**

**FILM MAKING** Jin Work

**FINANCIAL CONSULTANT**

송경희k@bin / Accountant 김홍락 Consultant 김태영

인쇄 - 인쇄분배 / 인쇄인 유상근 ㈜상화인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37-10

**DISTRIBUTION** 승주 출판유통



발행처 ㈜에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1~4층  
TEL. 02-323-1182 / FAX. 02-6465-0193  
2010년 10월호 등록번호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로 라-00196  
본지는 한국 간행물 유통위원회에의 등재등록 및 실권외장을 준수합니다.

광고 문의 070-4010-6041, 9043, 9044 구독문의 02-323-1182  
기타 문의 jy@maximkorea.net www.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

MAXIM(South Korea)은 세계 20개국 편집부에서 발행되고 36개국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남성 주간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얼티미어 그룹은 2003년 7월 29일부로 대한민국의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하였습니다. (Y Media)는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한 라이선스 계약자이며, MAXIM의 한국어판을 출판, 배급,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얼티미어 그룹과 얼티미어 외에 어떠한 제3자도 MAXIM의 드래그앤드롭과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MAXIM 본인인 얼티미어 그룹에 귀속되므로 허락 없이 옮겨 쓸 수 없습니다.

copyright©(2010)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LPHA MEDIA GROUP Inc., the owner of the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monthly published by Dennis Publishing Inc. On Nov 21st 2009, Y Media Inc.(Korea) contracted exclusive license agreement of MAXIM magazine, a world famous men's magazine. Y Media Inc. is the sole MAXIM licensee in South Korea and has an exclusive license right to publish, distribute, and sell a monthly Korean-language MAXIM magazine. No party but Alpha Media Group Inc. and Y Media Inc. are permitted to use the MAXIM trademarks or the MAXIM logos in Korea.

CHIEF EXECUTIVE OFFICER  
**JOSEPH MANGIONE**  
CHIEF RISK OFFICER  
**BEN MADDEN**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MAXIM INTERNATIONAL**   
INTERNATIONAL LICENSING DIRECTOR  
**MARIANNA GAPANOVICH**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 DIGITAL ASSET MANAGER  
**MARIESA CONMAY**  
INTERNATIONAL FINANCE MANAGER  
**STEVE MINNITI**

**MAXIM UNITED STATES**   
DENNIS PUBLISHING INC.  
1040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NY 10018  
EDITOR IN CHIEF **JOE LEVY**

- US HISPANIC** Dominican Republic
- UNITED KINGDOM** Ireland, Australia, New Zealand
- FRANCE** Belgium, Switzerland, Quebec
- GERMANY** Austria, Switzerland, Lichtenstein
- CZECH** Slovakia
- SERBIA** Montenegro, Bosnia, Herzegovina, Fryom
- TURKEY** Cyprus
- ITALY**
- PORTUGAL**
- BULGARIA**
- GREECE**
- KOREA**
- ARGENTINA**
- BRAZIL**
- RUSSIA**
- UKRAINE**
- THAILAND**
- INDIA**
- INDONESIA**

국가별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MP3 FOLDER SEARCH

RELOOP/EXIT

CALL



MASTER TEMPO



TEMPO



PLAY/PAUSE



VINYL SPEED ADJUST

TOUCH/BRAKE

RELEASE/START

REV

FWD

EXPECT THE UNEXPECTED

JET J&B







EXPECT  
THE  
UNEXPECTED

JET  
**J&B**





# Letters

어서 사연 보내서 사무실에 굴러다니는 독자 선물 다 가져가세요!



사연 보내기

## 당첨

### 방귀 똥!

울산에 살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여자친구와 집에 놀러갔다가 여친 앞에서 방귀를 뀌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냄새가. 참고로 저하는 사건 지막 20일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굉장히 깔끔한 성격입니다. 방귀 냄새를 맡은 후부터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swelcher

방귀의 소리와 냄새는 반비례한다는데. 왜 그럴까요? 아졌거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친 구에게 보리밥, 고구마, 햄버거, 마늘, 고기, 달걀 등 가스과 악취를 낼 만한 것들을 먹이고 계속 앉아 있게 합니다. 식후 산책은 금물. 곧바로 영화를 보는 등 정시간 앉아 있게 해서 원기충 오듯 방귀를 모으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친을 관찰하세요. 말수가 줄고 안절부절못하며 엉덩이를 조금씩 들췄거나 단단히 성공입니다. 이제 할 일은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여친의 머리를 쓰드듬어주는 겁니다. 방귀 커릴!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나야아아!

### 나는야 사업가



안녕하세요. MAXIM 에디터님. 저는 아마 전생애 위대한 사업가 였나 싶습니다. 기막힌 사업 아이템이 분수처럼 솟아져 나오요. 그중 하나가 연애 복장 해결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괜찮은 싱글 여성은 많은데 도대체 왜 그에 걸맞은 남자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비루한 남자들의 옷차림을 센스 있는 여자와 어울릴 만한 것으로 바꿔주는 연애 복장 해결사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 아이템을 구성하는데 책상에 손을 배웠습니다. 폭죽, -LSJ 음, 이미 그런 직업이 있는듯~ 괜히 얽힌 소산 배고 어깨싸까요잉. 사업 아이템 10개 오르면 손가락이 다 질리겠네요. 그러기 전에 손가락 없는 사람들의 지위를 돕는 특수 의수부터 개발하세요.

## 당첨

### 오덕이 분명한데...

지날날 잡지에 나온, 핑크 키보드를 지른 김강현 에디터는 정말 오덕인가요? -ghritsk

오해입니다. 그는 그냥 핑크색을 좋아하고, 게임과 음악 전자 기기를 무척 사랑해서 거기에 열정을 담고 있다고 늘 다음 월급날까지 후회하는 주제에 또 다른 지름거리를 찾다니며, 다리가 늘씬한 여자를 극도로 좋아하는, 단지 그런 에디터일 뿐입니다.라

고 지금 그가 입을 뱉고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닥 처요. 상헌 씨

### 가을의 수줍은 고백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P.S. 아버지에게 정기 구독권을 권고해보겠습니다. -차난달 독자 사연 당첨 고백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공부하세요. P.S. 아빠님께서 서와 이즈도 MAXIM에 연락이 없으신 거요? 저지 처음 희망 장난하시는 겁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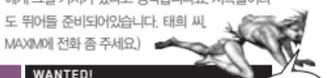
### 여신을 모셔와

김태희를 MAXIM에서 만나고 싶소. 켈리 브룩은 표지까지 하고 이태인도 엄청 예쁜 화보 찍었던데 왜 김태희는 안 되는 것이요! MAXIM은 남성 잡지라면서 진짜 남자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이요? 일 제대로 안 하던 테러하겠소. -주니



나 때문에 또 싸우나?!

김태희? 있습니다. 소원 들어 드렸습니다. 정말 테러하지 마세요. 여배우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장애를 적으로 돌리시렵니까? (물론 저의 김태희 씨에게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요. 자족불이라고 뒤려온 준비되어있습니. 태희 씨 MAXIM에 전화 좀 주세요.)



## WANTED!

### 독자 사연과 사진 공모

11월호에 자신의 사연이 소개된 모든 독자에게는 오디뮤지컬컴퍼니의 뮤지컬 티켓 한장을 선물로 증정한다.



### 당신의 사연이 궁금하다

생각은 우리가 하겠다. 당선은 MAXIM에 사연을 보내라. 재미없어도 좋다. 선물 못 받더라도 태하? 독자 편지 코너에 선정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호에.

### 당신 연수도 보고 싶다

MAXIM을 탐독하는 사연을 보내면 수준 선생님에게 보낸 적이 매번 MAXIM을 책상에 올려놓은 학생 용서는 이미 나왔으니 더 독하고 격한 상황에서 MAXIM을 보는 용자의 도전을 기다리겠다. 사진 올린 블로그나 홈페이지 주소(소셜)나 사진 내용,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적어 reader@maximkorea.net으로 보내면 선물을 차치할 수 있다.

### 공모방법

우편 접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코리아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스피라 자세히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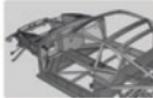


Drift Your Soul **SPIRRA**



**미드십**

스피라는 미드십 엔진 레이아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드십 엔진 엔진과 연료가 기동과 동시에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징은 무게중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높은 조향성과 세밀한 컨트롤 및 강력한 반응으로 감동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추구하는 스포츠카에 적합한 레이아웃의 핵심입니다.



**스페이스 프레임**

스피라는 일반 차량에 적용하는 모노코크 구조가 아닌, 비아와 링크가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프레임은 생산 공정이 복잡한 단점이 있지만, 무게 중심 및 세팅을 안정화 시켜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통 스포츠카에 적용되는 제작 방법입니다.



**카본 비드**

스피라 휠은 카본 비드 카본 휠을 적용합니다. 카본 휠은 일반 알루미늄 휠과 비교하여 무게는 가벼우며, 강성도 높고, 내열성이 뛰어나서 무게가 줄어들어 기동성이 좋아집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수제 슈퍼카 탄생

장인의 손으로 빚어낸 자신감!

전세계에는 유수의 명스포르츠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생산대수 세계 5위  
자동차 생산 역사 50년의  
자동차 강국 대한민국을 대표할  
정통 스포츠카는 아직 없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세계의 명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국기대표가 탄생하였습니다  
이제 스피라를 도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MAXIMUS

A MAXIM VIEW OF WORLD



## 책상 꾸미기

→ 출세하고 싶다면 오른쪽엔 전화기만 놓아라. 그러기엔 책상이 너무 좁지?

→ 언제 질릴지 몰라 늘 불안하다면 몸에 금붙이를 지니고 다녀라. 있는 집 자식처럼 보이란 말이다!

→ 인감도장이나 신용카드, 뽕장 등의 귀중품은 초록색 천에 싸서 보관해야 돈이 술술 새는 걸 막을 수 있다.

→ 은종일 실 틈 없이 일해도 도무지 돈을 만져볼 수 없는 사람은 등쪽에 빨간색 문구류를 놓아둬라. 앓, 거기는 전화기만 놓으셨잖아! 출세냐 돈이나 그것이 문제란다.

→ 당신 키보다 큰 나무나 시들시들한 분재가 있다면 당장 갖다 버려라. 화분을 놔둘거면 앞이 넓은 상상한 관엽식물로 할 것.

→ 주변 동료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면 동남쪽을 분홍색으로 장식해 봐라.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해질 것이다. 음, 아마 세상 편견과 맞서 싸우는 게이트 오인 받아 괜한 연민을 샅을지도...

→ 하얀 꽃이 피는 화분을 놓아두면 돈이 속속 들어온다.

→ 서쪽에 노란색 물건을 놓아두면 길 가다 돈을 줌는다.

→ 북쪽은 통장에 돈이 쌓이는 운을 가져오는 방향이니 돈과 관련된 물건은 꼭다 북쪽에 놓아라. 그런데 자네 일은 도대체 언제 할 건가?

돈 구경을 찾아라



# 지르재! 엽기 발명품 5선

발명가들은 우리의 needs/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고급에이~ 침말로 고급에이~ BY 김성택



## 브래지어 방독면

녹슬지 않은 당신의 브래지어 풀기 생각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왔다. 비상에 불려 방독면 마스크로 쓸 수 있는 브래지어를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 과학자가 발명했다. 화재나 테러가 발생하면 옆에 서 있는 여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브래지어를 불려야 할 때는 여자에게 건네고 나머지 한쪽은 당신의 머리에 쓰면 게임 오버. 그날을 위해 연습 부지런히 해둬라. 한쪽만 쉼

## 킥 팻

볼 땀방 신통  
만으로 완벽  
한 셀카가 탄



생하는 건 아니다. 자고로 셀카의 완성은 볼을 쪽 뿔어 당신의 큰 비뚤 얼굴을 새 대가리로 만드는 데 있다. 킥 팻은 아무리 볼을 뿔어봐도 그대로인 슬픈 짐승들을 위한 셀카 전용 장이다. 하지만 누런 치아를 새하얗게 만들어준다거나 딱후 이미지를 꽃이냄으로 업그레이드 주는 않는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 셀카의 완성도 얼굴!



## KISS A ZIMA

밀고 의지할 것이  
라곤 TV 리모컨뿐

인 당신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일본의 한 음료 회사가 유명 연예인과 키스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다. 유명 아이돌의 입술 모양을 본뜬 실리콘을 음료수 병에 끼워 마시는 거대어이. 나왔잖아. 하지만 우리는 실리콘 촉감이 너무 리얼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음료 회사는 도대체 무얼 하나!

## 비키니진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도비키니를 착용할 수 있는 방안일 생각하면 고마운 디자인도 있다. 워낙 타이트해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두드러지던, 그래서 굳이 팬티를 입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이유다. 2007년 '주니어 란 신인 가수'가 비키니진을 입고 나와 자신이 영망임을 인정한 적이 있는데(아마 기억력 안 날 거다). 그녀는 비키니진만 세상에 알려고 조용히 사라져버렸다. 아꼈던 국내 제도입이 시급하다. 하악하악

## 비키니진



## 곰침낭



눈에는 눈. 이는에 이. 곰침낭은 곰으로 승화된 게 찡이다. 곰 앞에서는 죽은 척하려는 건 20세기에나 쓰이는 방법이고 전세계에는 최첨단 곰 침낭으로 무장하면 된다. 숲 속에서 한참 캠프를 치고 있는데. 아생 곰이 당신을 달치기라도 하면 곰 침낭의 지퍼를 끌개지 짐도드록. 아생 곰 얼굴이 전면에 나타나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거다. 단. 당신에게 반한 곰이 뒤를 달치고 있다면 그냥 임천히 품에 안겨 고르릉~거리도록.

## ANGRY NERDS

## 괴짜들의 습격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부활하면에도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할지도 모른다.

### 헤르퍼트 무사시후사 분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부활하면에도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할지도 모른다.

###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부활하면에도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할지도 모른다.

### 부활하면에도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할지도 모른다.

부활하면에도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할지도 모른다.

### 가장 예민하게 실명당한 여자

가장 예민하게 실명당한 여자

## RT, RT, RT...

## 트위터 망언

순간적 함부로 놀리다간 당신의 무지몽매한 멘션(mention)이 무한 RT되는 영광을 누릴 수도 있다.

### 8위 "오늘 필로어가 3,000명이 되면 나레로 쇼 핑터데야 가져다."

- 인도네시아 영화감독 조코 엔위  
1800여명이던 필로어가 수가 순식간에 3,000명 을 돌파해 그는 약속을 지켰다. 이 한 무 학생 해 MAXM 트위터 필로어가 수를 순식간에 늘릴 방법을 찾아보고.

### 7위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사진으로 찍어 보여주세요 네?" - 에데티의 필로어 1인

제일 인증샷을 찍어 보내달라던 당신의 욕구 하나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새겨들여라. 필 도킹 장이나 재

### 6위 "난... 아저씨가 된 거냐... 그래도 난... 내가 남 좋아여. 후후..." - 가수 하하

얼굴을 연예인 찾기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얼굴 연예인(주로 연예인) 나온 결과를 보고 너무 기뻐한 나머지 남긴 말인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는지 에데티 사진을 올려봤더니 티타임, 입수전, 심문(영화) 등이다. 확실히 무언가 잘못됐 거야 맞지?

### 5위 "사건의 사람을 쏘았다. 집을 나가서 못 본지 36시간이 지난다. 비선 분은 바로 트위터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꼭 전화주세요. 틀어오면 정산스럽게 키스해드립니다!" - 가수이자 장영애의 남편 신

아내 드라마 흥보하면 좀 급해 해라.

### 4위 "천안함 집단연을 트위터 이용자 20명에게 공개해라 합니다. 6.8일 아침 9시부터 16시까지 집중 열람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트위터 이용자는 RT로 응모가 가능합니다. 6.8일 오전 10시에 발표하겠습니다." - 광범부 트위터

국가 기밀 유출이 두려워 언론에도 군정 행위를 허용하지 않던 이젠 무슨 시베리아산 당장이라도 초대 가수 부를 기세.

### 3위 "회의 중 유신을 했다. 다들아. 다행해. 다행해. 하러면 3주 이상이 걸렸을 텐데."

- 인기 트위터러인 페넬로페 트랜크  
필로어 수가 2만 명이 넘는 트위터 인기에는 이 멘션 하루 소용한 필로어를 줄이기 일이다. 개를 따면 어디다 두어야?

### 2위 "전 이걸 읽으면 스타레 저는 '저녁엔 먹어오!' - 아이폰 사용자 1인

이처럼 문자 자동 완성 기능은 재능을 지닌 것으로 배워려는 무사시후사형 창의력을 발휘했다. 사.당.당. MAXM 편집부에 아이폰 더 놀려 보았어요.

### 1위 "아저랑 살고 싶어요." - 에데티의 트위터까지 무한 RT된 이름 둘을 트위터 유저

팬지 진심이 느껴지면서 애뜻함이 밀려왔다.



FX채널 방문하고  
신용원자

이제 WWE는 FX에서 접수한다!



THURSDAY PM 11:00 WWE SUPERSTARS  
FRIDAY PM 10:00 WWE SMACKDOWN

**FX** 남자의  
모든 것

tcast

E channel

[www.fxchannel.co.kr](http://www.fxchannel.co.kr)

Copyright © 2010 FOXChannel KOREA. All right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채널

# FRIED RICE CAKE

## WITH BUTTERFLY

### 오색나비 화전

여러분의 무병장수가 MAXIM의 소망입니다.

BY 김희성 PHOTOGRAPH BY ARC STUDIO



예호랑나비, 붉은점모시나비, 모시나비의 수컷은 절정의 순간에 정자와 함께 성숙 액체를 발사해 알컷이 난 농아랑 병기병자를 못하도록 만든다. 그녀의 보드라운 손이 실컷에 닿기만 해도 곤추사는 수처심 없는 곤추 때때로 고인리라면 내비를 가루 내어 먹자. 용왕 조철에 실패하면 대왕사가 일어났다. 내, 내가, 그대나!

수컷 나비는 교미 전부터 한 시간이 넘도록 암컷 나비를 애무하는 부지런한 놈이다. 그러는 동안에 자신의 항문 근처에 있는 돌기를 암컷 다듬이에 문질러 페로몬을 마구 뿌린다. 장아은 나비가 암컷이라면 다듬이를 수컷이라면 동고를 때려 지리에 넣고 더러라. 당산에게도 드디어 어차려 존재가 말을 걸어줄 것이다. 브라보.

#### RECIPE

##### 재료 : 나비, 참살기무, 꿀

- 1 참살기무에 꿀은 물을 조금씩 부어 반죽한다. 나비가 약간 찢길때나 반죽에 소금을 넣어 익히도 된다.
- 2 기름을 두른 팬에 달걀지단 조금 납작하게 볶은 반죽을 올려 익힌 불에서 자른다.
- 3 반죽이 익기 시작하면 접아은 나비를 살포시 얹는다. 날개가 바스라져

- 4도 쫄쫄다. 아까미 맛은 똑같다.
- 4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익힌 불에서 굽는다. 나비의 양 날개가 반죽에 잘 달라붙으면 물을 까도 좋다.는 신도다.
- 5 나비 화전을 접시에 담아 꿀에 찍어 먹는다. 룬 아주 잘치대

#### CHI-ENGLISH

### 영어가 중국을 만났을 때

자기네가 세상의 중심이라잖아. 대륙의 간지를 휘저르느라 느껴보자!



1. 《變形金剛(변형강강)》은 원래 어떤 영화일까?  
a. 트랜스포머 b. 트랜스포터 c. 아이언맨

2. 중국어 제목과 원제가 잘못 연결된 것은?  
a. 변종특공 극상영대 - 엑스맨 최후의 전쟁  
b. 초인 강전회귀 - 슈퍼맨 리턴즈  
c. 색역도시 -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3. 다음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 토미 스타로 →  완구중 ( )  
- 나무를 찾아서 →  해자중 ( )  
a. 가시우 b. 동원 c. 각 꽃밭에 줄 손꾸래

4. 그룹 韓城(한성)대조항의 설명에 맞는 것은?  
a. 대위백강의 마누라가 조항이었다  
b. 오우며 매를 때리는 별개조항이다  
c. 캄버드와 고추 만지는 걸 좋아한다

5. 다음 이름을 보고 원래 이름을 적으라.  
a. 後街(후가이)남매 →   
b. 亂(luan)후후(후후) →   
c. 金(金)금속(금속) →

[정답] 1.a/2.c(엑스 맨 데드)/3.b나모 피우 찾아서 뭐? 대륙은 무조건 중동중대/4.a 대위백강-대위비 데 변. 그룹은 스파이스 걸스/5.a 백트리트 보보 b. 권 c. 메달리타대륙에 록의 전설은 그저 고대(대륙) 판

#### EAT YOU UP

### 동물성 진수성찬

동물들 꼭 동물들이서만 봐야 한다는 선입견을 버려!

오늘은 너로 정했다.



#### 에피타이저

같이 먹으려면 나는 게이와 게이 알 스프, 게이 알 오믈렛을 곁들이면 기쁨에 쏟은 하얀 단 액질 충전 원료 그리고 사마귀를 올린 두부 요리로 일가성



#### 샐러드

꾸덕꾸덕 잘 말린 허마 육포와 굴껍질이 달린 허마 발가락은 올린 샐러드로 다(가)은 메인 코스에 (해)하자 아쟁이 정정 다 가온다.



#### 메인 요리

진정한 동물 애호가인 당신에게 캣카루 꼬리 요리, 가가께 초대형 쥐 구이와 쥐를 낚은 행을 추천한다. 음~ 잊을 수 없는 이쁘기사리의 맛



#### 디저트

진수성찬의 끝은 역시 디저트. 달콤한 크림을 곁들인 크림과 자와 호랑이 페스. 담금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자. 영? 그거 영는 거야?

OD Musical Company, CJ Entertainment and Charlotte Theater Present

#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사상 초유의 예매전쟁  
10월 26일 티켓오픈



공연 영상 보기

주최 SBS 제작 OD 오디뮤지컬컴퍼니 (HARLOTTE 주관 오디마케팅컴퍼니 협찬 LOUNGE d+m 문의 오픈리뷰 1588-5212

Conceived for the stage by Steve Cuden & Frank Wildhorn | Book and Lyrics by Leslie Briceau | Music by Frank Wildhorn | Orchestrations by Kim Schamburg  
Arrangement by Jason Howland | Directed by David Swann

d+m 지킬앤하이드

**독일인** 독일인은 명칭하고 아둔하여 금도 더럽게 못 쓰지요. 그들의 길고 복잡한 늑어진 문장은 독일의 참담한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독일 작가는 그들의 눈곱만 한 지식을 크게 부풀리기 위해 길고도 긴 문장을 쓴다고? 쯤?...

**교과서** 교과서는 지푸라기처럼 가벼운 두뇌를 소유한 가스로운 철학자들이 만든 것이라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알 수 있는 문장을 써놓고 이를 학구적이라 말합니다. 알맹이 없이 그저 길기만 하여 읽다 보면 마약에 취한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때문에 교과서를 읽는 것은 고문 그 자체입니다.

**독서** 독서를 삼을 러비해선 안 됩니다. 독을 피하세요. 자나친 독서는 현실 감각을 떨어뜨리지요. 독서는 타인의 생각을 당신의 머리에 그대로 주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색 활동을 방해하지요. 단 사상이 가는 정신력이 강하기 때문에 독을 해도 괜찮습니다.

**헤겔** 헤겔의 책은 인쇄도, 판매도 잘 되는데 왜 내 평생 노고가 담긴 책은 출판사야 인쇄비도 내놓으려 하지 않는 겁니까 세상이 날 물러주는군요! 이 모든 게 다 헤겔이 시가꾼 때문입니다! 엄청난 헤겔과 그 추종자들은 결국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인간** 인간은 독사. 두개비 세개와도 같지요. 내가 이것들과 같은 인간이라는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야아!

**인간**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랴. 이긴 나에게 형벌입니다. 시끄럽고 친박한 사회장에 골려온 천재의 상징을 생각해보십시오! 어리석고 멍청한 인간들을 상대로 나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들과 아예 말을 섞지 않는 것이지요. 즉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완화'란 말은 '똥격 있다'는 말과 같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만. 고독할 것이냐 다른 인간들처럼 상스러워질 것이냐! 이 것이 문제입니다!

**여자** 18세에서 28세 사이의 여성은 매력적이지요. 나이를 먹은 여자는 명중만 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은 여자는 제아무리 미인이라도 별로 당기진 않을 겁니다. 몸매 역시 중요하지요. 얼굴이 좀 못났어도 몸매가 좋으면 이성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 머리칼도 아름다워야 하지요. 성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자** 여자는 유치하고 어리석으며, 속임수와 낭비매이 이들의 천성이지요. 그녀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중노동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키우고,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이를 대신합니다. 이런 열등한 제2의 성을 관대하게 돌봐주는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존경하면 우스운 꼴이 되니 주의하십시오.

**현실 인식** 오늘 사정이 나쁘셨습니까? 앞으로도 나빠질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 나아질 것 같습니까? 쯤?... 아니지요. 마지막에 당신이 만나는 것은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뿐입니다. 국경...

## 쇼펜하우어 3종 세트

김구라 뺀다는 영세주의자 쇼펜하우어의 자기 자랑, 분노, 그리고 독설

BY 김구라 ILLUSTRATION 이만우

**논쟁**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 상대방을 화나게 만드십시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상대방을 노골적으로 폄하하거나 트집을 잡으십시오. 상대방에게 질 것 같으면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인식공격을 하십시오. 직행입니다.

**파리** 파리는 뻔뻔하고 무식한 동물입니다. 인간을 무서워하기는커녕 인간의 코에 앉아버리기 때문이지요. 나라의 경제를 이야기하는 데 파리가 안다니요!

빌지 마, 스비.



**가벼운 글** 유아리스크 문장을 집적하다 보면, 완전히 돌아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문장이 탄생합니다. 문체에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자신들이 아무런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다는 굴욕감을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요!미안합니다. 쇼펜하우어 양반. 그런데 내 그림을 타블로이드지에 담겠다니요! 내 모습이 가슴속 삼삼품으로 이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쇼펜하우어 양반!

**개의 자유** 어떤 귀족이 쇠살에 묶여두었던 큰 개를 쓰다듬다 팔을 물어 뜯겠다는 기세를 읽었습니다. 참으로 고소하지요! 개의 쇠살로 묶는 인간들은 모두 이런 병행사를 당해 마땅합니다.

OD MUSICAL COMPANY, CJ Entertainment & PHOENIX ENTERTAINMENT Present

Book, Music & Lyrics by JIM JACOBS and WARREN CASEY



카드 링크 티켓 받기



내가 선택한 첫 뮤지컬!

# No.1 뮤지컬 그리스

2010.09.29~10.31 충무아트홀 대극장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 충무아트홀 2230-6601 | 오픈리뷰 1588-5212 [www.openreview.co.kr](http://www.openreview.co.kr)

제작 OD

오디마케팅컴퍼니

CJ

Entertainment

주관

(주)오디마케팅컴퍼니

협찬

LOUN.G

L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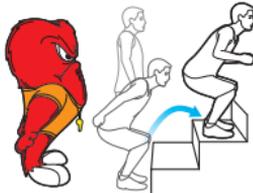
# 계단을 이용한 운동법

당신 밖에 딱 하나 붙어 있는 실을 반죽해질 전문가를 모셨다. 리복의 팀 NBA, NFL, 트레이너인 데이비드 잭이 제병왕 김탁구 뺨치는 속으로 반죽을 치대서 물렁물렁한 식빵을 쫄깃하고 단단한 바게트로 만들어줄 테니 무조건 따라하라. 헬스클럽이 필요 없는 계단 피트니스, 지금부터 시작! ILLUSTRATIONS BY CHRIS PHILPOT

→ "계단을 이용한 운동은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만들어 탄탄한 몸매를 빠르게 만들어준다"고 데이비드 잭은 말한다. 다시 말해 걸을 때마다 당신의 안쪽 허벅지가 스치면서 내는 바짓자락 소리를 멈출 수 있다는 거다. 이 페이지에 등장하는 1번부터 5번을 차례대로 하는 게 한 세트다. 한 동작이 끝나면 30초 쉬고, 한 세트가 끝나면 2분 쉬는 거다. 그렇게 5세트를 한다. 뚱실리는 자욱 훈련에 등장할 걸 환영한다!

## 1 계단 점프

제자리멀리뛰기 선수처럼 서서 최대한 멀리 있는 계단으로 점프한다. 상체가 피크처럼 정도로 멀리(그렇다고 계단에 머리를 차버릴 정도로 위험하게 하진 마라. 다 살지고 하는 5분데!) 스쿼트 자세로 엉덩이는 뒤로 쏘며 하고 허리는 곧게 편 상태에서 점프한 후 그대로 착지한다. 잠시 멈추고 자세를 가다듬은 다음 10번 반복한다.



## 2 날렵한 스텝 (세 가지 동작)

각각의 동작을 10초의 인터벌을 두고 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하라. 그리고 5초 동안 쉬는 거다.

1) 계단에 오른발, 왼발을 번갈아 올리고 내린다. "업, 업, 다운, 다운"이라고 소리 내어 박자 맞추는 게 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거의 발끝 정도만 중심을 가며 발 걸음으로 스텝을 밟는다.

2) 계단을 마주하고 거위 스텝을 밟는다. 즉 오른발을 왼쪽 계단으로 올릴 때 동시에 왼발은 아래쪽을 디디는 식으로 발 바꿔 뛰기를 한다.

3) 계단 측면으로 서서 위쪽 계단으로 점프하고 다시 원위주한다. 왼쪽으로 다섯 번, 오른쪽으로 다섯 번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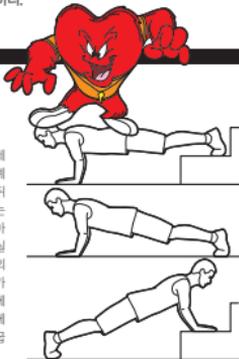


\*그래, 뭐 우리라고 다 뚱뚱은 아니야. 대부분은 슬과이군. 뚱뚱, 자, 나쁜 육식으로 거지 같은 몸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지. 하지만 우리 MAXM 독자들 너무 사랑한다. 제발 자제라도 이 쓰러질 같은 상태로부터 멀리멀리 도망가라. 이런 말 주제넘긴 하지만 몇 주만이라도 늦은 시간 야식과 술을 줄 줄여라.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겨울은 보고 사? 마치 육자 홍수를 뚱뚱해 살린 것 같지 않나? 어, 전장 우리 원래 이렇게 신랄하게 개짜는 사람들은 아는데 말이야. 상투를 뺀다면 미안. 솔직히, 나가 올린 무지개 등산에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살린 새까마귀 양영 울어봐야 훑힐 뻔하지. 자만 마라. 당장은 훌륭한 이색스에 몸을 풍공 송공하고는 "헛헛 알았로?가 있다"는 핑계를 갖지. 하지만 우리 알아. 당신 밑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심지어 들숨에서조차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 다 당신 생각대로 하는 예가야. 사랑은 가득 담아, **과체중 MAXM 에디터가 독자의 또 다른 과체중 에디터에게**

## 3 계단 팔굽혀펴기

(세 가지 동작)

당신이 자제할수록 이 세 동작은 점점 쉬워진다. 우선 양발을 계단 위에 올리고 양손을 바닥에 붙여 뒤 자세가 흐트러지기 전까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팔굽혀펴기를 하라. 아무야 주 살짜 자세가 무너져오지도 그런 실패과 관리를 명바에서 하는 보통의 팔굽혀펴기를 삼가한다. 역시 자세가 흐트러지면, 이번에는 양발을 바닥에 두고 양손을 계단 위에 놓는다. 이번에도 역시 자세가 무너지기 전까지 팔굽혀펴기를 한다.



## 4 다리 들어 얽음으로 스트레칭

계단 측면에 반 걸음 정도 올라서 서서 한쪽 발을 계단에 올리고 깊게 앉는다. 이때 올린 다리를 쭉 누르듯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온다. 그림과 같이 계단 아래 다리는 바깥쪽을 향한 상태로 땅에서 댄다. 근육의 당긴이 느껴져? 동작을 하면서 발가락을 곧게 댄 것을 잊지 마라. 좌우 다리 각각 10번씩 반복하라.



## 5 계단 뛰기

최대한 빨리 계단을 뛰어 올라라 (그러나 인간이 제압이다)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47, 49, 51, 53, 55, 57, 59, 61, 63, 65, 67, 69, 71, 73, 75, 77, 79, 81, 83, 85, 87, 89, 91, 93, 95, 97, 99, 100. 5세트가 끝나면 빠르게 사익 지정을 돌아와서 다시 1분간 계단 오르기 1~5세트를 반복한다.







IMAGE Getty Images



음모하러 가세요

1  
2  
3

범상치 않은 포스의 이 인물들은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여기에 어울리는 센스 있는 말풍선을 달아보자.

응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번지(121-84)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caption@maximkorea.net, 또는 QR 코드 스캔 후 댓글로 하라. 마감은 10월 10일 담당 에디터의 입교리가 올라가는 캡션을 달아주는 독자에게 뮤지컬 관람권 2장 또는 MAXIM 1년 정기구독권을 선물하겠다.



## AND LOSERS 겨우 이 정도였어?

내가 이거면 먹을 것 같지? - 최서경  
→ 감동적이다. 하지만 에디터가 '서경' 이란 여자에게 차인 적이 있으니 말라이다.

너의 눈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구나. -Aut525

→ 시프지 마십시오.

자차기 대신... 정차기! -ky016

→ 차라고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가슴 사이에 바나나 꾸민듯 바나나우유 니름?

-유아독존

발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어... 니 입 냄새! -48397699

누구를 때려주려고? -Dc77

→ 하~원. 다 끝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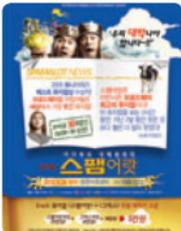
넌 캣겨루, 넌 큰가~루(Girl)~ -Hngite

→ 네. 알겠습니다.

거웃 안에 숨겨놓은 것도 길러버리고. -Jawlling

거 건져 줘 나오겠는걸! -beUp

→ 지난 달 에디터의 캡션 '거 손 좀 차워보소' 외 너무 비슷하다. 어리는 쓰리고 있는 것. 영아를 발휘하러고 그리고 다음 달 상봉을 노래라



## LAST MONTH'S WINNER

haengdi

“보자... 생명이 좀 짧네...”

모두가 '승가'를 이야기할 때 당신은 '승'을 이야기했어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은 당신의 용기에 감동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 MAXIM e-Magazine

## e-Attack!

www.maximkorea.net



MAXIM의 모든 콘텐츠를  
1,500원에 보고 싶은 자!

## 모두 e-Magazine와 교감하라!

- 책보다 PC가 더 친근한 당신!
- MAXIM을 사러 서점까지 가기가 귀찮은 당신!
- MAXIM을 침대 밑에 숨겨온 당신!



MAXIM을 영상으로  
즐기고 싶은 자!

### 열람 방법

01	www.maximkorea.net 접속	02	보고 싶은 월호 고르기
	홈페이지 상단키데그리 reader 항목 중 e-매거진 클릭		이용권 구매 클릭 후 결제
	홈페이지 우측 e-magazine 클릭		MAXIM 홈페이지에서 적합한 '떡으로도 구매 가능'





촬영장 엿보기

## 2010년 독자 모델 #5

거기 자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12를 누르고 있지는 않나? 진정 해라.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그녀의 후덜덜한 모습이 담긴 화보의 MAXIM 홈페이지에서만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괜히 112에 전화했다 미친놈 취급받지 말고!

### 별명

넋 나간 고양이, 고양이 상안테 영 때리고 있을 때가 많아서

### 자신 있는 신체 부위

빠대, 특히 새끼이 예쁘다.

### 나를 볼 수 있는 곳

예쁜 옷 많은 흥대 거나 이태원 등산로, 난 등산이 너무 좋다. 그리고 MAXIM 홈페이지!

### 남자친구

개개일 전에 헤어졌다. 좋은 인연 어디 없나!

### 이런 사람이라면 번호 줄 수 있다

조니 델, 꿈이 너무 크\*(웃음)

### 나에게 MAXIMI이란

지루할 때 활력소가 되어주는 존재

### 다음에 하고 싶은 코스프레

귀여운 토끼로 변신하고 싶다. 가을이니까 털이 복슬복슬한 토끼로!

### PROFILE

이름 김태정 / 생년월일 1983년 1월 5일 / 키 163cm / 몸무게 49kg / 혈액형 O형 / 종교 기독교 / 취미 요가, 영화 보기 / 특기 춤추기 / 주향 안 마실 / 출몰 지역 신사동, 영리동 <http://www.cyworld.com/333taejung>

### IN MY BED

자기 전에 하는 것! 기도와 스트레칭. 아무리 피곤해도 꼭 하고 전다.

잘 때 옷차림! 실랑한 반바지와 민소레 티

잠버릇! 어기자기 골라다닌다. 꽤 보편 전혀 엉뚱한 곳에 와 있다.

주로 꾸는 꿈! 사자형 이야기하거나 날개를 달고 우주로 날아가는 꿈



### GIRLS IN POCKET

이렇게 훌륭한 차지를 사진이 왜 이것밖에 없나고 두달째지 마라, 아무러할 줄 알고 우리가 다 수를 써 왔다. MAXIM 홈페이지([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좌측 상단에 캠페인은 'DOWNLOAD' 메뉴가 보이니? 거기서 GIRL-NEXT-DOOR CONTEST를 클릭하면 먼저 지원에 신청 못한 고양이 화보를 소장할 수 있다. 동시에 해당 다운로드의 주인공을 2010년부터 MAXIM 모델로 활동하게 되니 이제 그녀를 1년 365일 만날 수 있는 거다. 차 이제 마음에 드는 그녀의 사진을 다운로드 해볼까? 고민도 하기 전에 손은 이미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있...88888888



"내 몸매가 더 예쁘다, 화장발, 조명 받으면 내가 낫지" MAXIM 화보를 보여 이런 생각하는 여성, 하루쯤 MAXIM 표지 모델처럼 멋진 화보 촬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여성은 주목! 당신에게 MAXIM 모델 데뷔의 기회를 드립니다!

### 1 2010 Girl Next Door의 문을 두드려! MAXIM 여성 독자 모델을 찾습니다!

세계 최고의 남성 잡지 MAXIM에서 주최하는 2010 Girl Next Door 콘테스트는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며, 독자 모델의 후보는 MAXIM의 지원 또는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콘테스트 심사 및 우승자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MAXIM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2 Girl Next Door 콘테스트 최종 우승자는 상금 200만 원을 받으며, 2010년부터 MAXIM 모델로 활약하게 됩니다.

당신의 판타스틱 화보 촬영을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포토그래퍼, 헤어메이크업 디자이너, MAXIM 스타트 팀이 움직일 예정이니 장려하고 멋진 여성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본인 사진, 연락처와 함께 신청 메일을 보내주세요!

[model@maximkorea.net](mailto:model@maximkorea.net)

(단, 동성만 있고 크 및 키 없는 남성일, 성명 확인이 불가능한 사진은 다운로드 저장하지 않음)

\* 콘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문의 QNA@maximkorea.net

FOOD

# BURGER **왕**

MAXIM이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의 베스트셀러 햄버거를 싹고 뜯고 맛보고 비교해봤다. 대명절 추석에도 휴무 따위 없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우린 무엇을 먹어야 하나?

BY 김민재 PHOTOGRAPHS BY ARC STUDIO COOPERATIONS 버거킹, 맥도날드, KFC, 롯데리아

MAXIM

롯데리아 불고기버거 100g 2개의 칼로리는 무시무시한 단식



KFC 칠기버거 KFC 버거 구매자 10명 중 5명이 선택하는 버거

나눠지 않은 도대체 몇 선택한 거지?



맥도날드 빅맥 세계 경제 용어로도 쓰이는 그 유명한 빅맥

버거킹 외판 136년 탄생 외판은 엄청나게 크다는 듯



총 **9735kcal**

바쁜 현대인을 위한 전설의 레전드 버거 이거 하나면 하루가 거뜬해요!







트레이너 강의

# ONE POINT FITNESS

잘 보이지도 않는 등 근육을 길러서 뭐냐고? 그녀의 눈에 공학 검색대를 골로 보낼 알몸 투시기가 달려 있던 사실을 잊었네! 그녀가 에일리언처럼 색사하게 발달한 당신의 등 근육을 쓰다듬고 싶어 오늘 밤 당신을 집으로 초대할지도 모를 일이다. BY 최성현 WORDS BY 트레이너 강경환(한) PHOTOGRAPHS BY ARC STUDIO

## Bent over dumbbell row

벤트 오버 덤벨 로



1. 정면을 보고 무릎을 가볍게 굽히고, 상체는 앞으로 45° 정도 기울인다. 양손에 든 덤벨은 무릎 앞으로 상체를 숙일 때 등과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가슴을 떠준다.
2. 호흡을 내쉬며 양손을 가볍게 굽히고, 상체는 앞으로 45° 정도 기울인다. 가슴을 최대한 활짝 펴서 등을 완전히 수축시키는 게 포인트다.

### 주의 사항

동작을 따라할 때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개인 체력에 맞춰 12~15회씩 3~5세트를 반복 한다.

## One arm dumbbell row

원 암 덤벨 로



1. 다리를 앞뒤로 길게 뻗는다. 앞으로 뻗은 다리의 손은 무릎 위에 올려두고, 반대쪽 손으로 덤벨을 든다. 이때 덤벨을 든 손은 곧게 뻐다.

2. 상체를 앞으로 40~45° 정도 기울인 상태에서 호흡을 내쉬며 덤벨을 든 손을 엉구리까지 당긴다.

### 주의 사항

마찬가지로 덤벨을 당길 때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당길 때 가슴을 활짝 펴서 등을 최대한 수축해야 한다. 개인의 체력에 맞춰 12~15회씩 3~5세트 반복한다.

## Back extension & Two arm row

백 익스텐션 & 두 암 로



1. 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린다. 이때 양손은 스피드밴치형 앞쪽으로 꼭 뻗는다.

2. 호흡을 내쉬면서 상체를 들어 올린다. 팔꿈치를 접어 두 팔이 최대한 물로 당겨지도록 한다. 시작 자세로 돌아가 동작을 반복한다.

### 주의 사항

상체를 들어 올릴 때 두 팔을 당겨 허리와 등이 흥분할 수축되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 개인의 체력에 맞춰 12~15회씩 3~5세트를 반복한다.

## NO, NO!

### 모두 먹고 있습니까?

하루 한 끼 먹으면 될 줄 알았나? 적게 먹으면 등사는 아니다.



### 누가 뭐래고 하라!

영질의 단박실 적당한 탄수화물 등에 좋은 지방산을 섭취한다면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도 살이 빠지지 않! 하지만 당신의 한 끼가 다른 이의 세 끼를 합친 것보다 훨씬 칼로리가 높다면 한 끼를 먹어봐야 무슨 소용인가! 살! 빠질 턱이 있겠나!

### 등은 당신 머리보다 스마트하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살이 빠지지 않는다! 다이어트는 물론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일은 권하지 않는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몸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영양분이 몸으로 들어오면 더 열심히 지방으로 축적하려 하기 때문이다.

### 얼마 없는 근육도 버릴 기세다!

동종하지만 몸무게는 가벼운 친구가 있고 날씬하지만 몸무게는 적지 않은 친구도 있다. 기초대사량과 근육량이 달라서 무게 차이가 난다. 기초대사량이 높을수록 체지방은 적다. 그리고 근육은 지방보다 부피가 작아 같은 무게라도 근육질 남자가 더 날렵해 보인다. 운동이 마냥별로 같은 당신과 몸짱님의 무게 차이가 별로 없는 그 미스터리가 해결했나?

### 무기력한 잉어가 될 생각인가!

단연한 소리. 한국 사람은 병사이다. 탄수화물은 몸집이 큰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일차에너지다. 예식! 강군이 안 되는데 어찌 활활이 움직일 수 있겠나! 체중 강령을 하겠다고 죽자 살자 매일 2시간 정도 운동해도 소비되는 칼로리는 그리 많지 않다. 차라리 고백! 밥을 챙겨 먹고, 그보다 더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게 체중 강령에 더 좋다.

## 비뇨기과 건강 칼럼 음경 재건술

올가을은 고추가 영 시들시들하어.

BY 글쓴이  
WORDS BY 마노레타 비뇨기과



성명하의 자기



### 다들기

음경 재건술이란 선천적인 질병 혹은 후가나 작은 고추를 가진 경우, 잘못된 이물질 주입이나 시술로 고추가 망가진 경우에 행하는 시술을 통칭한다. 예전에는 성기에 양초 성분이나 파라핀이나 비세란을 주입하는 시술이 유행했다(물론 요즘도 이런 불법 시술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술은 염증, 성병, 만성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 싸고 약 해대던 당산 고추는 질력한 고추장이 된다!

### 키우기

꼭대기 부위는 음경 귀두 혹은 두 부위 모두 가능하다. 당산의 고추를 크게 만들어줄 마법의 재료로는 북부 지방, 자기 진짜(겉피가 아래 진짜 피부) 지방 등당산 몸에서 직접 얻을 수 있는 것과 말로덜, 슈어덜, 라이오플란트 등의 인공 피부, 약물이 있다. 시술은 절개를 통해 재료를 고정 이식하는 방법과 주사기를 이용해 재료를 주입하는 방법이 나온다.

### 자기 진짜 지방과 인공 피부 이식

당산 몸에서 진짜피부와 지방층을 떼어내어 성기에 이식하는 수술이다. 초기 확대 효과가 가장 크고, 이식물이 정확하게 고정되기 때문에 수술 후 성기 모양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몸

에서 지방을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흉터가 남을 수 있다. 반면 인공 피부를 이식할 경우 지방을 떼어내는 과정이 생략되어 시술이 비교적 간단하며, 회복도 빠르다. 하지만 고추에 넣을 재료를 외부에서 골라주어야 하니 더 비싸지. 무조건 싸게 돌려서 말고, 제대로 된 인공 피부주입 확인하라.

### 지방 및 약물 주입

주사기를 사용해 고추에 지방을 주입하는 방법이 있다. '우수술 음경 귀두 확대술', '줄기세포 음경 확대술', '내시경적 음경 확대술'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모두 지방을 주사기로 주입하는 시술법으로 원리는 동일하다. 지방 조직은 흡수율이 높아 시간이 지나면 절반 이상이 흡수된다. 흡수가 비대칭으로 나타날 경우 성기도 비대칭으로 뜨거려진다. 또 주입된 지방이 응결 때문에 아래로 쏠리거나 고추가 물렁물렁해지고 위로 바짝 서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성형외과학회

는 지방 주입 확대술을 되도록 지체할 것을 권유한 바 있다. 허일루산 계열의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거나 이물감이 남을 수 있다. 주입할 약물이 식약청이나 FDA에서 확실한 인증을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고추 키우

기에 손이 많이 가네

### 늘이기

색소 도중 파르너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성기 길이는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MAXIM 6월호 시가 봤지? 문제는 굵기(그리고 사근과 하자근) 합을 음경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합을 음경이란 발기한 성기 크기는 정상 범위에 속하나, 평상시엔 성기가 심하게 수축되어 작게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긴장한 자라의 목이 움츠러드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자라 고추'라고도 한다. 표피가 부족하거나 비탄인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성기 뒷부분에 과도하게 발달한 인대(그리고 성기를 안으로 잡아끌면서 나타낸다). 이럴 경우 시술을 통해 고추를 집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단 여자들은 평상시 고추 길이 미미한 별로 신경 쓰지 않으니 알아서 잘 판단할 것.

### 소중한 나의 고추

수술을 결정하기 전 성기 생애에 대한 지나친 환상과 기대를 버리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또 수술 시 위험을 위해 당산의 소중한 타격을 살릴 여야 할 수 있다. 원자정기 얼마나 끝 보지 싫은지 이는 사람이면 신중, 또 신중하라.

## ASK DR. MAXIM

MAXIM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이달의 QnA

지난달 주제는 발기부전이었다. 여기 발기부전과 고추의 크기를 함께 물어 고민한 청의뢰인 독자 한 명이 있다.

**Q** 음경 확대 수술을 할 경우 발기부전 도 함께 치료가 되나요? -psr5040

**A** 고추의 발기부전이 '사이즈'의 문제로 생긴 압박감에서 발생했다면, 네 그중요. 커진 고추와 함께 자신감도 떨어진 커지기 때문에 음경 확대 수술이 발기부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기부전의 원인이 신체의 이상이 있다면 성기 확대 수술을 하더라도 발기력에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확대 수술과 별개로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COMING SOON

### 새 건강 칼럼 예고

어떤 황자는 말했지. 미친말만 하는 세상에서는 미치지 않은 사람이 미친놈 취급을 받는다고.

말해, 말하지는  
나가지 않았!



에라스무스는 말했다. "미친수술 행복해진다." 푸르코도 말했다. "황자, 사인의 기발한 착상은 평가의 완곡한 표현일 뿐이라고. 미쳤다는 일은 당산의 강령이 남들보다 풍부하다는 말일 수도 있다 (뭐, 그냥 마쳤을 수도 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저마다 정신병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혼자 고민하지 마라. MAXIM이 이치대로 강령이 풍부한 당산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이중현 형님을 모셨다. 아래 주소로 정신과적 고민을 보내라. 사소한 것도 좋다. 친절 답변, 황봉 비밀을 보장한다.

E-mail ny@maximkorea.net  
우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병원 4층 편지부  
DR. MAXIM 담당자 입

### 정신과 전문의 이중현 형님은?

- 푸른 신경신과 원장
- 단국대학교 병문 정신과 전문의
- 연세대학교 병원 정신과 전문의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유공훈장 수혜자
- (의료진이 너무 좋아서 닷웃했음)

### 푸른 신경신과

강도: 편지: 중앙동 40-2 연세대학교  
3층 304호  
www.pureraum.com 02-501-0770



해설로 리지  
해고된 보러가기



# RATED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 HALO REACH

### 끝판 대장의 귀환

헤일로가 돌아왔다. 양키 센스가 직렬하는 FPS(1인칭 슈팅) 게임이지만 깊이 있는 스토리와 몰입도 100%의 게임성, 활활 불타오르게 만드는 멀티 플레이까지! XBOX 360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극한의 재미를 선보였다. 전작 《헤일로 3》는 발매 첫 주에 3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면서 비디오 게임 역사상 가장 빠른 판매 속도를 기록했을 정도다. XBOX 360에 《헤일로》가 없다면 PS3과 경쟁 구도를 만드는 건 불가능했을 거다. 이번 작품 《헤일로 리치》는 《헤일로》 시리즈의 10주년 기념작이자 지금까지 헤일로를 만든 번지 스튜디오의 고별 작품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물론 MS의 내부 개발사가 《헤일로 4》를 제작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재미를 고스란히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헤일로》 1~3편이 마스터 치프의 간지 넘치는 활약상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헤일로 리치》는 1편이 시작되기 전의 이야기를 다뤘다. 헤일로 팬이라면 게임 중간마다 언급 되는 마스터 치프, 코타나, 존슨 상사를 비롯한 주요 인물의 이야기가 더욱 반가울 거다. 검증된 게임성은 여전하고, HD와 맞먹는 1180X720 해상도의 화면은 보다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가능케 한다. 유저 입장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는 파이어파이터 모드(사생결단 모드)를 비롯한 다양한 멀티플레이 모드의 추가도 환영할 만하다. 당신이 FPS 게임에 열미를 하지 않는 XBOX 360 유저라면 《헤일로 리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르는 게 답이다. BY 김광현

기종 XBOX 360 제작사 번지 스튜디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인트라링크  
정품 FPS 발매일 9월 14일 가격 57,000원

RATED FILM



# 방가? 방가!

얼굴로 먹고사는 영화 배우 김인권이 단독 주연을 맡았다.

제목이 너무 찜찜? 스님이 진짜 서울로 진출하는 (덜)이야, 서울 가지. 철로 만든 전가발삼에 손을 단련하는 주인공 아이언이 나오는 (아이언 팬) 등 전작에서도 놀라운 적응 솜씨를 뽐낸 육상요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니 그럴 법도 하다. 예상했겠지만 이 영화에는 방시 성을 가진 사람이 나온다. 너무 글로벌한 외모를 가져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는 백수 방태식이 취업을 위해 동남아시아 부탄인 방가로 변신해 취업에 도전하면서 최종우를 코디너가 벌어진다. (해운대)에서의 연기를 뛰어넘어 공극의 짜질참과 몸 개그를 보이는 김인권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는(그리고 우연이 되는) 김정태. 거기에 베트남 여자를 연기한 청초한 신인 배우 신현년의 조합이 기대된다. 특수 분장 일지도 이국적 매력을 발산한 김인권은 촬영 현장인 공장에서 실제 이주 노동자로 오해를 받아 공장 직원들로부터 촬영장 출입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의외로 탄탄하고 신선한 코미디나 추석이 끝난 허무함을 즐겁게 달래줄 오락 영화로 추천한다. **9월 30일 개봉**

RAW FILM

## 진짜 같은 가짜 파운드 푸티지

사실은 영화와만 실제 상황을 촬영한 듯한 느낌을 주는 영상이 파운드 푸티지(Found Footage)다. 뭐야, 이 정도면 당신도 할 수 있지 않나?



### 파리노말 액티비티

영화 내내 귀신 나오는 징크스만 나온다면, 근대 귀신은 안 나오고 스토리가 팔려나가나 물건이 움직이고 불완전한 소리가 나는 장면만 보인다. 등장인물은 한 컷, 상형술사 귀울의 친구 정도. 제작비는 약 100만 원, 박수였던 감독은 이 영화로 70배의 수익을 거둬먹었다. 당신도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봐라. 평생 보고 싶지 않은 부인들의 라신스를 목격한 충격과 사심을 전파하는 일은 부인 일길.

**MAXIM WONDERS** 이 카메라는 카메라까지 갖춰놓고 찍힐 때와 찍는 걸까?



### 알이씨

TV 프로그램 촬영 팀이 소방관의 하루를 취재하다 종이가 나오는 건물에 간다. 영화 배경은 초보박을 제외하면 일 일백번 건물이었다. 바쁜 특수 효과 대신 카메라를 흔들거나 떨어뜨리고 비명을 지르는 원호적-선 방편을 썼다. 영화 속 카메라를 파블로는 실제 촬영감독, 스페인의 실제 TV 코디너와 리포터들 그대로 촬영했다.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건 리포터 안젤라. 그 보인다.

**MAXIM WONDERS** 파블로, 왜 안젤라의 구배제기를 날리지 않았어요?



### 클로버 필드

뉴욕을 승격한 거대한 괴물을 피해 처절하게 도망치는 남녀 무리 중 1명이 들고 다니는 캠코더의 영상이 곧 영화다. 괴물 영화지만 영화 중 반을 지날 때까지 괴물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자유의 여신상의 대리기가 질러 나가는 장면은 시련 하나 볼 만하다. 괴물도 자제나 안 하니까 그렇게 찍을 때 상세하다.

**MAXIM WONDERS** 그 괴물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HIDDEN CARD



## 김정태의 말, 말, 말

〈방가? 방가〉 촬영장 분위기! 웃음바다로 만든 사람은 김정태였다.

**# 카메라 피아를 위해 뿔 뿔나고 뿔자**  
"서울 시대 노래방 주인 300명을 대상으로 취재하려 했으나 시간이 없어 안산 노래방 주인님과 돈독한 관계를 가지며 캐리커를 설정했습니다."

**# 감독이 동남아 배우를 영화계에 진출시켜 보람을 느꼈다고 하자**  
"자희부터 걱정 해주세요, 감독님."

**# 김인권이 기자들에게 "김정태의 후카시마에 속지 말라"고 하자**  
"후카시마는 일본 영화는 자제 해주세요, 아야도 리상."

**# 기자가 "김인권 씨는 본인의 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고 묻자**  
"질문이 좀 위험하지 않아요?"

**# 기자가 김정태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고 묻자**  
"그냥 평범히 만족합니다. 김인권 씨처럼 외모가 너무 좌파도 아니고."

THE FUN PART IS...

## 다시 보는 클로버 필드

그래서 괴물이 죽었다는 거야, 살았다는 거야?!

- » 일부는 배우들이 직접 겪은 듯 촬영한 것이다.
- » 영화 속 인물 제이슨이 나오는 티셔츠에 새긴 'Jason'이라는 문구는 영화 제작자이자 역인 제프 J. 에이브러햄스의 TV 드라마 '엘리멘츠'에 나오는 은근수 이름이다. 인터넷엔 이윤환 회사! 괴물 탄생 비화와 관련 있다는 떠문이 너무 많다.
- » 영화 촬영 기간은 단 34일. LA에선 (Suno), 뉴욕 (Oress)라는 제목으로 촬영했다. 몇몇 극장에 배급할 땐 (Berna)라는 이름이 됐다.
- » 클로버 필드는 영화사가 만든 거야 이름이다.
- » 개봉 첫째 주 많은 극장에서 '엘이 조상'이라는 경고 문구를 붙였다. 아이고, 다 위생
- » 자유의 여신상 모자까지 떨어질 때 "오, 마이 갓"을 계속 외치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프로듀서 브라이언 브록. 영화 예고편과 엔딩 크레딧에 "I saw the f's, she's f' nugg" 라고 말하는 무전기 목소리는 감독 딸 리브스의 것이다. 비웃 절망이 아닌 기쁨
- » 괴물을 다뤄지만 사람은 "괴물은 갓 태어난 신데렐라 임기를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요 새까 자유의 여신상에 찌릿한 고다가 찾아 딱딱해서 화가 났던 거구래

키스 신만 궁금해하지  
말란 말이다  
(그림 키스 신을 찍지  
말란 말이다)



## 그랑프리

내용이니 뭐니 그런 거 기대 안 한다. 그냥 MAXIME에 김태희의 사진이 실린 것만으로 만족한다. 제대한 앙동근이 이 영화 출연을 선택한 이유도 우리와 같지 않겠나? 9월 16일 개봉

### OPEN CARD



#### 김태희와 말, 말, 말

(그랑프리) 촬영장 분위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회사하게 만든 사람은 당연히 그녀겠지.

##### # 키스 신에 대한 질문에

"허준 키스신 촬영한 곳이 휴가할 해수욕장이라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키스신을 찍었다. 그 부분은 좋은 구경하신 거다."  
- 내가 못 봤으니 무효.

##### # 또 다른 키스 신 관련 질문에

"(아이리시스) 키스 신을 확실히 능가할 것이다."  
- 그런 건 불가능하지 않.

##### # 위 답에 부연 설명하며(그만) 알고 싶지 않아!

"이번엔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라 부끄럽기도 했다." - 앙동근, 너 이 자식.

##### # 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자

"동료를 좋아하는 순수함을 표현하려 노력했다."  
- 아! 당신을 순수하게 좋아해줄지도 모른다.

##### # 숄방 연애에 대해 기자가 묻자

"말 등과 마찬가지로 영영이 부분이 명 코도 피도 나서 육체적으로도 힘든 작업이었다."  
- 그자 한 마리 말이 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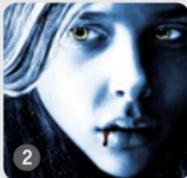
#### 1. 검우강호

〈놈놈〉에서 말도 안 되는 칸자로 말을 타고 총을 갈기던 정우성을 못 잊는 관객에게 좋은 선물이 도착했다. 감독은 오우삼, 상대 배우로는 안지경 이모가 나오는 액션 서사극. 10월 14일 개봉



#### 2. 랫 미인

영화 〈콜로버 필드〉로 관객에게 충격을 준 옛 리브스 감독이 12세 소녀 뱀 피어와 인간 수컷으로 돌아온다. 주연을 맡은 할리우드 신성 (키 예스)의 '히탈 클레이 모레츠는 "전혀 다른 뱀 피어어를 보게 될 거다. 〈트와일라잇〉은 구대만! 당찬 자신감을 보였다. 이리 왜 얼마나 컸는지 어디 한번 인 아브재 11월 개봉 예정



#### 3. 쓰우 3D

왜 안 나오나 했다. 1편에서 살아남은 덕터 고든 등 지금까지 나온 모든 성



존자가 다시 직썬와 살인 게임을 벌인다. 못생긴 게 3D로 또 나오네! 11월 개봉 예정

#### 4. 여덟 개의 감정

여치진구(한영영)를 차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다른 여자(윤주희)를 만나 사랑을 키워나가다 결혼을 막상 앞두고 심드렁해지는 수컷들의 연애 심리를 그린 영화. 배우 김경호의 알몸 열연(?)이 궁금하다면 웹메이저를 참조하라. 9월 30일 개봉

#### 5. 퀴즈왕

장진 감독이 감수료, 한재식, 송영환, 류승룡, 류덕환, 임원희, 장영남, 김병욱, 정재민, 신하균 등 고성 강한 배우를 모조리 묶어 추측 선출 세트를 꾸려 왔다. 133억 원짜리 퀴즈쇼를 둘러싼 비보들의 지는 배를 들은 추측 킷 려타임용 코미디. 9월 16일 개봉



# DJ MAX 포터블 3

가동 FPS 제작사 팬버전 장르 리듬 액션 발매일 10월 14일 가격 미정

GAMES  
BY 김성민

《DJ MAX 포터블 3》가 발매된다. 게임에 버그가 있어도, 프레임 저하가 심각해도, 심지어 시스템이 구려졌다는 평가를 들어도 새우깡에 손이 가듯 지르고 마는 리듬 액션 게임이 바로 《DJ MAX 포터블 3》다. 《DJ MAX 블랙 스퀘어》를 비롯해 이전 작품의 버그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았던 전례 때문에 이번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의구심도 무거워져 있다. 하지만 PSP용 음악과 게임을 동시에 즐기곤 게이머에선 《DJ MAX 포터블》 이외의 대안이 없다. 게다가 이번 작품에서는 록 마니아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피아, 바닐라 유니티의 곡을 수록해 당신의 숨겨진 록 스피리트를 불태우

르게 할 예정이다. 무슨 일인가? 당신이 불앤소리를 진득 늘어놓으면서도 팬티바전이 내놓을 《DJ MAX 포터블 3》 한정판 구매에 목숨을 걸게 될 거라 소리다. 천정 이리나 우리가 자존심 없는 오락이란 소리를 듣는 거대!



신인 게임 포터블

## STAR STARTED

### 스타크래프트 2 게임단의 탄생

살아 있는 머리로 유명한 이윤제가 스타2 팀을 만들었다



전 MOC 게임단 수석 코치였던 이윤제, 현 스타2 리그 최고인 사기사. 김기기가 의기투합해 스타2 프로구단 T3을 만들었다. 일명 T3. 작은 선수단의 움직임을 키울 생각 없이 소수 정예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전 스포츠는 곧 TV가 주권하는 대회와 메모리를 제공하는 업체 GSK이며, 다른 하드웨어 업체 2~3곳과 함께 매달 T3에 1300만 원을 지원한다. 최근 스타2에서 전세가 귀운 프로게이머의 스타2 전황 소식 이 들리는 도중에 스타2 프로팀이 창단했다는 건 이 미하는 바가 크다. 곧 TV와 블리자드가 의구심한 글로벌 스타 리그의 편이 커질수록 스타 2도 전황하는 프로게이머도 늘어날 테고, 3사 시차팀 대기업을 이 주축이 된 프로 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2 팬 입장에서는 스타2만이 이렇게 골라잡지 지켜볼 도 해의 재귀가 라는 놀라운 선택이다.



### 배틀필드 배드 컴퍼니 2: 얼티밋 에디션

배틀필드 배드 컴퍼니 2에  
배틀필드 1943 하나 더!

《배틀필드 배드 컴퍼니 2》는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못지않은 FPS 게임의 명작이다. 싱글 플레이어의 볼륨은 《모던 워 페어》에 비하면 다소 아쉽지만 《배틀필드 배드 컴퍼니 2》의 진짜 재미는 얼티밋 에디션에서 맛볼 수 있다. 특히 FPS 게임을 흥분해 최고 수준의 시운트는 당신 옆에 전란의 포탄이 떨어진 것 같을 착각에 빠지게 할 거다. 《배틀필드 배드 컴퍼니 2》 얼티밋 에디션은 최대 4명의 협력 플레이를 지원하며 발파라이소, 아타카 사막을 비롯한 4개의 추가 맵을 제공한다. 여기에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태평양전쟁을 그린 명작 《배틀필드 1943》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PC로 《배틀필드 배드 컴퍼니 2》를 즐긴 유저라도 콘솔용으로 《배틀필드 배드 컴퍼니 2》 얼티밋 에디션을 지원 이유로도 충분할 거다.

가동 PS3/XBOX 제작사 EA/EA코리아  
장르 FPS 발매일 9월 1일 가격 50,000원대



### 슬라시프 잇

심플한 게 최고다.

모바일 게임계의 거성 컴퓨터사 아이튠즈용 내놓은 게임이다. 출시 일주일 만에 애플 앱 스토어 장르 별 위와 전체 애플리케이션 및 게임 순위 톱 10에 진입 만큼 폭풍 인기를 누렸다. 게임의 구성은 간단하다. 다양한 도형을 똑같은 비율로 자르면 끝이다. 스테이지가 진행될수록 도형의 모양이 복잡해지고 난이도도 올라가지만 그와 동시에 승부 근성도 함께 불타오르는 중독성 만점의 게임이다. 단순한 게임이라고 우습게보고 다운로드했다간 하루 종일 도형을 자르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만날지도 모르니 주의할 것. 정상상의 문제로 국내 앱 스토어 계정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게 아쉬울 따름이다.

가동 iPhone 제작사 컴퓨터사  
장르 모바일 게임 발매일 8월 31일 가격 0.99달러

## STAR IN CASE

## 체포해 주... 주실 거죠?



인생 살기 힘든 건 유지선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자꾸 이렇게 사고치고 다니면 경찰과의 친목 포인트만 적립될 뿐이다. 게다가 이 포인트는 어디 가서 쓰지도 못한다

## 중독 음주 운전

## 주인공 그린데이의 빌리 조 알트름

**사건 개요** 그는 2003년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음주 과속 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경찰서를 방문한 기쁨으로 자신의 노래 '아메리칸 아이디 홀 카일' 가사에 경찰서 주소를 친절히 적어냈다.

## 중독 폭력

## 주인공 크리스 브라운

**사건 개요** 달콤한 R&B 선율로 여성을 살상 녹인 흑인이 정작 애인이자 팝 스타인 리앤나에게 강간범을 넣었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이유의 대부분은 말싸움을 당해낼 수 없어서다. 크리스 브라운은 자신이 리앤나의 말에 완전히 빌렸던 사실을 주먹으로 증명했고, 그 대가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런 병신 같은 녀석

## 중독 흥기 문란

## 주인공 스캅의 쿠사나기 초오시

**사건 개요** 2009년 4월 만취한 그는 공원에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 과정을 지루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일출만 개 뭐가 나쁘냐"고 외쳤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정말 풀어서 묻는 건가? 이 세상에 가장 끔찍한 일은 동해가 광인 수컷의 위용을 보는 거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을 포함해서 말이다.

## COMING SOON

## 이적 4집 《사랑》

그간의 아쉬움을 이젠 '발라드'

사랑의 감성을 들었나 놓는 음악 작가 이적이 3년 5개월 만에 4집 《사랑》을 내놓는다. 타이틀 곡 '발라드'는 헤이박 연애편을 잊지 못해 안타

까워하는 마음을 담았다. 3집 타이틀 곡 '다행이다'의 연정선상에 있는 이 노래는 상징에서 직설한 것 같은 진실한 기분에 성실한 감성으로 빛을 발로디가 잘 어울려서 이적 특유의 감수성이 잘 드러난다. 10월엔 곡 들어가 할만큼을 하나만 고르다면 그건 바로 이적의 4집이다. 그동안의 음악 활동과 결혼 생활을 통해 현충 성숙해진 그의 음악을 마음껏 즐겨보자.

2NE1 1집  
TO ANYONE

그녀들이 진정한 허리케인 비너스



2NE1이 정규 1집 《To Anyone》을 들고 우리 곁을 찾아왔다. 컴백과 동시에 모든 음원 차트 1위를 정령한 그녀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요계의 허리케인 비너스. 그동안 숨을 고르면서 준비한 정규 음반답게 그녀들의 정체성이 잘 드러난다. 자신들의 음악적 배이스인 힙합을 기본으로 일렉트로닉 장르를 적절

히 차용해 2NE1만의 색깔을 드러냄과 동시에 대중의 입맛에도 맞는 음악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타이틀 곡 '빅수쳐'를 비롯해 수록곡 모두가 흥련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전체의 짜임새도 좋은 편이다. 여기에 여타의 아이돌처럼 예쁘거나 색시한 모습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의 개성에 맞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점도 2NE1만이 가진 매력이다. 젊은, 그러나 가볍지 않은 음악을 원한다면 2NE1의 이번 음반이 마음에 들 거다.

## 재주소년 4집

## 유년에게

소년은 청년이 되었다



재주소년이 4집 《유년에게》를 발표했다. 군 시절을 포함한 4년여의 시간은 소년을 청년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음악을 시작한 '소년 시절'의 모습에 되돌아볼 정도로 커버인 재주소년의 모습에 상상력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그들의 노래에는 세상이 밀어버린 소년의 딱딱한 감정이 아닌, 세상에 남아 있는 순수함을 노래하는 소년의 감수성이 묻어났다. 깊은 밤 라디오를 들을 때의 아련하듯 당당한 믿음속에 커져이 숨은 순수함을 이루어내 주는 재주소년 표 음악이 갖는 힘 역시 간재하다. 어느새 찾아온 가을. 그 안에 숨은 외로움에 어찌할 줄 모르는 당신에게 잘 어울리는 음반이다.

## 트랜스픽션 3.5집

## NEVER SAY GOODBYE

트랜스픽션의 쉬어가는 음반



2010년 남야공 월드컵을 달고 응원가 '승리의 함성' 《The Shouts of Reds》의 주인공 트랜스픽션이 신곡을 선보였다. 그들의 짝꿍 미니 음반 발표에 기대어볼 정도로 커버인 재주소년의 모습에 상상력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그들의 노래에는 세상이 밀어버린 소년의 딱딱한 감정이 아닌, 세상에 남아 있는 순수함을 노래하는 소년의 감수성이 묻어났다. 깊은 밤 라디오를 들을 때의 아련하듯 당당한 믿음속에 커져이 숨은 순수함을 이루어내 주는 재주소년 표 음악이 갖는 힘 역시 간재하다. 어느새 찾아온 가을. 그 안에 숨은 외로움에 어찌할 줄 모르는 당신에게 잘 어울리는 음반이다.

# 킬러소설

영계 킬러, 마음 킬러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진짜 사람을 죽이는  
킬러 이야기를 하고 있다! BY 김희정



## 킬러들의 표적이 된 킬러 김한수 <설계자들> / 문학동네

이 소설에서 설계자는 돈을 받고 누군가의 죽음을 의뢰받아 그들을 죽일 방법을 설계하는 사람들이다. 미심쩍은 여자가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설계자가 죽일 방법을 '설계' 하면 그들에게 고용된 킬러는 그 순서대로 완벽하게 처리한다. 아, 엄밀히 말해서 '완벽하'는 아니다. 킬러도 사람인지라 간혹 그들의 지시를 어기기도 하나, 그리고 설계를 변경한 이들은 바로 다음 표적이 된다. 킬러들이 저도 언제 설계자의 명단에 오를지 알 수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법칙인 셈. 주인공 래생도 설계를 마음대로 변경해 설계자의 표적이 된 킬러 중 한 명이다. 래생을 중심으로 죽고 죽이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느로라기보다는 오히려 재빨리형이 강하다. 파는 튀지만 피피린 내 나는 소설은 아니라는 말이다. 잔작 <개비>에서 보여준 작가의 언어 유희적 상상력과 스타일의 서늘함, 그리고 액션의 박진감까지 여기에 일상의 에피소드에서 묻어나는 소소한 재미까지 있다. 소설 출간하기 전 인터넷에 연재할 당시 수많은 페이툰을 양산했던 흥민력은 바로 여기서 기인하고 있다.

소설을 읽다 보면 일간지 사회 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술한 죽음이 설계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그는 교묘한 척에 빠져들게 된다. 훗날 집회가 한창일 때 지검도 붙었던 '배우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자신도 모르게 던지고 잊을지도. 언제나 핵심은 방화선을 당기는 놈보다 방화쇠를 당기는 놈 뒤에 있는 배이다.



## 오피스 룩이 잘 어울리는 킬러 오피스 룩이 <IQ84> / 문학동네

히루키 소설은 언제나 흥미롭지만 <IQ84>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더 유난스럽다. 출간길 지하철단 '플러브드 <IQ84>를 들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 <IQ84>가 7권짜리 시리즈는 베스트 셀러라는 예기도 과장만은 아닌 듯싶다. 소설의 주제 의식이나 작가의 철학을 굳이 논하지 않고서라도 이 책을 읽어 들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

지런 일단 재미이기 때문이다. 감정적 정점이 잘 어울리는 시크한 여주 킬러 아이오미와 작가 자랑생 덴고가 천재적인 문학성을 가진 미묘의 열일급 살 수녀 후카에를 만나서 겪는 기묘한 이야기 재능은 있지만 소설가는 아니고 있는 주제는 전혀 가볍지 않은 괴물 같은 작품이다. 수많은 남자를 죽이는 매력적인 여주 킬러가 등장하지만 이 <IQ84>역시 피피린내 가 진동하는 소설은 아니다. 읽기 전에 단란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 한 번 집으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도저히 다른 일에 손에 잡히지 않을 테니까



## 후준근한 이종마 킬러 강지영 <심어사는 킬러> / 씨앗21

우리로 모르게 마음속에 새겨진 몇 가지 고정관념 중에 직업과 관련한 항목도 있다. 그중 '킬러'라는 항목을 부당하다고 이리저리 주저해 '이종마'는 없는데 당시의 이종마를 몰랐던 존재인지 몰라도, 지금 우린 킬러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종마입니다. 그렇다고 이종마 킬러는 아니다. 오랫동안 정육점을 하며 다자친 갈 다루는 솜씨에 근육과 뼈에 관한 지식까지 오지려 이재학 바운 그 어떤 킬러보다 전문적이다. 작가는 한 재산을 잃고 3년 만에 킬러가 되는 심어사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스타일 중심에 세워준 이종마의 에피소드를 하나씩 풀어낸다. 결국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평범하지만 내용과 구성에서 매우 '독특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전해진다. 그것이 이 책을 담았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요소다.

MORE BOOKS

### 귀향길에 읽기 좋은 즐거움 없는 책

하늘은 높고 바람은 선선하니 말은 설피고 독서는 물 건너간 계절이다. 책장을 넘기는 순간 머릿속이 이득 해지는 단상을 위해 앞에서 뒤에서 심지어 중간부터 읽기도 무방한 책을 준비했다.

#### 이우주 <감성사전> / 동문출

<국어사전>의 체제도 강도도 없는 풀이하는 차이라 다른 이우주 용어의 예제를 과감히 보여준다.

#### 영희박사

영희박사: 자신이 진짜 박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하어나 하는 단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 주인공 작중인물 중에서 가장 속음이 끝났던 존재. 대박 인사 대학생을 사냥한다는 명목으로 재수생을 배 출하는 시판재도

#### 프랭크 윌런 <비밀남자> / 크리에이티브

작기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나눠주고 인생 최고의 비밀을 지켜 약속으로 받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결혼과 임신 낙태, 간혹, 사내 연애 등 남녀 사이에 생기는 모든 비밀이 담겨 있으나, 남의 사생활이러한 환경에는 당사에게 아주 적합한 다. 영로 세상에는 나와 같은 비밀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영 사람을 응호한 눈빛으로 쳐다보게 된다.

#### 홍치보기

'솔직히 내 심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 중 더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잔 날, 날 성추행했거든.' '내가 자른 일 때문에 그는 그런 동간 감옥에 있었다. 머리 다 남았다.' '내가 다이트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보스를 침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 비트로 M. 고기 <자기 기억> / 일선시적출판사

고향에 가면서까지 차세술을 배워 필요는 없다. 당도 많은 자기 개발서 중 정말 당산에게 필요한 자기 방어법이다. 읽기 쉬운 그림으로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다. 백날 배워도 귀한 마음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방어법 대신 순 무사한 방법만 알려준다. 부에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신체적 약점이 실려 있으니 이 일과야, 꼬마은 책인가

#### 홍치보기

세 명이 달릴 때 책을 들고고 있다. 제일 먼저 달려서 나서는 홍치보기. 책을 들고 있을 때 숨쉬기 어려운 차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여성을 달릴 때 머리칼을 만져주면 차분해진다. 반대 방향으로 달린 역과도

MAXIM은 잡지의 미래다 #2

## 종이 잡지의 **변신**: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읽자



1. 책에서는 볼 수 없던 동영상을 감상하고 싶다면?
  2. 발행 터지는 선물 보따리를 받고 싶다면?
  3. 에디터가 소장한 미공개 사진을 보고 싶다면?
  4. 기사에 나오는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하고 싶다면?
  5. 재미없는 기사를 쓴 에디터에게 욕을 하고 싶다면?
-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을 꺼내 QR 코드에 갖다 대라!



1. 아이폰 앱스토어나 T-스토어에서 '쿠루쿠루' 앱(App)을 무료로 다운로드한다.



3. 책에 나온 QR 코드를 카메라로 비추면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코드를 인식한다.



2. 앱을 실행한 후 'QR 코드 스캔'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가 구동된다.



4. QR 코드 속의 MAXIM을 만날 수 있다.

2003년 그녀는 《타미네이터 3: 라이즈 오브 더 머신》에서 호트라징 없는 여사관 헤어스타일과 광택 소재 유니폼 속 섹시한 몸매, 그리고 근육맨 주지사 아널드 슈워제네거를 죽이는 멋진 액션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녀가 연기한 T-X는 덕후들의 메가톤급 섹스 심볼로 우뚝 섰다(그리고 우뚝 세웠다). 도도한 미소가 아름다운 이 완벽한 금발 미녀가 그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물어보자.

**아직도 당신을 T-X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

(타미네이터)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영화다.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영화를 보고 관객 반응을 보노라는 팬들이 있다. 물론 사람들은 다른 많은 작품으로 나를 기억하기도 한다. 특히 드라마 《엘 워드》가 인기로 끝내서 그 작품으로 날 기억하고 좋아하는 팬이 많이 생겼다.

**아프리카 유혈 사태를 다룬 최근작 《더러퍼》 작업은 어땠나?**

진짜 끔찍한, 눈물겨운 영화다. 내용은 상당히 잔혹하다. 더 잔인한 건 대부분의 영화 내용이 실화라는 거다. 배우들은 3000시간의 폭로만으로도 연기했다. 흥미로운 작업이었다. 내본 없이 촬영에 임했으니까. 그리고 《타미네이터 2》에서 나온 예드워드 필름도 나온다.

**스스로 대사를 만들어내며 연기하는 것이 《타미네이터 3》 라이즈 오브 더 머신》 속 T-X를 연기한 것보다 더 어려웠나?**

더 어렵다고보다 다르고 하는 게 맞겠다. 《더러퍼》는 촬영을 위해 한 달 정도 미리 배경 지식을 공부할 데 비해 《타미네이터 3》는 육체적 도전이 가까웠다. 근육을 가꾸는 정도 늘리고 체형도 액션에 맞게 바꿨다.

**《타미네이터 3》에서 만난 아널드 슈워제네거와는 친해졌나?**

그와 오랜 시간을 함께했지만 그는 내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 같은 이름으로 날 부를 적이 한 번도 없다.

**《레전드 오브 어서미스트 맥시머스》(The Legend of Awesomest Maximus)라는 영화에서 주연 히테사(Hotessa)를 연기했다. 맥시머스라니, 우리 집자에 대한 한정인가?**

인타깝게도 아니다. 영화 《007을 패러디한 코미디 영화다. 그거 말고도 《SWAT: Fire Fight》라는 액션 영화를 찍고 있다. 《타미네이터 2》에서 T-X로 나온 로버트 패트릭의 여장 버전인 구로 나옴서 그와 함께 인질극에 밀려온다. 타미네이터 팬을 위한 멋진 영화가 될 거다. T-X와 T-1000이 함께 나오니까 물론 타미네이터 같은 능력은 없지만.

**이 화보가 MAXIM과 두 번째 작업이다. 소감을 말해달라.**

"MAXIM 독자들은 내 화보를 좋아할 거다" 정도?





그런 영화  
해고된 보기

# LOCO FOR LOKEN

로켄에 미치다 BY STEPHANIE RADVAN PHOTOGRAPHS BY STEVE SHAW

우린 어릴 때부터 싸움 잘하는 로봇에 미쳐 있었다. 이왕이면 섹시한 로봇이 좋았다. MAXIMO 그런 당신을 위해 추석 선물로 (터미네이터 3)의 T-X 크리스타나 로켄을 보낸다. 아슬아슬한 포장지에 싸인 풍만한 황금빛 한가위 선물. 맘에 드나?

# 달콤한 초콜릿을 만나다

타이틀 곡 '여떡해'로 가요계를 노크한 초콜릿을 전격 인터뷰했다. 그녀들의 달콤한 초콜릿 향에 당신이 홀라당 넘어가도 MAXIM은 책임지지 않는다.

BY 김상현 WORDS BY 김민혜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 MAKE-UP 메건 STYLING 류재진, 김민정, 이아름



초콜릿  
디너, 가!



## 헤나

개인기에 능하다던데?

최화정 (못보다 남자)의 준표 엠메이베정 생애모사는 자신 있다.

클럽 좋아하나?

물론. 최근엔 연습 때문에 한참을 못 갔다. 조금만 한번 출동해야 하는데.

이상형은?

최다니엘처럼 시끄러운 남자. 날 겁이먹을 기세의 장성남도 좋다.

남자를 유혹하는 당신만의 기술이 있나?

마음을 담은 미소.

당신을 초콜릿에 비유한다면?

민트 초콜릿. 난 비밀하고 상큼하니까.

CHOCOLATE

MILK

CHOCOLATE



### 수이

최근 당신의 가장 큰 고민은?  
캐키가 안 크다.

나쁜 남자를 만나본 적 있나?  
없다. 날 만나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뭇된 남자 따위 안 만나겠다.

이상형은?  
어리고 말 잘 듣는 남자

남자를 유혹하는 당신만의 기술이 있나?  
관심 없는 척하며 슬쩍 관심을 흘린다. 주  
변을 훑다갔다하면세

당신을 초콜릿에 비유한다면?  
화이트 초콜릿. 내 피부는 맑고 투명하

### 맹

헐이라. 흠. 아...  
중국어로 '맹'은 '뽕'을 의미하는 맹맹한  
이름이다.

우리나라에서 데뷔한 계기?  
평소에 한국 드라마 음악에 관심이 많았  
다. 우연히 오디션을 봤는데 밀크 초콜릿  
멤버가 됐다.

이상형은?  
평행산기의 유노윤호 같은 남자.

남자를 유혹하는 당신만의 기술이 있?  
선물 공세

당신을 초콜릿에 비유한다면?  
밀크 초콜릿. 난 달콤하고 사르르 녹는 부  
드러운 여자다.

## 셰릴

언니들이 막무라고 괴롭히지 않나?  
전해 정말 잘해준다니까

한국 남자는 어떤가?  
맛있고 착해서 좋다.

이상형은?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의 이승기 같은 남자

남자를 유혹하는 당신만의 기술이 있나?  
"사랑해줘" 라고 말한다.

당신을 초콜릿에 비유한다면?

진한 다크 초콜릿. 봄 언니보다 내가 더 까맣다.

## 봄

본명이 임팩트 있다. 달봉이도 아닌 진봉  
이라니!

어른들은 '봄이 김신영', 또래들은 '봄봉주스'  
라고 불렀다. 남자친구가 생기면 꼭 "봄애"  
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좋겠다.

당신만의 매력은?

인기가 강진수를 빼달은 잘생긴 얼굴!

이상형은?

F100모델의 이홍기 같은 남자

남자를 유혹하는 당신만의 기술?

아이들이나 남자 하나 고치는 건 눈빛 하  
나면 충분하다.

당신을 초콜릿에 비유한다면?

카카오 초콜릿. 내 피부 톤을 보면 알겠지?

다들

오빠



## 그녀들과의 달콤한 인터뷰

그룹명이 달콤해서 죽을 지경이다.

초콜릿은 형태는 변하지만 특유의 맛은 변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초콜릿을 먹으면 생기가 돌고 기분이 좋아지잖아. 미치 우 리처럼.

자칫하면 '오렌지 카라멜' 픽TURE로 오해받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더 깜찍하다(웃음). 오렌지 카라멜 멤버들은 키가 큰 편인데, 모든 남자가 키 큰 여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카는 물론 매력도 멤버끼리 서로 다르다. 우리가 조인한 오렌지 카라멜의 인기를 뛰어넘을 거다.

아이들이라면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는지?

봄은 리더. 해나는 메인 보컬. 수이는 리드 보컬. 셰릴과 멩은 그룹 내 '외국인' 역할(셰릴은 미국인 멩은 중국인이다)을 맡고 있다(웃음).

글로벌 아이돌인가! 의사소통이 쉽지 않겠다.

우리예겐 보다랭귀지가 있다. 지금은 많이 친해져서 눈빛만 보면 다 안다. 꼭 어..영어를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방금 데뷔한 따끈한 아이들이지만 리더 역할로 생각하는 그룹이 있다면?

결스데이, 카라, 그리고 소녀시대. 소녀시대를 라이벌로 하긴 좀 이른가(웃음).

그럼 당신들은 어떤 가수가 되고 싶나?

원더걸스 물론 이효리나 보아처럼 미친 존재감을 뽐내는 여자 가수가 될 수 있으면 최고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도 예능감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다.

봄과 해나가 있어 문제없다. 봄은 입담이 끝내주고, 해나는 다양한 개인기로 무장했다. 예능 프로그램에 적응하는 데는 문제없으니 일단 출연만 시켜달라.

솔직히 말해봐라. 멤버 중 누가 가장 인기가 많나?

셰릴과 수이! 셰릴은 시크하기 그지없고, 수이는 인형보다 훨씬 예쁘다. 딱 보면 알잖아!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 간다던데 초콜릿이 인기를 끌지 못하면 '어떡해'?

듣는 순간 슬퍼지는 질문이다. 이런 기분 처음이다. 다시 도전할 거다. 이번에 실패했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직 젊다.

당신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면 어디로 가면 되나?

이태원이나 한남동 주변을 어슬렁거리라. 사실 이태원역 4번 출구로 나와 42번을 타면 우리 연습실로 직행할 수 있다. 정확한 주소는 비밀이다(웃음).

MAXIM 독자들에게 한마디할 기회를 주겠다.

MAXIM만큼만 우리를 사랑해달라! 어렵지 않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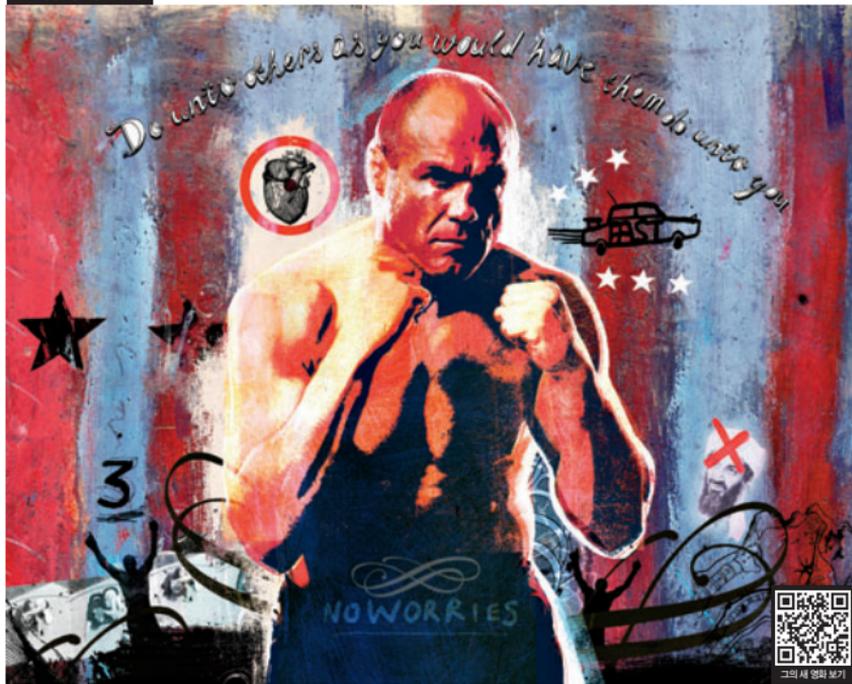


ILLUSTRATION BY TIM MARRS

## 랜디 커투어

UFC 해비급 챔피언이자 영화 <익스펜더블>의 액션 영웅인 랜디 커투어는 죽음의 링 따윈 겁내지 않는다.

**자, 어떻게 죽고 싶나?**

4시간 동안 세상을 하다 심정마비로 복상사하고 싶다.

**죽기 전에 고백할 게 있나?**

비밀은 모두 안고 갈 거다.

**한국과 자국 중 어디로 갈 것 같나?**

천국. 나는 황금률에 따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번에 티프가이들이 페로 나오는 영화 <익스펜더블>에서 폭파 전문가를 연기했다. 죽기 전에 남과 공유할 만한 당신만의 전문 기술이 있나?**

어린 시절 적은 시간을 일시켜 여름 내내 발을 선 적이 있다. 염통 탄피, 탁구공, 양초, 그리고 성장개비 끝부분만 가지고 사고를 쳤다. 윈치 가르쳐주진 않았다.

**<익스펜더블>에 함께 출연한 배우 중 당신을 때려눕힐 수 있는 자가 있나?**  
아무도 날 때려눕힐 수 없다. 내 생각엔.

**음, 그럼 누가 가장 약한지 정돈 말할 수 있겠지? 샬베스터 스텔론? 스티브 오스틴?**

사실 내가 가장 약하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난 진짜 곰 인형 같은 남자다.

**UFC 해비급과 라이트급 모두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따냈다. 당신이 못하는 게 도대체 뭐가?**

결혼 생활 유지 (랜디 커투어는 최근까지 총 3번의 이혼 경력을 가지고 있다)

**죽기 전 마지막 경기는 누구와 치르**

**고 싶나?**

오사마 빈 라덴. 공항에 갈 때마다 항상 주위를 둘러본다. 그 자식을 죽여 버리고 싶다.

**다이어트로 몸매를 유지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죽기 전 마지막 식사까지 아몬드와 녹색 풀 따위를 택하진 않았지?**

당연하다. 쿼커와 아이스크림을 진득 먹은 거다.

**광판과 범죄의 도시 라스베이거스에 산다. 약질 취미나 버릇이 있나?**  
과속. 최근 광속으로 차를 몰다 잠복 경찰에게 막 걸린 적이 있다.

**당신이 옥타곤에서 맞붙은 선수 중 가장 강력한 적수는 척 리들과 티토 오르티즈였다. 다음 생애 태어난다면**

**둘 중 누구를 밟아버리고 싶나?**

척 리들. 그는 좀 태평스러운 편이다. 나처럼.

**살아생전에 했던 가장 와일드한 행동은 무엇인가?**

스리섬.

**자고 싶은 여자가 있나?**

막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

**당신의 권을 보여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 것 같나?**

그 사람이 나랑 결혼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

난 랜디일니 내 걱정 말게.



그의 새 영좌 보기

# 의 의 의

FILL YOUR INNER EMPTINESS  
WITH MATERIAL GOODS

## RIDE ON Two Wheels

두 바퀴 위에 태올 여자를 상상하니 가장 먼저 떠오른 그녀. 레이싱 모델 최유정과 함께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MAXIMO이 영종도를 달렸다. 그녀는 주변 도로를 뺑뺑 달리던 수많은 자동차를 멈춰 세우고, 힐리 바이크족의 경적을 미친 듯이 울리는 기적을 행했다. 콧구멍이 벌렁거릴 정도로 조금 우울했던 그날의 감동, 함께 느껴볼 텐가?

BY 이경미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이도우 MAKE-UP 고영은 MODEL 최유정  
ASSISTANT 김동수



그레이 컬러 햇  
OGK KABUTO  
블랙 컬러 가죽 재킷  
Gale

블랙 컬러 쇼츠  
에디터 소창  
레오파드 패턴의 블랙 워터 슈즈  
TANKUS

## VT1300CS

남자라면 한 번쯤 꿈꾸는 거칠고 강한 스타일의 아메리칸 크루저 스타일! VT1300CS는 남성적인 스타일과 클래식한 우아함으로 눈길을 끈다. 짙어서 더욱 스포티한 팬디와 검은색 프레이밍 그리고 앞으로 길게 뻗은 포크가 지름신을 연방 불러들인다. 강렬한 배기음만큼이나 터프한 엔진이 시원하게 도로 위를 달릴 때 그녀가 당신 뒤에 가슴을 밀착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지름신이 아니라 지름신 할아버지가 왜 도 안 열리는 당신의 지갑이 억은 조개마냥 짝 벌어지지 않나!

문의 [www.hondakorea.co.kr](http://www.hondakorea.co.kr) 1577-2700

가격 17,900,000원(VAT 포함)

### ■ 제원

엔진	수냉식 52° V-twin 엔진
배기량(cc)	1,312
최고속력(km/h)	54/4,250
최대토크(kg · m/rpm)	10.5/2,750
변속방식	상시저압식 5단 리턴
차량중량(kg)	310



## 어울리는 헬멧 고르기

머리는 역세리로 가지고 다니니?

WORDS BY 윌리엄 스쿠터(William Scott) 수석 에디터 김민준

시뻘건 바람에 심취한 나머지 헬멧 쓰는 걸 망각한 인간이, 당신 머리가 역세리가 아니라면 안전을 위해 헬멧을 꼭 쓰라. 이것은 도로교통법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드물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시 당신의 질량 긴 얼굴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아스팔트는 이따리 타올보다 거칠고 아프다.

### — 헬멧 종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얼굴 전체를 감싸는 형태는 풀 페이스(Full-Face)라고 하며, 클래식한 스타일의 개방형 헬멧은 오픈 페이스(Open-Face). 얼굴을 감싸주지만 전면과 턱 부분은 개방되어 있는 중간형은 제트 또는 하프 페이스(Half-Face)라고 한다. 시스템 헬멧도 있다. 이것은 풀 페이스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전면 실드가 개방되고, 추가로 턱 부위 외장 썰까지 개방된다.

### — 스타일별 매치

안전과 멋을, 그리고 스타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헬멧을 골라서 쓰는 것이다. 자신이 주로 장거리를 다니며 높은 배기량의 빅 바이크를 탄다면 방풍성이 뛰어나고 고속 안정성이 좋은 풀 페이스 헬멧을 추천한다. 반면 이따한 클래식 스쿠터나 재해가량의 모터사이클은 오픈 페이스나 제트 헬멧을 쓰는 것이 적당하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가장 튼튼하고 안정적인 헬멧은 풀 페이스이다. 단지 스타일을 생각하다 보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될 뿐이다.

브라운 컬러 가죽 재킷

VOV

데님 스킨

에디터 스타일

리온헤드 매트의 언더웨어

GUESS UNDERWEAR

리온헤드 매트의 블랙 컬러 슈즈

TANKUS

블랙 컬러 무츠  
HARLEY-DAVIDSON  
경량 가죽 반장갑  
MOTO FIELD  
블랙 컬러 가죽 재킷  
Gala  
리오카드 패턴의 언더웨어  
GUESS UNDERWEAR



■ 제원

엔진	수냉 4사이클 유니콤 V형 47cc
배기량(cc)	1,237
최고속력(ps/rpm)	173/10,000
최대토크(kg·m/rpm)	13.2/8,750
변속방식	상시 맞물림 6단 리턴(수동)
차량중량(kg)	265

VFR1200F

혼다의 VFR1200F는 이겨지지 않을 따져보기 전에 디자인에서 먼저 호한다. 부드러운 굴곡의 보디와 카울, 거기에 우아하게 떨어지는 매끄러운 라인이 이어져 타는 이를 우물하게 만든다. 기능 역시 빠지지 않는다. 스포츠와 투어링이 통합된 성능을 제공한다. 스포츠보다 편안하고 투어링보다 빠르다는 말씀. 시동을 걸면 V-4 엔진이 강하고 유쾌한 배기음을 내며 빠르게 응답한다. 전자 제어 방식의 스로틀 바이 와이어로 조작과 반응성이 좋다. 슬림하며 클러치는 코너링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든다. 하지만 워니워니 해도 그녀의 예쁜 엉덩이를 위한 편안한 뒷좌석이 최고의 장점이다.

문의 [www.hondakorea.co.kr](http://www.hondakorea.co.kr) 1577-2700

가격 22,900,000원(VAT 포함)

블랙 컬러의 부인 섹시니스

DOX EYEWEAR

브라운 컬러 가죽 재킷

TANKUS

블랙 컬러 언더웨어

GUESS UNDERWEAR

블랙 컬러이 컬러 배낭

VOV

블랙 컬러 사이클이 부츠

Gaia



블랙&화이트 컬러 헬멧

AGV

블랙 컬러 가죽 베스트

TANKUS

브라운 컬러의 벨리 패치 언더웨어

GUESS UNDERWEAR

골드 컬러 반금

JAME&BELL

MUST HAVE ITEM:

## HELMET&가슴

헬멧이 헤어스타일을 망친다고?

그러다 인생 망치네, 자네.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경찰에 적발 되면 보통 2만 원의 범칙금을 낸다. 실마 2만 원과 그 질서긴 일교과 뛰어난 두뇌를 갖바꿀 생각은 아니겠지?

-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동승자 역시 헬멧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해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 뒤에 탔다가 사망한 사람에게 계도 5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마이크로 인도를 수행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다. 단속에 걸리면 벌금과 벌점을 받는다. 또한 이불차도 음주 단속의 대상이 된다. 50cc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예디터 역시 음주 단속을 받은 적이 있다. 일교을 에 공을 조금이라도 적었다면 바퀴 달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왕민정 출처하기



# Apple iPhone 4

당신이 기다리던 완벽한 날이 왔다. 아님이라면 기꺼이 KT의  
2년 노예가 되어도 후회하지 않을 거다. by 김상민

Wi-Fi 환경에선 전편의 카메라로 아이폰까지 화상 통화도 가능하다. 컷을 긴 불화를 줄여려면 그에게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강해하라.

LED 플래시가 달린 500만 화소 카메라로 720p HD급 동영상도 찍을 수 있다.

LG에서 만든 레티나 디스플레이 3세대보다 4배 뛰어난 960x480 해상도를 자랑한다.

얇고 가벼워진 보다 멀티터스킹 OK 향상된 액정레티나 디스플레이 장착 영상 통화와 비디오 촬영 가능 한마디로 PERFECT!



이제 당신의 아이폰 3GS는 다른 이에게 넘겨버리고 4G로 갈아탈 때가 됐다. 머뭇거리 필요가 없다. 아이폰 4G는 아이폰드와 동일한 A4 CPU를 탑재해 최신 스마트폰에 비해 조금 아쉬웠던 멀티태스킹이 한결 쾌적해졌다. 쓸데없는 배젤을 줄여 3세대와 비교하면 24%나 더 슬림해졌고, 앞뒤면 가장자리의 메탈 라인은 세련됨을 더해준다. 3세대보다 4배 많은 화소, 1인치당 326픽셀을 자랑하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슈퍼 아몰레드 못지않은 해상도를 자랑한다. 여기에 초당 30프레임, 720p HD급 동영상 촬영을 지원한다. 앱스토어에서 MOVE 앱(편집 툴)을 지른다면 소형 비디오카메라 따윈 쳐다보고 싶지 않을 거다. 아이폰 4G는 iOS 4.1 업데이트와 함께 HDR 기능을 제공한다.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노출이 적거나 많으면 화면이 하얗게 날아가는 경우가 자주 있었을 거다. HDR 기능은 이런 부분을 보정해주고, 화면의 디테일을 들려준다. HDR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아이폰 4G가 연속으로 3장의 사진을 촬영 후 이를 합쳐 최적화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다. 아이폰 3GS 사용자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 기능은 아이폰 4G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아직 더 고민할 게 남았나?

# MUST HAVE ITEMS

BY 김성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어차피 여자친구만 생물은 당신이 용 쓴다고 생각는게 아니다. 거기에 투자할 돈을 아껴 집 안팎에서 여친 대신 당신 귀를 어루만져줄 제품을 지르자. "MUSIC IS MY LIFE!"를 외치며 음악을 즐기다 보면 곧 찾아올 혼자만의 거울도 죽을 만큼 외롭진 않을 거다.



## BRITZ / BR-TUWEZ

디자인은 10점 만점에 10점이다. 와인 잔을 떠올리게 하는 매끈한 디자인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물론 당신이 A/V 마니아라서 최고의 음질을 뿜어내는 스피커가 아니면 쓰레기 취급한다면 이 제품은 패스하라. 하지만 당신이 음악 자체를 즐기며 스피커는 음악을 듣는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브리츠의 BR-TUWEZ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스피커의 출력이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고음에서 소리의 갈라짐이나 노이즈 감성이 거의 없다. 굳 더더기 선 연결 없이 USB 케이블로 바로 연결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생각보다 큰 장점. 여기에 특수 가공한 트라이버 유닛이 자기장을 완벽하게 차단하니 컴퓨터 옆에 두어도 스피커가 망가질 염려는 없다.

문의 [www.britz.co.kr](http://www.britz.co.kr) 031-908-1091

가격 20,000원대



## THONET&VANDER / KURBIS

쿼비스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당신이 소리를 즐기는 일에서만큼은 빈부의 차이를 느낄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녀석"이다. 그만큼 10만 원대의 가격의 스피커치고는 양적으로 집적으로 만족스러운 소리를 들려준다. 밸런스가 잘 잡혔고 고음도 시원하게 뿜는다. 그렇다고 쿼비스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스피커를 몇 먹일 만한 소리를 들려주진 않지만 황금 귀가 아닌 이상 음악을 맛깔나게 즐기면 손색이 없다. 쿼비스(독일어로 호박이란 뜻)란 이름답게 디자인이 투박하고 디지털 입력 단자도 없지만 입문용 2채널 스피커로는 이만한 녀석도 없다. 하위 라인업인 베르타그 제품에서 거슬렸던 노이즈를 모두 잡아냈던 점도 칭찬할 만하다.

문의 [www.kdway.co.kr](http://www.kdway.co.kr) 070-8815-9695

가격 115,000원



## FOHENZ / FS-S5

스피커는 사고 싶는데 놓을 공간이 없고, 집에서 굴러다니는 스피커를 사용하자니 노이즈가 심해서 음악을 듣기가 싫은가? 그렇다면 포헨스에서 내놓은 배(Bar) 형태의 FS-S5를 고려해보라. 당신 모니터의 잉여 공간에 딱 맞는 사이드인데다가 가격 대비 소리도 들어줄 만 한 수준이다(공짜 PC 스피커 따윈 쓰레기통에 처박아도 문제없던 소리). 마이크와 헤드폰 입력 단자는 기본이고, 모니터 바로 밑에 스피커를 합체하기에 한결 수월하게 조작할 수 있다. 19인치 모니터의 가로 길이와 딱 맞아떨어지지만 20인치가 넘는 모니터와도 잘 어울린다. 자투리 공간 활용 능력이 발군이란 것만으로도 충분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스피커다.

문의 [www.foehnz.co.kr](http://www.foehnz.co.kr) 031-908-1098

가격 20,000원대



## PHILIPS / SBD 7500

집에서 음악을 감상할 일이 거의 없다면 굳이 덩치 큰 스피커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아이팟이나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면 전용 스피커라고 쓰고 전용 독이라고 읽는다는 하나 장만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전용 스피커 중 저음이 강한 녀석을 찾았다면 필립스에서 내놓은 SBD 7500은 주목하자. 다이내믹 베이스 부스트 덕분에 한결 강하고 또렷한 저음이 인상적인 제품이다. 가격도 브랜드 제품에 비해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전체적인 마감도 깔끔하다. 전용 앱터플과 연결해 사용할 수 있고, AA 배터리를 넣으면 휴대도 가능하다. 아이팟이나 아이폰을 꽂아두면 음악을 들으며 배터리 충전도 되니 일석이조다.

문의 [www.philips.co.kr](http://www.philips.co.kr) 080-600-6600

가격 100,000원대

## LOGITECH / Z506

스피커로 꼭 음악만 들으란 법은 없다. 로지텍의 Z506 스피커는 당신 집에서 놓고 싶은 콘솔 게임기(XBOX 360, Wii, PS3 등)에 최고의 사운드를 감차해줄 거다. 사운드 카드, 음악 부속용 케이블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으니 PC, 음향 기기, 게임기 어느 것에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5.1채널 스피커다운 사라운드 음향이 매력적이며, 2채널 음원 소스도 5.1 채널 사운드처럼 즐길 수 있다. 특히 (갓 오브 워 워)처럼 타격음이 호쾌한 액션 게임에 Z506의 사운드가 합쳐지면 당신의 게임 몰입도는 200% 이상 상승할 거다. 다소 과장된 느낌이 들 정도로 입체적인 사운드를 원한다면 이 녀석이 답이다.

문의 [www.logitech.com](http://www.logitech.com) 02-761-1207

가격 149,000원





## SENNHEISER / HD 650

젠하이저의 레퍼런스 헤드폰이다. 젠하이저 특유의 저음이 잘 살아 있다. HD 650을 착용한 상태에서 음악을 들으면 발바닥 밑까지 저음이 깔리는 기분이 들 정도다. 그래서 보컬이 저음에 묻히는 경향이 다소 있지만 HD 650은 그럴 가까이 감수할 만큼 매력적인 음색을 들려준다. 요구하는 음압이 높지 않아서 MP3P, 아이팟을 비롯한 휴대용 기기와 공해도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헤드와 패드 부분의 착용감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아웃도어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가격 대비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무겁고, 진한 저음을 좋아한다면 질려도 후회는 없을 거다. 소리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왜 HD 650을 레퍼런스 헤드폰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다.

문의 [www.koneay.com](http://www.koneay.com) 02-533-3162

가격 690,000원

## SONY / MDR-PQ2

울 성반기에 헤드폰을 가장 많이 판매한 업체는 아닐까? 다음 아닌 소니다. 그중에서도 MDR 헤드폰은 모니터링 시리즈(MDR V6)와 더불어 음악을 즐겨 듣는 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사용해 봤을 만큼 인기가 높은 제품이다. 새롭게 출시된 MDR-PQ2는 아웃도어용으로 적합하다. 내구성이 강한 플라스틱 코어에 헤드폰의 행거 자체도 부드럽고 매끄러워서 장시간 착용해도 귀에 부담이 덜하다. 화려한 색상은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그렇다고 소니 MDR 시리즈 특유의 참진 저음이 사라진 건 아니다. 당신의 머리가 크다면 MDR-PQ2를 장착한 순간 <스타워즈>의 제다이 요다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어차피 솔로인 당신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문의 [www.sony.co.kr](http://www.sony.co.kr) 1588-0911

가격 69,000원



## CRESYN CS-HP500

크레스인의 히트작 CS-HP500의 레더 버전이다. 한때 헤드폰 마니아 사이에서 가격 대비 최고의 헤드폰으로 소문이 날 만큼 완성도가 뛰어난 녀석이다. 저렴한 가격대 제품인 주제에 저음도 풍부하고, 보컬의 톡소리도 명료하게 들린다.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뚜렷한 한계를 보이지만 가격을 감안하면 이해해줄 수 있다. 아웃도어용으로 특화된 제품답게 헤드폰 유닛을 돌려 과감히 접을 수 있어 휴대성은 발군이다. 헤드폰 입문용으로 지르기에 적절하다.

문의 [www.cresyn.com](http://www.cresyn.com)  
02-2041-2700  
가격 20,000원대



## AUDIO-TECHNICA RE 70

오디오 테크니카(이하 오테)의 음색은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어떤 음원을 들어도 오테만의 착색된 소리로 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테 헤드폰은 되도록 소리를 들이려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사실 입문용 헤드폰으로 시가엔 가격도 만만치 않다. RE 70은 30년 전에 판매된 ATH-2 모델의 디자인을 베이스로 한 제품으로 가죽 재질의 헤드밴드가 인상적이다. 인위적인(그러나 매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색은 여전히지만 기존 제품에 비해 한결 선명한 소리를 들려준다. 오테 헤드폰과 자신의 궁합이 잘 맞다면 이번 가을 지름 품목에 추가해도 좋을 거다.

문의 [www.kdsound.co.kr](http://www.kdsound.co.kr)  
02-2234-2233  
가격 미정

## SKULLCANDY LOWLIDER

디자인이 제품을 선택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스킵 캔디의 로라이더도 마찬가지다. 헤드폰으로 만족스러운 음질을 듣고 싶다면 이 제품은 패스해라. 가격 대비 음질이 개떡아래며 투덜거릴 확률이 100%다. 하지만 헤드폰이 그저 음악만 잘 들리고, 헤드폰을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라고 생각한다면 로라이더는 만족스러울 거다. 주변 사람의 관심을 끄는 디자인에, 잘 꼬이지 않는 재료로 선을 만들어 활동성도 높였으니 말이다. 당신이 헤드폰 안에 별도의 이어폰을 꽂고 다닐지라도 친면일품적인 디자인의 제품을 사용하기 싶다면 스킵 캔디 제품이 좋은 대안이 될 거다.

문의 [www.kdsound.co.kr](http://www.kdsound.co.kr)  
02-2234-2233

가격 55,000원



## CRESYN C512H

크레스인 C512는 가격 대비 성능 비 하나로 먹고신다. 무게가 120g으로 제품 자체가 가볍고, 접을 수 있어 휴대성도 좋다. 저음도 들을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내구성과 착용감은 별로다. 특히 헤드 상단에 받쳐주는 패드가 없어서 머리가 큰 사람은 놀리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젠장). 편하게 막 굴릴 헤드폰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녀석이니 지나친 욕심은 부리지 말자. 착한 가격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문의 [www.cresyn.com](http://www.cresyn.com)  
02-2041-2700  
가격 20,000원대



## TUNEBUG / VISE

아웃도어용 스피커가 필요한가? 튜버그의 바이브(바이브레이터가 아니다)를 하나 챙겨라. 그리고 주변 사물에 이음을 올려줘라. 종이, 플라스틱 상자, 책상, 냉장고 종류는 상관없다. 바이브를 올려두고 음악을 틀면 이 녀석들이 시원한 소리를 들려주는 스피커로 변신할 거다. 물론 당신의 MP3P, 스마트폰, 노트북이 블루투스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요즘 제품 중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빠진 경우가 더 드물니 걱정할 필요 없다. 밖에서 자전거를 비롯한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길 때 당신 몸에서 분비되는 물의 양이 엄청나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할 수 없었다면 바이브는 축복이 되어줄 거다. 당신의 스포츠 헬멧에 바이브를 장착하는 순간 멋진 스피커 하나를 얻는 셈이니까!

문의 [www.tunebug.co.kr](http://www.tunebug.co.kr) 031-718-2464

가격 85,000원



# OUT



## XENICS / VIBE HOLIC

바이브 홀릭은 본체에 붙은 스피커를 분리해서 다른 사물(?)에 붙여야 시원한 소리를 들려준다. 스피커 뒷면의 접착력 강한 스티커는 재질에 관계없이 잘 붙는 편이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도 간편하다. 스피커를 붙이고 나면 바이브 홀릭이 온몸을 떨면서 들려주는 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실제로 바이브 홀릭의 소리는 조잡한 2채널 스피커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 박력이 넘친다. 집에 굴러다니는 빈 종이상자와의 궁합은 그중에서도 베스트. 사용법 자체도 어렵지 않고 스피커 부분을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휴대용 스피커로 하나 장만해두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거다. 하지만 내장 배터리의 부재, 기기 자체의 연결선이 조잡한 건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다.

문의 [www.xenics.co.kr](http://www.xenics.co.kr) 02-784-4120

가격 36,000원



## LOGITECH / Z205

휴대용 스피커가 가장 필요한 경우는 노트북을 외부에서 사용할 때일지도 모른다. 노트북 스피커의 음질과 출력은 기대할 바가 못되고,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기에는 화이트 노이즈가 가솔린다. 노트북과 휴대용 스피커를 별도의 책으로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니 귀차니즘이 발동한다. 그럴 땐 노트북의 모니터 상단에 고정할 수 있는 로지텍의 Z205가 답이다. 한 뼘 정도 되는 너비에, 150g 정도로 작고 가벼운 녀석이지만 소리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다. 작은 덩치 안에 숨어 있는 2개의 고성능 드라이버와 내장 앰프가 들려주는 시원스러운 소리는 당신이 Z205를 균일 없이 지르게 만들 거다. USB로 연결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던 점도 당신의 지름을 부추기엔 충분하다. 센스 있는 휴대용 케이스는 덩이다. 문의 [www.logitech.com](http://www.logitech.com) 02-761-1207 가격 49,000원



## FOHENS / MY FREE

스피커라고 MP3P 기능이 없단 편견을 버려라. 포헨즈의 마이 프리는 당신 집에 임의스럽게 굴러다니는 SD 카드를 삽입하면 쓸 만한 MP3P로 변신한다. FM 라디오도 지원하니 야외에서 분위기 잡을 때 사용할 소품으로도 제격이다. 라디오 채널 저장 기능, EQ 프리셋 기능 등 사용자를 배려하는 소소한 기능이 빠진 건 아쉽지만 휴대용 스피커로 출시된 제품이니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다. 당신의 이어폰을 위한 3.5파이 단자도 시원스레 돌아왔으니 휴대용 스피커 겸 서브 MP3P처럼 사용하기에 나쁘지 않을 거다.

문의 [www.lohenz.co.kr](http://www.lohenz.co.kr) 02-707-3410

가격 39,000원

# 남자의 로망 나이프

이제 당신도 쓸 만한 나이프 하나쯤 장만해둘 때가 됐다. 상황에 맞는 고급스러운 나이프 한 자루는 당신의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줄 테니 말이다.

BY 김성현 PHOTOGRAPH BY ARC STUDIO  
문의 www.knifestory.com 02-733-5655

## OPINEL CLASSIC 6VRI

오피넬 사의 인이 100년 동안 사용해온 전통 있는 칼이다. 지금까지 녹스는 길 막기 위해 재질을 탄소강에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바꾸고,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2종의 안전장치를 추가한 것 이외에는 바뀐 것이 없을 정도. 오피넬의 클래식 모델은 특색이 눈에 띄는 부분은 없지만 어디 한 군데 흠 잡을 데 없는 무난한 제품이다.  
가격 25,000원

## VIALIS CHATEAU LAGUIOLE

언제까지 플라스티 재질의 싸구려 와인 오프너를 사용할 텐가 와인을 오픈할 때 팔을 번쩍 드는 오프너를 보면 가슴이 무너진다. 이제 당신도 권잡은 오프너를 하나 영입할 때가 됐다. VIALIS의 손에서 만들어진 사토 라기올은 세계 소믈리에 대회의 공식 오프너다. 전 세계 소믈리에 중 상당수가 와인 오프너로 이 녀석을 애용한다. 물론 당신이 사토 라기올로 와인을 오픈한다고 해서 소믈리에처럼 와인에 밝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게 될 흥분할 거다.  
가격 180,000원

## HANDMADE KNIFE MT 2750 DAMASCUS

수제 나이프다. 휴대하려면 별도의 케이스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칼날 길이도 짧고 덩치도 작으니 불편할 정도는 아니다. 일상에서 태백 상자를 오픈할 때를 비롯해 칼을 긴히 사용해야 할 때(농구)를 해코지 하러 소린 아내(레가) 종종 있으니 하나쯤 질러두면 나쁘지 않을 거다. 모양이나 종류가 다양하니 마음에 드는 녀석으로 골라주면, 가격 120,000원

## OPINEL EFFILE

오피넬 클래식식의 변형 모델. 외국에서는 낚시용, 야외의 식탁용 나이프로 주로 사용된다. 클래식 모델보다 손잡이가 날렵해서 휴대하기가 훨씬 편하다. 칼날 길이가 12센티미터 정도로 다소 긴 편이라 어떤 작업에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손잡이에 사용된 무반가나무의 단단한 재질 덕분에 그림 길도 좋다. 아웃도어 활동이 잦은 사람에게 안성맞춤인 나이프.  
가격 50,000원

## COUPERIER COURSOLLE LE COURSOLLE

"외관이 투박해대 육하지 마중"로 꾸루쑹은 낫식 손잡이에 새겨진 모양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수작업만 고집하는 장인의 정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칼날의 상표도 불에 달궈 도장을 짚듯이 직접 작업하기 때문에 다소 거친 감이 있지만 그래서 더욱 남자다운 느낌이 들 뿐 배어낸다. 칼 코르크 오프너, 병뚜껑조림 오프너가 포함되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다.  
가격 48,000원

# 신학기 필수품

친구에게 당신이 발학 동안 가져왔만 한 게 아닌, 사실  
을 증명해줄 제품을 알려주며, 여유가 단단한 이들 중 하  
나 정도는 꺼없이 영어 포스를 획석하는 건 어떨까?

BY 888번 PHOTOGRAPHY BY ARC STUDIO  
COOPERATIONS codes combine basic + (02-3446-7725) CHEAP  
MONDAY by LIFUL, LIFUL(www.wherhouse.co.kr)



1



2



3



4

## 1. SAMSUNG / WB 2000

프리미엄 디자인 타이틀을 단 녀석답게 성능 하나는 끝내준다. 스펙을 눈여겨볼 것 외에는 뭐든 풀 HD 해상도 촬영은 기본이지만, 풀 HD 해상도 촬영이 가능한 동영상 촬영 도중 셔터를 눌러 순간순간의 장면을 1000개까지 캡처할 수 있는 버퍼로 저장할 수 있다. 약 7초 동안 1000장을 담아내는 초고속 촬영 덕분에 광고에서 볼 법한 장면들이 흘러가는 모습의 촬영도 가능하다. 한 지붕 속 공간 상성 캠코더의 인터벌 촬영 기능도 추가해서 구름이 움직이는 장면을 비롯해서 사물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습도 연출할 수 있다. 풀 HD 해상도 촬영이 가능한 HD 해상도 촬영이 가능한 이 정도면 어설피게 DSLR을 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

문의 [www.samsung.com/sec](http://www.samsung.com/sec) 1588-3366 가격 429,000원

## 2. VILIV / HDS CLEAR

전작 이렇게 출시했어야 했다. HD5 클리어는 이름 그대로 기존의 모과알 같은 액정을 걷어내고 햇빛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난반사 액정으로 갈아 끼웠다. HD5가 처음 출시됐을 때 성능이 아닌 액정 문제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집음 때문에 제품의 완성도가 낮아 보이었던 게 사실이다. 이제 액정 문제가 해결됐으니 FULL HD PMP로서 위엄을 보여 줄 일만 남았다. 동영상 재생 기능이 백인 제품답게 FULL HD 1080p 영상도 인코딩 없이 바로 재생할 수 있다(어쩌면 당시 컴퓨터보다 나을지도 모르겠고) 동영상 재생 시간도 3시간에 육박하며, 슬림 모드 상태라면 45시간까지 대기할 수 있다. 이런 번갈아 두산동아 프리뷰 영한 환영사 전 집하는 덩이. 제아무리 스마트폰인 휴대이런도 동영상 재생 능력만 큼은 HD5 클리어를 따라올 수 없다. 그레, 내가 뭐 막어라.

문의 [www.myviliv.com](http://www.myviliv.com) 1588-0097 가격 399,000원

## 3. SHARP / NP1 DIC

전자사전으로 유명한 사파가 43인치 HD LCD 액정을 탑재해 내놓은 학습기다. 난데없이 왜 학습기라고? 10종의 전자사전 뿐 아니라 영어 및 기타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학습용 프로그램이 전작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동영상 역시 MKV부터 H264까지의 코덱을 모두 지원해 인터넷 강의도 별다른 인코딩 작업 없이 들을 수 있다. 신학기엔 공부와 취미 준비로 활활 태울 생각이라면 전자사전과 인터넷 강의용 PMP를 하나로 통할 수 있는 사파 NP1 DIC가 딱이다.

문의 [www.sharp-korea.co.kr](http://www.sharp-korea.co.kr) 1588-8333 가격 268,000원 (2GB)

## 4. APPLE / IPAD

아이패드다.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겠지? 우리-내에 출시되진 않았지만 웬일 초 기종 구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다. 블루투스 키보드 하나만 추가하면 7개방에 특화된 노트북을 칭하는 일은 직업을 고한다. 지하철을 오가며 끄적거린 화면으로 MAVIM을 비롯해 다양한 앱을 즐길 수 있고, 정자리에 들기 전 아이패드스로 음악을 들으며 전자책을 읽는 호사도 누릴 수 있다. 왜 사야 하는지 모르겠고? 당시의 아이폰 화면이 아직까지 커졌다고 생각해서라. 사파도 아이패드를 가지고 싶은 이유를 금세 알 수 있을 거다.

문의 [store.apple.com/korea](http://store.apple.com/korea) 080-330-8877 가격 미정

팔 부분이 벗어낸 디자인이 특색 있는 데님 셔츠 134,000원 CHEAP MONDAY by LIFUL  
블랙&그레이 컬러의 스트라이프 니트 68,000원 codes combine basic+  
짙은 그레이 컬러에 독특한 프린팅이 돋보이는 신 94,000원 CHEAP MONDAY by LIFUL

## > 싱글 몰트 위스키

맥아(몰트)만으로 만든 술을 하나(싱글) 증류소에서 만든 증류한 위스키를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한다. 증류한 술을 나무통에서 숙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독특한 맛과 향이 생긴다. 나무통으로 세리, 와인, 버번 위스키 등 다른 술을 숙성시킨 통을 재활용하거나 새 통을 쓰는 경우도 있다. 싱글 몰트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주로 생산되다가 그 맥에 빠진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다른 유럽 국가와 미국, 호주, 일본 등 생산국이 다양해지고 있다. 위스키 특유의 향과 맛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싱글 몰트가 적합하다. 그러나 돈 좀 써서 좋은 거 다양하게 마시면서 살자.

### 1 싱글몰트 12년산

부드러운 위스키를 선호하는 아시아인의 취향에 맞춰 미국산 버번 오크 통과 유럽산 세리 오크 통에서 각각 숙성한 위스키를 섞어 만들어 부드럽고 기품이 있어 특징이다. 다양한 과일 향과 견과류, 생강, 초콜릿 맛이 느껴진다.

### 2 맥캘란 18년산

부드러운 미숫가루 색을 띠는 싱글 몰트 위스키로, 시트러스와 오렌지 맛과 함께 생강, 바닐라, 계피 향이 코를 스치며 입 안에서는 스모카한 훈제 맛이 감돈다. 정교하고 은은함의 밸런스가 뛰어난 것이 특징.

### 3 글렌리벳 18년산

눈을 사로잡는 우아한 엷은 금색이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준다. 사탕 향의 향이 연상되면서 초콜릿과 바닐라, 오렌지 및 참나무의 향이 조화를 이룬다. 섬세한 마무리가 인상적이다.

# 싱글 몰트 위스키

보리야, 너를 사랑해. BY 이영미 PHOTOGRAPHS BY ARC STUDIO



1

2

3



4

5

6

7

### 4 싱글몰트 18년산

달린 과일과 알린 견과류의 향이 자라면 무뎠던 풀과 원두콩, 이끼가 연상되는 향이 이어져 풍부한 후각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첫맛은 달콤하지만 잔과 나면 담백하고 다소 건조한 맛이 어지고 미지런한 기품진 노트의 여운이 남는다.

### 5 글렌리벳 15년산

특 쓰는 강렬한 향이 있는데, 감귤 향이 특히 강한 편이다. 입안에 감도는 목 안의 알갱이와 계피 스파이시한 후추 맛이 독특한 조화를 이루어 다 음 잔을 기대하게 만든다. 드라이한 나무의 맛과 향이 입안에 남는다.

### 6 맥캘란 1700 프레지던트 에디션

이 제품은 유럽, 아시아 시장을 겨냥하여 출시한 싱글 몰트 위스키로, 보통 700ml인 용량을 500ml로 줄여 가격을 낮춘 착한 녀석이다. 맥캘란 특유의 풍부한 과일향과 바닐라향에 견과류, 은은 생강 맛이 부드럽게 퍼진다.

### 7 라프로이그 18년산

아일랜드 자생의 위스키는 스모카한 목탄 향, 목을 칼칼하게 만드는 강렬한 향이 특징이다. 아일랜드 바닷가 해수욕장의 영향으로 약간 짙고 감칠맛이 나며 여운이 긴 것이 특징이다. 개성 강한 싱글 몰트를 찾는다면 이 녀석을 추천한다.



# COFFEE MACHINE

캡슐 커피와 에스프레소 머신만 있으면 당신도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우주 라이크 섹싱 투 드링크?" BY 김태영



## 셀시스

필립스 세코에서 출시한 모델 중 최고급이다. 프리미엄 모델답게 사용자 취향에 따른 맞춤형 커피 메뉴 설정이 가능하다(우려 6가지).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면 풍부한 황금 빛깔 크레마를 얻을 터, 셀시스는 특허를 받은 세코 추출 시스템을 탑재해 크레마의 양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게다가 당신 손가락이 훑시라도 닿을까 봐 최고급 터치스크린을 장착했다. 셀시스 라인을 가질 수만 있다면 8가지 종류의 커피와 우유 메뉴를 터치 한 번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호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문의 [www.philips.co.kr](http://www.philips.co.kr) 02-709-1200  
가격 420만~470만 원대



## 시티즈 앤 밀크

캡슐 커피 시장에서 단연 톱보이는 기업은 네스프레소다. 네스프레소는 자갑을 저절로 열게끔 만드는 자사의 캡슐 커피 디자인만큼이나 커피머신도 저음 욕구를 차들어 오르게끔 만들었다. 그만큼 잘 빠진 디자인의 시티즈 앤 밀크는 기능도 우수하다. 친화력적인 절전 기능도 그럴싸하지만 우유를 아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에어로치노는 입이 딱 벌어진다. 카푸치노, 카페라떼를 따듯한 우유 거품과 아이스용 차가운 우유 거품, 우유 데우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문의 [www.nespresso.com](http://www.nespresso.com) 080-734-1111  
가격 36만 9천 원



## 엑스몰

이렇게 귀여운 커피머신 봤나. 한 팔에 쏙 들어올 것 같은 통글통글한 디자인이 당신을 자극시킨다. 엑스몰은 기존의 에스프레소 머신과는 다른 유선형 디자인을 채택해 이미 여러 번 상도 탄 제품이다. 이렇듯 몸체는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당신의 집 공간을 절약해주고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대기 시 소비 전력을 최소화했다. 여자 친구도 아내도 자주 안고 싶어지더라니, 매일 통장을 스텔치 다니는 월급을 걱정해주는 고요한 녀석이었구나. 문의 [www.philips.com](http://www.philips.com) 02-709-1200  
가격 120만 원

캡슐 커피란 에스프레소 커피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압력 분변의 맛과 향을 그대로 보존해 작은 캡슐에 담아 친구 형태로 포장한 커피를 말한다. 인스턴트 트레커처럼 간편하지만 맛은 바리스타 커피 수준.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기에 좋다. 역시 2014는 달라.

커피에 노출된 정자는 일반 정자보다 더 빠르고 한자 계 배열이다. 하지만 정자를 액자처럼 만들고 살던 양생체 손상은 각오해야 한다. 당신이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실수록 위험성은 커피인 수치보다 무려 1번 배의 커피 인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커피엔 오래전부터 인간과 동물의 지구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티베트에서는 고지대에서 일하는 말과 노새의 적당 농도를 높이기 위해 다량의 커피인을 투여했다. 사무실생 바빠버튼은 커피머신은 노예처럼 일하는 사장의 예시이다.

## LOVE RECIPE

### 아이스 마카아토 롱

- when** 나쁜 오후 시간  
**who** 당신의 취미 처음 방문한 그녀에게  
**good** 설탕 있는 레시모로 트레커면 이미지 구축 완료  
**bad** 게이저링 보일지도.



#### RECIPE

롱고는 에스프레소에 약간의 꿀을 넣어 쓴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길고 쓴은 전에 얼음 4~5개를 넣고 동결실온에서 롱고를 넣는다. 그 위에 우유 거품 3~4스푼 얹고 코코아가루를 뿌리자. 술을 입질한다. 입질은 내.

### 에스프레소 마카아토

- when** 휴식이 필요할 때  
**who** 당신의 집에 두 번째로 방문한 그녀에게  
**good** 다정하고 세련된 도시 남자가라는 걸 강하게 어필  
**bad** 그녀는 당신이 게이밍을 강하게 확신



#### RECIPE

에스프레소 한 잔을 준비한다. 스타인리스 컵에 신선한 우유를 20% 정도 담아서 스팀을 작동해 두드린 거품을 만들어 에스프레소 위에 끼얹자. 압력에 맡겨 3초는 거품의 부드러움에 그녀의 강제가 풀린다.

### 체스트넛 커피

- when** 심신을 안정시키야 할 때  
**who** 당신의 집에 세 번째로 방문한 그녀에게  
**good** 그녀에게 당신은 이미 열 배로 더 무뎠지 않은 남자  
**bad** 이미 컵 몇 조각이 키스하다 코너 인으로 불러들인다. 행동이다.



#### RECIPE

밤 수면을 뜨거운 우유와 설탕 뒤 에스프레소 잔에 담고 그 위에 에스프레소를 바로 추출한다. 내용물을 잘 섞은 뒤 준비한 우유 거품을 올려라 완성이다.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당신의 몫이다. 건투를 빌다.

STUFF WHEEL

Bentley Continental  
**Supersports**  
Convertible

로망이란 바로 이런 거다. BY 유승민



**T**리는 항상 벤틀리를 꿈꾼다. 벤틀리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중 가장 비싼 브랜드는 아니지만 2,30대 나이에 마이바흐나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닐 게 아니라면 분명 최고의 드라이빙은 벤틀리가 되어야 마땅(?)하다. 현실적 문제는 제쳐두고 서라도 벤틀리를 꿈꾸는 청춘들의 선망의 시선이 겹치고 쌓이면서 벤틀리의 상징적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는 듯하다. 요즘 3억 원이 넘는 슈퍼카를 가질 수 있는 소수 부유층의 선택지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벤틀리를 향한 남자들의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강남 거리에서 운전하다 보면 2~3년 전에 비해 벤틀리를 만나는 빈도가 급상승했다. 비슷한 가격대의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에 비해 벤틀리가 우리나라 남성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뭘까?

짙어질 듯한 광음, 다른 차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컬러와 외관을 지닌 페라리나 람보르기니가 서울의 복잡한 도로 위에서 서 있는 모습은 아직까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다. 차니치게 구경거리가 되어 가끔 굽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경우도 많은 게 사실이나, 그에 비하면 튀지 않는 듯하면서도 조용하게 이목을 사로잡는 벤틀리는 다소 보수적인 한국 남성들의 정서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 자동차가 주인의 인격을 상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의 품격을 상징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자동차 하나로 품격과 함께 주인의 세련된 감각까지 상징하기에 롤스로이스나 마이바흐 쪽은 너무 의전차량 같은 딱딱한 인상을 준다. 페라리와 람보르기니나 롤스로이스와 마이바흐 사이에서 절묘하게 양쪽의 감성을 충족시키는 데 성공한 벤틀리는 슈퍼카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입맛에 맞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런 벤틀리가 지난 8월 25일 또 한 번 공국의 드라이빙을 한국 시장에 선보였다. 가장 최고의 컨버터블이라는 수식어에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게 만

드는 이 머신은 2010년 3월 뉴욕 모터쇼의 메인 요리였던 벤틀의 컨티넨탈 컨버터블 슈퍼스포츠다. 이 름도 긴 이 녀석은 컨버터블 형태를 하고 있어도 벤틀리의 패밀리 룩이 보여주는 키리시미를 잃지 않는다. 오히려 무게감이 없으니 더 유중해 보이기도 하지만 인테리아에서 탄소섬유와 알카리태 소재를 사용해 무게를 상당히 줄였다.

스포츠카 하면 이른바 '오픈카'를 상상하는 사람이 많지만 무게가 열리는 구조는 고속 주행에 그리 적합한 형태는 아니다. 공기저항을 얻어만큼 줄일 수 있는지가 무척이나 중요한 슈퍼카의 보디라인을 설계하는 데 있어 컨버터블은 차체를 감싸는 공기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게 만드는 요소기 때문이다. 그런 조건 속에서 벤틀의 컨티넨탈 슈퍼스포츠 컨버터블은 현존하는 다른 컨버터블 기종이 감히 쫓아올 수 없는 압도적인 스피드를 보여준다. 정치 상태에서 100km/h에 도달하는 시간 4.1초, 최고 속도 323km/h, 전성기 시절 박찬호가 뿌리는 직구 최고 구속의 두 배가 넘는 속도다. KTX가 테스트 과정에서 보여준 최고 속도가 309km/h라니, 고속철과 자동차가 가장 가깝게 나란히 달릴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추풍령-김천 구간에서 이 머신이 KTX를 추월하는 퍼포먼스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엔진	W12트윈터보 엔진
배기량	5,998cc
변속기	자동6단
연료	가솔린
구동방식	AWD
최대출력	630마력/6,000rpm
최대토크	81.6kg·m
연비	6.0km/ℓ
공차중량	2395kg









IMAGE Dreamstime.com

# DO it MYSELF?

“ 월급 모으기 겁갑니까?  
당장이라도 저축한 돈을 빼서 '주식' 이라는 하우스로  
달려가 승부사의 본능을 깨우고 싶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안 알릴테니 그 전에 내 말부터 듣고 가라.

BY 김요제 (증권투자스투디자로 주식은용담장)

”

**월급** 을 모아서 목돈 만든다는 게 평범한 직장인들에겐 쉬운 일이 아니다. 방해의 주범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매달 필요한 돈을 월급으로 충당하는 것 자체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다. 필수 경비를 충당하는 것도 빠듯한 마당에 저축할 돈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힘든데, 아끼고 아껴 저축을 늘린다 해도 최근 은행들이 제공하는 금리를 보면 참 답이 안 나온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 라는 말은 이제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금리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의미로 저축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결론이 나온다. 대부분의 젊은 직장인이 최근 들어 저축보다는 펀드 등의 주식 투자로 눈을 돌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 RISK ■■■

문제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주식 투자라는 수단이 의도한 바와 달리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주식 투자의 문제점은 바로 태생적으로 주식이 위험 자산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위험 자신은 예금, 적금으로 대표되는 안전 자산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특성이 있다. 주식을 했다기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는 캐싱 원금을 꺼리는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가 시간을 반납하고 주식을 연구하는 데 심취하거나, 직장 생활 중에 컴퓨터 단말기나 스마트폰으로 직접 주문을 내기며 주식 투자를 빠져드는 건 어쩌면 당시 애견지도 모르고, 어떻게 설 새 없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피 같은 총지분을 꺼리고 나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아무 말 할 수가 없다. 직장 생활로 바쁘게도 틈틈이 상사 눈치 보며, 업무 시간을 포기하며, 여가 생활도 포기하고 주식 투자를 병행했다는 데 한 마디 못한 결과가 난다. 원금 손실에 대한 충격으로 본인의 업무에 대한 의욕마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제 하루 동안에 주신으로 잃은 돈 150만 원과 오는 하루 내기 직장에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15만 원 사이의 괴리를 느끼는 순간, 일이 손에 잡히나? 이럴 때 해 게 되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바로 직장에 사표를 내고 방 안이 어둡혀 주식 거래를 끊고 삼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이제 정신을 먹여 살리던 인성적인 수입은 사라졌다.

## SPECIALIST ■■■

직장 생활과 병행하며 직접투자하기보다, 자신 관리는 속 편하게 전문가에게 맡겨라. 수수료가 좀 아까울지도 모르지만 직접투자에 굴복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서 본인의 업무에 좀 더 충실해서 사회적 성공을 앞당기고 궁극적으로 연금을 높일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투자 수익률 면에서도 좀 더 도박의 길을 걷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통하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직장 생활로 바쁜 사이에 혼자 주식을 분석하고 매매하는 일반인과 검증된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정보를 활용해서 매일 주식과 기업안 연구하며 수익률 극대화에 매진하는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 누가 수익률이 높을까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다.

또한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정신적·시간적 여유를 보다 생산적이고 건전한 여가 활동에 할애해서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주치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본인의 생활에 충실하는 것, 그 수익률 면에서 나쁜 시점에 사나 나온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자칫 누락된 전문가 내면 투자 상품에 자신의 돈을 맡길 경우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간접투자를 하더라도 어디에 내 돈을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라날에 상세히 설명했으니 MAXIM 9월호를 참조하라.

## BIGGER & STRONGER ■■■

전문가로 신이 아닌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도저히 그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내 돈을 꼭 내가 직접 투자해야겠다고? 정 그렇다면 되도록 대형 우량주에 장기기에 걸쳐 투자할 것을 권한다. 일반 직장인이 직접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대형 우량주 장기 투자다. 대형 우량주의 경우 정보가 대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많은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가 다루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가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정보력과 분석력에서 열위에 놓여 있는 개인투자자가 투자하기에 안전하다. 또 다른 이유는 예상하지 못한 기업 고유의 위험이 적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갑자기 그 회사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유로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 CHANC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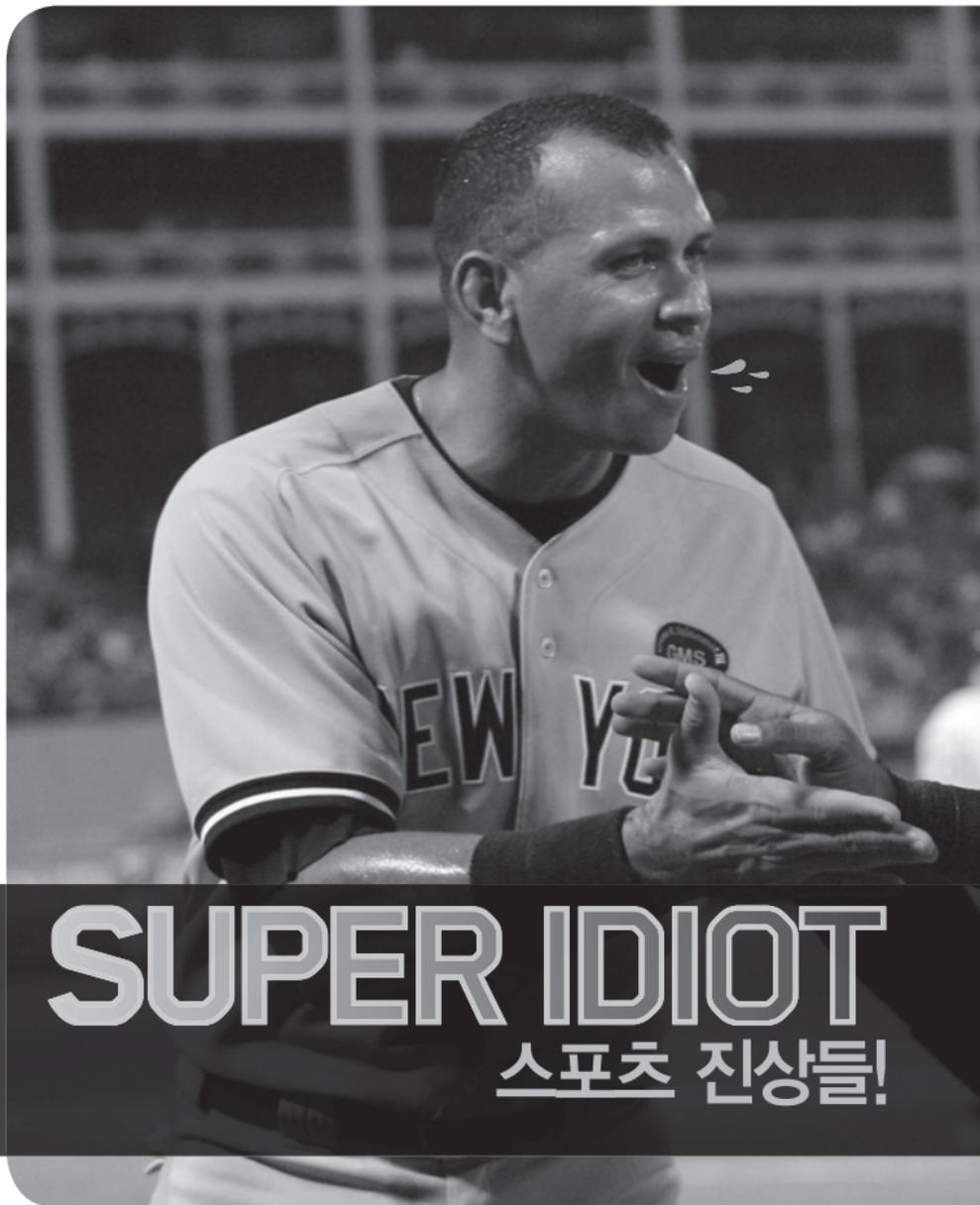
대형 우량주를 산다고 수익이 보장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다. 대형 우량주의 장점은 아무리 손실이 나더라도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 우위가 없다는 가치, 손해가 안 난다는 점이다. 대형 우량주를 사서 팔았을 때 수익을 올리려면 매우 시점을 잘 잡아야 한다. 개인투자자가 대형 우량주로 투자하기 좋은 최적의 타이밍은 바로 시장 전체가 과도한 우려로 붕괴했다. 다시 말하면 그 주식에 국한된 악재가 아닌 주식시장 전체가 나 할 것 없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과도하게 폭락하는 시점. 그때가 바로 대형 우량주의 매우 작기란 말이다. 주식시장의 등락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투자자의 심리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적정 가치를 비해서 더 많이 오르고 더 많이 빠진다. 바로 이 빠지는 타이밍. 따라서 필요 이상의 우려 탓에 적정 가치보다 더 많이 빠진 바로 그 타이밍을 매우 천천히 활용하라. 그리고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차분히 기다린다면 시간이 흐름수록 평가 차이는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SECRET ■■■

개인투자자들이 직접투자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은밀한' 정보에 의존하는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대부분 주식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보니 은밀한 정보에 귀가 쫓겨날 수밖에 없다. 주사에 대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주위 사람으로부터 "그 회사 내부자에서 들었는데 이리 저러한 이유로 곧 그 회사 주식이 가격이 몇 배 정도로 뛰기 된다더라" 하는 말을 들으면 솔깃하게 사밖에 없는 게 사할 심다. 그렇게 이른바 '비밀' 정보를 입수하고 투자하는 경우 잘못된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실형 한두 번은 좋게 돈을 벌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미치는 쪽으로 걸린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보는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세력이 주식 매집을 끝낸다고 주식을 고가에 팔기 위해 무리를 퍼뜨리기 시작한다. 주식투자란 본질적으로 아무리 많이 오른 주식을 팔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 매집이 끝나면 매집한 주식을 팔기 위해 각종 루머나 정보,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만약 개인투자자가 주위 사람에서 은밀한 정보를 들었다면 일단 누군가 나한테 그 주식을 팔려 한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그 정보가 사실일지라도 이미 현재의 그 주식 가격에는 그 호재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 나는 뒤늦게도 이 정보를 들은 거라 생각해도 좋다. 특히 어떠한 정보를 들었을 때 그 종목이 최근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겠다고 서둘렀던 요하게도 내가 사지마지라 권유받았다는 모양새 될 것이다. 두꺼운 귀를 가지는 것, 주식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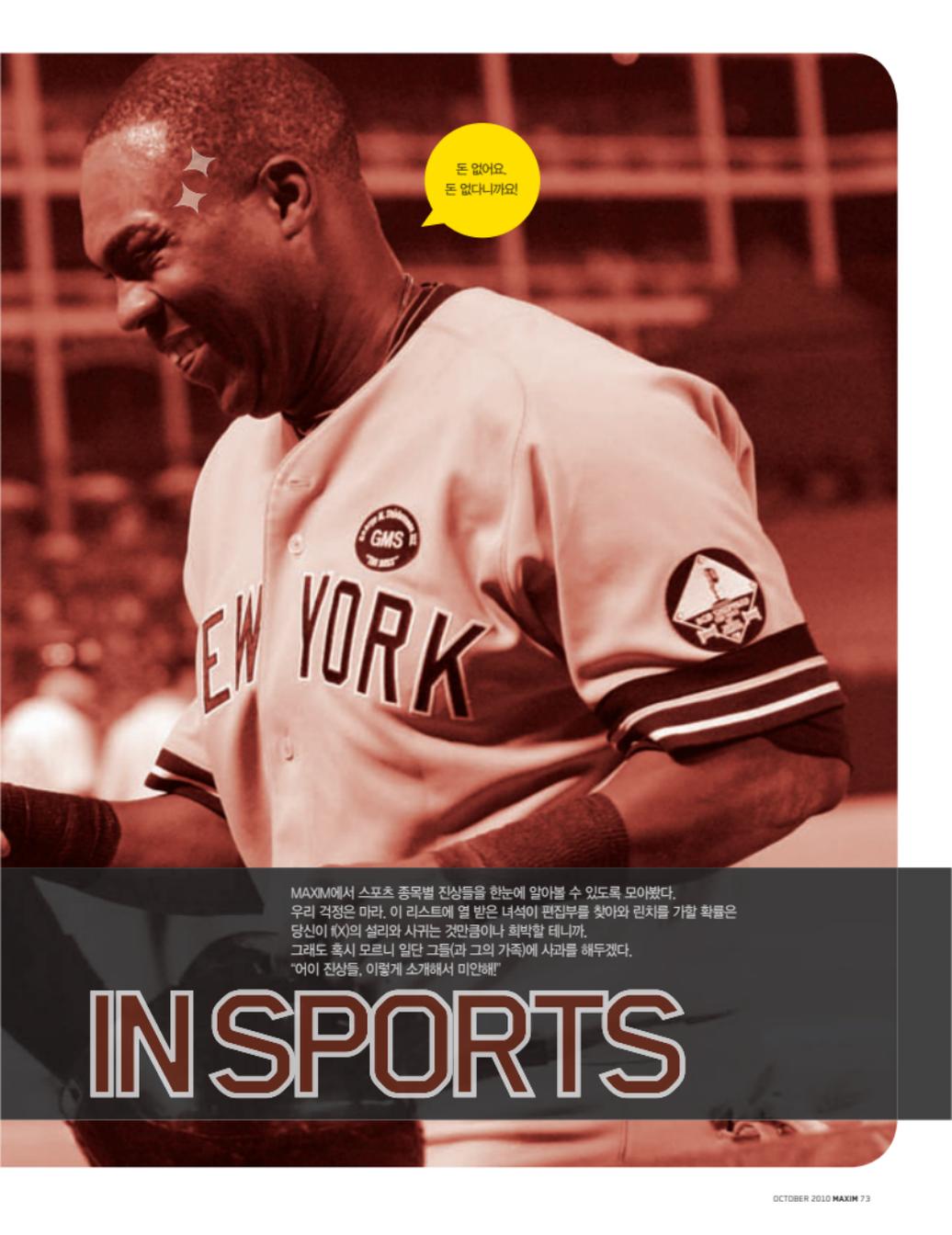


**정리하면** 개인투자자가 주스에 투자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로 전문가에게 맡겨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전문가란 펀드일 수도 있고, 투자자문사의 일일계약일 수도 있고, 증권사 란어 카운터일 수도 있다(MAXIM 9월호 참조). 그 다음으로 좋은 방법은 바로 시장이 과도한 우려로 무너져도 절대 망하지 않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우량주를 매수해 장기 보유하는 것이다. 장기 투자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상의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개인이 원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며 즐리 이상의 수익을 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정보에 의존하는 투자는 자제하는 것, 특히 단기 급등주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 SUPER IDIOT

스포츠 진상들!



돈 없어요.  
돈 없더니깐요!

MAXIM에서 스포츠 종목별 진상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모아왔다.  
우리 걱정은 마라. 이 리스트에 열 받은 녀석이 편집부를 찾아와 린치를 가할 확률은  
당신이 (X)의 살리와 사귀는 것만큼이나 희박할 테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일단 그들(과 그의 가족)에 사자를 해두겠다.  
“어이 진상들, 이렇게 소개해서 미안해!”

# IN SPORTS

## BASEBALL

### A.J. 피어핀스키

시카고의 유명한 개망나니답게 화려한이라고 쓰고 지저분한 이라고 읽는다) 이력을 자랑한다. 1루수를 발로 깨는 건 예시고, 포수를 테이크다운으로 쓰러트린 후 주먹도 휘둘렀다. 상대 팀 수비수에 게 태그아웃을 당하면 슈퍼맨이 팬티를 찢듯 자신의 글러브도 찢어버린다. 사카고 화이트삭스의 아지 기엔 감독은 "당신이 상대 팀이라면 그를 싫어할수록 수백을 없다. 하지만 그와 같은 편이라면 당신은 그를 조금은 덜 싫어하겠지" 라고 말했다.

진장 지수 ●●●○○



### 데이비드 오티스

시즌 초반 최악의 슬럼프에 빠진 오티스는 시즌 중 리포터에게 "이놈의 슬럼프 때문에 내가 정말 죽겠어~잉" 이라며 징징거렸다. 저런저런 내가 보는 10억이 훌쩍 넘는 연봉이 날 죽이기라도 했어? 아니면 구급차에 차이기라도 했어? 왜 징징거리어 이 율보야?

진장 지수 ●○○○○

내가 이렇게 빨리 공을 던지면 내가 무슨 수로 지겠어?



## FIGURE SKATING

### 브라이언 오서

당신이 연이어서 2010년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만들어준 건 눈물나게 고마워. 그런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결빙해야 했어? 물론 아니. 촉촉이 당신에게 섭섭하게 대했음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잇살도 먹었다. 돈도 많이 벌었으면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었잖아. 콜하게(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헤어졌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당신은 로버트 할리 못지않은 친근한 사나이가 되었을 거야. 결국 당신은 이제 007 포즈를 한 그녀의 코치가 아닌 한 명의 늙은 게이 자신이 되어버렸어. 어때 만족해?

진장 지수 ●●○○○



아~ 아~ 아~ 연이어서

## SPEED SKATING

### 사니 데이비스

미국의 간판 스케이팅 선수란 놈이 대표팀 다른 선수와 한 장소에서 훈련하는 걸 거절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사진을 스피드 스케이팅 공식 홈페이지에 실지도 못하게 하다니 그러고도 간판인가? 심지어 공중서성이 떨어져 공중분해 위기에 처한 팀을 살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개그맨 스테판 콰버트(그는 스피드 스케이팅 팀을 위해 3억 상당의 자신 기금을 모금했다)를 열간이라고 공개적으로 불렀지. 그런데도 그의 엄마는 그를 비난하지 말라며 감쌌어. 부인, 제발 우리를 울리지 마요!

진장 지수 ●●●○○



## BASKETBALL

### 코비 브라이언트

그는 사리를 내보내고, 팀 동료 앤드류 비어닝에 대해 징징거려. 레이커스를 자취하고, 트레이드를 요구하고, 트레이드 요청을 철회했다. 그는 하죽거리 없이 웃을 수 없고, 하세 없이 플레이할 수 없고, 피울 유도 없이 플레이할 수 없다. 코비가 뺨이라고 생각해? 그도 가이엔 동의했지. 그는 스스로를 '강간범' 보다 좀 더 기억하기 쉬운 '블랙앤(아프리카)커스' 라고 불렀지.

진장 지수 ●●●●●



### 라시드 윌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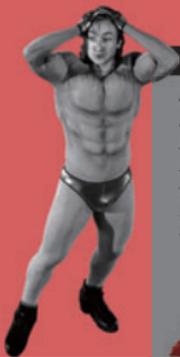
36세의 높은 몸집은 심판에게 불만을 토로한 대가로 30%의 테크니컬 foul을 얻었지. 2008년 당시 소속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플레이오프가 끝난 후 그가 늘어난 바늘을 생 각하면 "그들이 외자는 거 봤어? 고장이처럼 바늘에 앉아서 구사팀대어 정말" 이라고 외친 걸 생각해. 라시드 윌리스는 다음 해에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애틀랜타 브루클스와의 3년 계약을 맺는 걸로 남은 분노를 달랬지. 진장 지수 ●●○○○



### 에베게니 플류센코

그래, 이 빌어먹을 은메달리스트야 우리 역시 네가 은메달이란 사실을 믿지 못했다. 우리 반 응 역시 너와 마찬가지로였어. 하지만 넌 헬스아원에서 내가 받은 은메달이 사실 (백금) 은 안 들어줬다는 글을 올렸지. 그건 우리가 남자 피겨 스케이트 선수에게 기대하는 '널다지다운' 행동이 아니라고!

진장 지수 ●●●○○



## SOCCER

### 축구 선수 모두!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인 축구를 할때 할때, 게이 트볼 경기보다 지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까? 경기장에서 달릴 때 바람이라도 불면 일단 정장임을 붙잡고 대충대굴 굴러버려. 심판이 파울을 일러는 휘슬을 부르질 간절히 기대하는 눈빛을 쓰면서 말이지.

진장 지수 ●●●●●



## BOXING

### 매니 파퀴아오

어서 그 빌어먹을 겁에 (도핑 검사를 위한) 쇼변이나 시 원하게 싸고, 메이웨더 주니어와 한번 때려!

진장 지수 ●●○○○



## 조 웨스트

(ESPN 매거진)이 현역 선수 1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에서 최악의 심판 2위(36% 득표) 성공에 오른 판관 조 웨스트! 그는 그의 옛 같 은 판정에 분노한 선수들 퇴장시키는 걸 즐긴 다. 자신의 판정에 불만을 품는 사람은 모두 병 신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우리가 아는 한 총 보 사무도 겸하는 유일한 심판이야. 그는 아마 매 경기에서 뜨거운 이유를 만들기 위해 사람 을 따로 고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진상 자수 ●●○○○



## A. 로드, 델러스 브랜든 그리고 그의 할머니

뉴욕 양키스의 A. 로드와 오글랜드 애슬레틱스의 델러스 브랜든과의 어설픈 디스질(A. 로드와 주 후 브랜든이 A. 로드를 엿 먹는 퍼펙트 게임을 달성한 후) 브랜든의 할머니가 디스질에 난입했지. 그녀는 언 론에 A. 로드에게 새 마디를 남겼어. "엿 먹어, A. 로드!" "이 자지배 같 은 녀석! 그래, 너 정말 참~~ 참났다!" "그러나 이제 우리 (닥터)도 야구만 할 수 있겠지?"

진상 자수 ●●○○○



## TENNIS

### 브라이언 형제

이 쌍둥이들은 테니스 역사상 최고 의 복식조지. 이들이 킹왕방 사나 이들이란 건 우리도 확신했. 하지만 그들이 경기 도중에 보여주는 특 징적인 동작(이라고 쓰고 공중 배꼽 치기라고 읽는다)은 우리의 기분을 묘하게 만들어. 당연히 거울 앞에서 이런 동작을 따라했다고 생각해야, 이상하지 않겠어?

진상 자수 ●○○○○



## FOOTBALL

### 제이 커틀러

덴버 브롱코스의 쿼터백 제이 커틀러 는 감독 조시 맥디나엘스가 트레이드 오퍼를 날리고 있다는 루머를 듣고 계 대로 빈정이 상했지. 그는 어느 팀의 제인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시카 고 베어스를 팀을 옮겼지. 그는 인터넷 셉슨으로 리그를 이끌었어. 이런 게 바로 짜릿한 터치다운 아니겠어!

진상 자수 ●○○○○

## FOOTBALL

대기록 파괴의 사나이! 2007년에는 두산 리 오스의 퍼펙트 폼을 9회에 박살 냈고, 2008 년엔 삼성 상성항의 퍼펙트 기록을 6회에 우 주로 날려버렸다. 그래, 그것까진 이해할 수 있었어. 하지만 MAXM 표지 모델이었던 우 리 현직자의 켈리타 스타트 기록을 깨버린 건 개월이 지났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제 바로 우리가 당상을 진상으로 선정 한 이유야. 젠장!

진상 자수 ●○○○○



## FOOTBALL

### 틀 브래디

지질 변천의 남자로 더 유명했던 자신이 토미는 부상당한 다리 로 누군가 다가오면 마치 오일 섹스를 할 기세로 심판을 붙잡 았지. 사실 지난 시즌 그는 몸 상태가 너무 매롱이어서 무릎을 가격당했다는 제스처를 심판에게 했다니, 심판은 반칙을 잡리 는 것밖에 내던지지. 이따가 필드에서 얼마, 이배 모시고 와 팽강 이라도 놓겠네.

진상 자수 ●○○○○



발광이 되고 그렸잖아 야!

## GOLF

### 타이거 우즈

해문 이카씨의 엉덩이를 어쨌든 그리워하고 있 을 호랑이 녀석은 최대의 욕봉질에 대해 세계 최고로 지루한 시애틀는 거 말교를 늘어났 고, 골프 클럽을 팔기 위해 죽은 아버지 이름도 서슴없이 팔아치웠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 불참한 핑크로 목 부상에 따른 목 경련 을 맞지만 그간 불똥을 뿌리니까 한 고동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 어. 그의 욕봉 동서들이 이번 추석 에 둘러앉아 승만큼 빛으며 잔뜩 흥을 보냈군 그래.

진상 자수 ●●○○○○



## CYCLING

### 플로이드 랜디스

2006년 사이언 선수리뷰 누구나 꿈꾸 마 지않는 투로 드 프랑스 대회에서 우 승했지만 도핑 검사에 걸려 타이틀 을 우주로 날려버렸다. 몇 년 동안 도핑 을 부정하느라 피땀을 썼고, 심지어 자서 전에서도 결백을 주장할 주저했다. 그런 데 이발이 먹여 놓이 올해 5월에 대담 자신 의 부정 행위를 인정해버렸어. 자 전거나 타는 형성이 같으니

진상 자수 ●●●●●



## NASCAR

### 카일 부시

자미 존슨에게서 나스카 최고 시리즈인 스포 린트 컵을 빼앗기 전까지 카일 부시는 실력보 다는 불같이 화내고 짜증만 잔뜩 내는 선수로 더 유명했지. 그가 2009년 스포린트 컵에서 우 승했을 땐 어땠나고? 트루피를 개박살 내 버 렸지 이봐. 그럴 거면 도대체 왜 우승을 한 거 야? 미쳤어?

진상 자수 ●●○○○○



MAN



COOPERATIONS 4UN, HEAD, C.O.A.X, ZARA, 9999, 881 PLAY(カズシ)



에그만 보기

# 남자 김영호

수컷 중의 수컷이 새 영화 (여덟 번의 감정)로 돌아왔다. 그를 만나는 날 비가 무척 많이 왔다. 이 수컷 이렇게 말했다. "안주하지 않고 빗소리에 고민하고, 바람소리에 새로운 길 보며 삶이 주는 다각도의 감각과 형태의 것에 도전하고 싶다." 예, 형님. BY 이영미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임승혁 라플라



새 영화 <여덟 번의 감정>(개봉 9월 30일)에서 누드가 나온다는 첩보를 접했다.

갑자기 폭포를 보니 그 속에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몰로 뛰어들었다. 원래 없던 장면인데 성지혜 감독에게 내가 하겠다고 했다. 근데 어찌 보니 약간 은밀한 부분이 나왔다. 남자의 중요한. 감독은 크게 해도 잘 안 보인다고 잡아땠는데 살짝 비쳐 보인다. 지워달라고 했는데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촬영 중에 감독이 자주 가까이 오고 싶어 해서 내가 웃고 했다(웃음). 원래 시나리오는 그리 코믹하지 않았는데 내 연기에서 코믹함을 좀 더한 것 같다. 감독이 초반부터 참여를 많이 요구했다.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이 있다.

다 보여줬군. 뉴스에 그 이야기만 나올 거다. <김영호, 임종 열면 OO 노출!> [미용의 준비를 해야 할 거다. (웃다가 사레들러서 한 10분 내내 클룩클룩) 아. 웃기다. 정말 그러지 않길 바란. (웃음 타킴) 어허. 그러면 안 되는데 계속 웃음].

성인연애이다라는 장르명이 독특하다. 일부러 자극적인 홍보하는 건가? 아. 그 장르명은 처음 들었다. 스펀지(배급사)가 예술 영화 많이 하는데 이상한 걸 같다 불었네? 누구나 살면서 고민하는 연애 이야기를 꼬집어 낸 것 같다. 나랑 잘 맞는 여자와 첫눈에 반한 여자 사이에서 고민하는 동물적 본능을 가진 수컷의 고민 말이다.

당신은 동물적 본능을 가진 수컷의 외형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 짐승남이란 소리로 듣는다. 나에도 많은데. 그런 건 20대 애들한테나 하는 말 아닌가?

짐승남에는 나이 제한이 없나 보다. 사람한테 짐승이라니(웃음). 운동은 좋아한다. 야구, 등산, 달리기... 얼마 전까지 격투기도 했었다. 몸이 워낙 커서 시우나 같은데 가면 사람들이 놀린다. 이렇게 풀 줄 몰랐다면, 방송에는 좀 낯선하게 나온다고 한다.

큰 덩치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옛날에 강변가요제 나간다고 서울에 오는 길에 검문관 수십 번 받았다. 터미널 지날 때 방송국 들어올 때마다 계속 경찰이 붙었다. 조직폭력배로 많이 오해 받았다. 내가 그렇게 함악한가?!

**추성훈을 좀 달아.**

예전에 장난으로 추성훈 이름으로 사인해준 적도 있다. 김동현이랑도 친하다. 세계적인 파티티인 자기보다 내가 어깨가 커서. 그것도 연예인이 자기보다 덩치가 커서 놀랐다고 했다.

시 쓰기, 수목화, 음악 등에도 조예가 깊다고 들었다. 안 어울리는 것 같다. 그냥 좋아하는 수준이다. 평소엔 사랑 안 만나고 집에서 혼자 그림 그리고 글 쓰고 게임 하는 걸 좋아한다. 9월에 수목화 전시회도 한다. 대단한 수준은 아닌데. 연예인이라는 포장 때문에 주목 받는 것 같다. 업으로 삼는 분들과 비교하는 수준은 아니다.

**게임이. 트위터에... 게다가 평소엔 계속 집에 있나니 멀리어디터 오역 후의 기운이 보인다.**

아이패드도 구입했다. 얼마 전엔 아이폰을 가장 잘 쓰는 연예인으로도 뽑혔다. 트위터도 자주 한다. (실제로 인터뷰 쉬는 시간에 카키오 특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인터뷰 끝 난 뒤 아이패드로 게임을 하고 에디터와 MAXM 어플을 검색했다. 아이패드에는 30~40개 정도의 무료 게임 어플이 있었다)

노래, 그림, 운동, 글... 이런 걸 할나니 이상에게 인기가 많았겠다. 그런 거 없다. 그냥 자유롭게 사는 방랑자이고 싶다.

**무슨 소리인가? 예술의 모든 시작은 이상을 유혹하기 위해서다.**

100% 동감한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남을 유혹하는 건 내 체질이 아니었다. 연애도 거의 안 하고, 첫사랑을 만나서 한 달 만에 바로 결별했다. 여자분이 결혼하지 않고 했다. 별 일 없이 잘 산다. 결혼한 지 4년 좀 되었다.

영호... 영호... 진짜 흔한 이름이다. 길 가다 부르면 10명 중 2~3은 뒤 돌아보았다.

연극할 때는 '한현도'란 이름을 썼다. 영화 <유령> 크레딧엔 그 이름이 나왔다. 신을 좋아해서 '김산'으로 개명할 생각도 했다. 아들 낳으면 그 이름을 지어줘야 했는데 딸을 낳았다.

**어떤 음악을 좋아하나?**

스윙 노래는 다 좋아한다. 한 건서도 안 스윙 노래만 듣는 적도 있다. <레옹> 테마곡 'Shape Of My Heart'를 특히 좋아한다. 노래 듣기 전에 그 허우주의 니콜라쥬 가락한 목소리에 빠긴다. 인생의 활력소다.

**질투 나는 배우가 있나?**

나보다 질투기는 배우는 다 질투하니까

이번 MAXM 10월호 커버 모델이 린지 로한이다. 마약과 음주운전 등으로 악명이 높다. 그에 비하면 한국 연예인은 너무 얌전해서 재미 없다. 그런 친구를 커버 모델로 해도 되나?

**예뻐면 그만이다!**

한국에선 튀면 안 된다. 선후배 관계. 나이 이런 게 많이 작용한다.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줘야 한다. 다양성 측면에서 젊음이 주는 에너지 생각을 잘 받아주고 연봉 있는 사람들이 관대해줘야 한다. 한국이 가진 에너지. 가발할 창조성을 전 세계를 흔들 거다. 구태의연한 생각으로 이것을 막는 것은 올바른지 않다.

**여행을 좋아한다고 들었다. 추천할 가을 여행지가 있나?**

그냥 오는 흥때까지는 것도 여행이고, 낯선 곳의 커미셔에서 아이패드 펴놓고 책 읽고 하는 것도 다 여행이다. 갑자기 모르는 곳 옆 동네에 가는 것도 여행이 아닌가.

**아, 당신은 천상 한림인 것 같다.**

술, 담배 안 하고 여지도 안 만하는데 무슨 한림인가. 그냥 혼자 여행하는 방랑자정도다.

PREVIEW

# MAXIM

NEXT MONTH'S  
COVER GIRL

**ANNA  
KOURNIKOVA**

*Ready to Receive  
Her Wild Serve?*

**MAXIM**

2010 NOVEMBER ISSUE

ESPN 온라인 투표에서 2년 연속

'가장 sexy한 여자 스포츠 스타' 에 선정

세계 여자 테니스 역사상 가장 많은 스캔들을 만든 플레이어에

안나 쿠르니코바가 MAXIM 한국판 11월호의 표지모델로 찾아왔다.

우린 카메라 앞에 선 그녀에게 아찔한 비키니를 입혔다.

**가을? 그게 뭔데?**

MAXIM 11월호는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에서  
e-매거진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과월호 구입문의  
02-323-1182 /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로스앤젤레스 법정 출두를  
머칠 앞두고

린지 로한이  
MAXIM 카메라 앞에 섰다.

그녀의 화보를 보라!

우리가 지금까지 그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던 이유  
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  
을 거다.

PHOTOGRAPHS BY MATT JONES

# HIND LET'S LOOSE SAY





# 린지 로한을 좋아한다면

(솔직히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 그녀의 트위터를 팔로우하자. 팔로우했다면 6월 30일 수요일 18시 28분 48초에 남겨진 "MAXIM 화보 촬영!" 이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린지 로한이 MAXIM에 후끈후끈한 열기를 가득 채웠다. 그 결과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멋진 화보는 당신이 왜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줄 거다. 그녀는 sexy하고, 재미있고, 당돌하고,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나머지 사실

촬영이 끝난 며칠 후, 그녀는 법정에 출두했다. 법정에서 린지 로한은 감독과 재촬영 센터에서 90일을 보낼 것을 선고받았다. 판사 양반, 좀 심했네 이후 트위터에 그녀가 남긴 좋은 트윗들을 보라. 'UN의 세계인권선언문 제 5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어머. 루이 비통 가방이 '달라밖에 안하네?' 그녀가 남긴 말이 다스 혼란스럽긴 하지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얼마 전 출소한 린지 로한의 아름다운 화보를 즐기며 그녀의 성공적인 컴백과 무사 귀환을 기도하자. 강해져야 해, 린지!

힘든 한 주를 보냈네요. MAXIM은 늘  
당신 편입니다! 지금 기분은 어떤가요?

강해진 것 같아요. 실면서 많은 일을 겪었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내게 무한한 믿음을 주셨죠.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최근 생일을 맞았어요. 다가오는 해에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내 자신과 내가 맡은 일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집중하기 위해 모든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아, 그리고 인도에서도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어요. 말라위 여행도 하고 싶고.

당신 인생에서 지난 1년은 어떤 의미인가요?

살에 대해 배운 또 다른 해였어요.

새 영화 <마세티>에서 악당을  
연기했어요. 어땠나요?

텍사스에서 촬영했는데 대단한 경험이었어요. 큰 스트레스를 느꼈지요. 나는 제프 파레이의 딸 에이프릴을 연기했어요. 로버트 드니로에 대항하는 여자가요. 에이프릴은 똑똑하고 재치 있는 모델 지망생이에요. 이번 영화에서 나의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죠. 더 많은 액션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요.

함께 출연한 제시카 알바나 미셸 로드리게즈와는 친하게 지냈나요?

스케줄은 각자 다 달랐어요. 하지만 제시카와는 친해요. 그녀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가씨예요. 그녀와 함께하는 작업이 더 많길 바라요. 미셸도 좋아해요! 그녀는 정말 재능 있고 강인해요.

<마세티> 외에도 곧 개봉할 다른 영화들이 있지요? 그 프로젝트들과  
영화 <인퍼노>에서 맡은 린다 러브레이스(전설적인 포르노 배우)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준비가 될 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비밀!

마릴린 먼로의 생일을 딴 숫자 6126을 당신의 패션 브랜드 명칭으로  
정했죠?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섹스 어필한 것과 관능적인 것. 너무 힘이 들어간 것 말고요. 여성은 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보이는 의상'에 미스터리함을 담는 것이 중요해요. 약간 경박하면서도 위험할 정도로 유혹적인 느낌이 있어야지요. 마치 바르가스 켈(미티스트 바르가스가 그린 판업컬이나 판업컬가에게 대면 당시 군인들의 사기를 불끈 올려준 포스터 속 클레어스한 미인) 같은 느낌 말이예요.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주세요?

항상 자신에게 진실해야 해요. 하루가 끝날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고 당신이 내린 결정, 앞으로 인생에서 당신이 내릴 결정에 대해 만족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해요. 배짱과 용기를 가져는 거죠!

“  
난 강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

Mara Hoffman 비키니  
One of a Kind Jewelry LLC 목걸이  
Express 금속 반금  
(암 페이지)  
Panczy 슀 달린 상의  
Helena Stuart for Only Hearts 비키니  
Dannijo 신사슴 목걸이  
Citrine by the Stones 반지  
Dannijo 반지





“여성은 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파워를 가졌죠.”

Underset 캐시미어 비키니  
Dainyo 목걸이  
Walker Steiger 구두



“더 많은 액션 영화에 출연  
하고 싶어요.”

6126 린미스  
K&N 비키니 허리  
Co Intimo 브라지어  
Clime by the Stones 빈지와 귀걸이  
릴 페이스  
Underst 줄무늬 비키니

# ICON Tiger JK

BY 이영미 PHOTOGRAPH BY ARC STUDIO  
STYLING 고정희 HAIR 이도우 MAKE-UP 고영은  
ASSISTANTS 조장진, 권승주, 박해진

미래가 있는 남자, 타이거 JK를 만났다.

단독직업적으로 물졌다. 유포미라게 MAXIM 커버 촬영을 하게 해달라. MAXIM은 커버로 내가 아니라 유포미라게를 원하지 않나? 난 뉴인 건가. 나는 늘 미래의 그늘에 있잖아(웃음). 물론 찬성이다. 그녀는 아이콘의 조건이 충분하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고 잘 하는 친구다. 오오, 목소리, 독특한 캐릭터... 춤도 잘 춘다.

나내가 시사한 의성을 입게 될 텐데? 난 괜찮다. 대단하다.

그녀는 대가나 가장 매력적인가? 입술, 눈, 목소리... 엉덩이? 다 예쁜 것 같다. 특히 눈이랑 입술.

아, 배 아파!

돌이 신나게 신인이 맞는 것 같긴하다. 어딜 가서 선물들 사도 똑같은 걸 사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똑같다. 내가 TV를 보고 예쁘다고 생각한 여자 연예인을 미래가 꼭 집어 예쁘다고 한다. 가끔 놀린다.

아내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머리 좀 제발 깔끔하게 잘라달라! 전 아내가 조던이 가위로 그의 앞머리를 잘라버렸대! 그이엔 "할 수 있어,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게 만들고, 아니면 포개!"라는 화끈한 응원인 말.

요즘 뉴스에 당선은 착한 남자 이미지만 비추진다. 그렇다고 당선인 천사는 아니지 않나?

좋은 사선, 좋은 기사는 감시하지만 악간 딜레마다. 예전엔 상식에 어긋나다는 표정이나 제멋대로인 표현을 하면 다들 좋아했다. 요즘은 광고, 화보 등 촬영을 할 때 착하고 밝은 이미지 요구한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기사에 나올 정도로 착한 사람은 아니다. 좋은 일을 하면 긍정적인 심적 변화는 있다.

고쳐야 할 나쁜 버릇이 있다면?

고민이 많아 스스로 힘들게 하는 피해당심 기질이 있다. 모든 문제가 나로 인한 것처럼 느껴진다. MAXIM 촬영이 나 때문에 잘 안 되던 어쩌나 하는 것 어찌 보면 매우 자기중심적인 자책일 수도 있지만 그런 고민이 나를 구속하는 경우가 없다. 음악을 할 땐 마음대로 해도 되니 괜찮다.

부부싸움은 렵 배틀로 하나?

인터넷에서 이런 질문 보고 재미있어서 장난으로 내가 렵으로 싸움은 건 적은 없다. 근데 렵은 미래가 나보다 주도적으로 잘한다. 깔끔하게 때

재는 재미있나?

인터넷에 타고난 친구들이 있다. 미래가 그런 경우다. 난 노력형이다. 계속 연습하고 시도한다.

오, 연습하면 당선처럼 할 수 있나?

그렇다. 하지만 타고난 사람들이 노력하면 장난 아니게 무섭다.

그렇다면 (무한도전의) MC 유의 래퍼로서의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나?

어쨌든 캐릭터로 보이지만 그 안에 완벽한 체계가 있다. 순간적인 재치는 친부적이다.

얼마 전 무한도전 프로듀세링 도전기 (WWW)편의 촉하 무대는 어땠나?

두 곡 부코라고 실신했다. 체육관을 꼭 채운 관객의 기가 너무 세서 공연하기 힘들었다. 무한도전 팀은 정말 놀랍고 대단하다.

피자랑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재미가 형이랑만 언제든지 헬릭.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덩달아 즐겁게 만드는 멋진 사람이야. 신중선 선배님처럼 내가 어떤 때든 언제든 영웅과도 함께 작업하고 싶다. 하지

만 내가 아직 너무 부족하다. 음, 내 아يا치가 너무 지루한가? 미안하다.

아니, 괜찮다. 진짜 피해당심아!

그렇다. 얼마 전 (슈퍼스타 K) 심사위원으로 나왔는데 거기서도 나는 점도 사람처럼 있었다. 나 때문에 스태프들도 힘들고 제일 재미없던 예파스도가 되었을 거다. 사실 난 아직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많고 모르는 것도 많아서 누굴 평가한다는 게 힘들다.

처음 한국에 데뷔했을 때 당시 대세인 음악을 따라가기 힘들었는 텐데?

당시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지적받았다. 목소리는 너무 하이톤에 왕왕거리서 이상하고, 눈빛, 옷차림, 걸음걸이도 고치라, 춤도 배워라, 음악도 바꿔라...

성형 재돈도 받았나?

예전에 기획사 미팅할 때마다 그런 말을 들었다. 이 눈으로는 대중이 좋아해서 절대 안 된다고, 눈을 가리거나 수술하지 않으면 방송 부적격 판정이라고(웃음). 수염 때문에 방송국에서 성의 없어 보인다는 말도 들었다. 요즘 진짜 세상 좋아졌다.

지금 미래시 음악을 준비하고 있는 데, 현재 음반 시장을 장악한 아이돌이란 존재가 부담스럽진 않나?

항상 그 시대를 장악하는 아이들은 어어왔다. 신인들이 와서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인사하고, 시대의 아이콘이 되고, 또 다른 신인이 나와서 인사하고 아이콘의 자리가 다시 바뀌는 사이클을 옆에서 계속 지켜봐왔다. 그래서 오히려 덤덤하다. 음, 참 고맙고 우리 미래는 충분히 아이돌적인 대중 스타가 될 수 있어!

음반 작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작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어디로 흘

러가는지 모르겠다. 나는 미래 실부름을 많이 한다. 필기도구 같다. 주고 마이브 받쳐주고, 늘 그녀의 그림자 속에(웃음). 어떤 음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글로벌한 음반이 될 거다. 기대하시라.

그저나나 인터뷰 도중 미안한데 어떻게 불러야 할 지 모르겠다. JK? DT? 타이거? 드링크 타이거? 육인 아니든 괜찮다. 맘대로 불러라.

의정부에 사는 JK씨는 의정부가 맘에 드나?

물론이다. 동네 사람들이 마주치면 따뜻하게 인사해준다. 사무실 근처 상가 아저씨들도 내가 지나가면 "JK 아저씨!" 라고 불러주니까.

조던이는 무슨 음악을 듣고 자라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머리가 좋아진대서 해왔는데 효과는 없는 것 같다. 포기하고 우리 듣는 음악 들려준다.

벌써 나이가 꽤 된다.

내가 몇 살인지도 모르겠다. 사실 20대 이후론 나이를 잊어버렸다. 생일도 안 쟁긴다. 하지만 세월 덕분에 젊은 꽃이피는 다른 딸만한 여유, 안 잊어도 되는 여유가 생긴 것 같다.

인터넷에 왜 이리 당신의 파마와 콧수염에 대한 질문이 많은 걸까?

머리는 흉대 말 알려줘야 내 친구가 해준다. 가서 MAXIM과 JK가 소개해달라고 하면 D.C 해줄 거(웃음). 장문은 못한다. 콧수염은 의도적인 아니라고 내 친구 케슬러...

요즘 트위터 중독인 것 같다.

하도 그래서 필 필요우 했던 사람들이 날 언팔(Unfollow)하고 싫은데 미안해서 못하는 것 같다. 언팔 해도 된다. 상처 안 받는다. 정말 괜찮다!

“ MAXIM 커버는 내가 아니라  
미래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블랙 컬러 슈트 SYSTEM HOMME  
라이트 블루 체크무늬 셔츠 TNGT  
스트라이프 패턴 타이 HAZZYS  
반지 개인 소장품  
블랙 가죽의 스트랩 시계 SEKO

\*표지\*  
블랙 컬러 재킷 SIEG  
라이트 컬러 셔츠 TJ FOR MEN  
반지 개인 소장품



촬영현장 보기

홍수현

화이트 원 솔더 티셔츠 barsh  
그리이 컬러의 사각 언더웨어  
maru innerwear

COOPERATIONS 순면(www.sonsoobeaauty.com) suecomina bonnie(www.suecommabonnie.com) barsh(02-517-4394) maru innerwear(02-3445-6429) Gaia(02-3447-1098)  
BELLENOUVEAU(02-517-5521) CLUB MONACO\_XIX(02-546-7764) adidas Originals(02-3447-7701) EBLINI(080-045-0450) NICE CLAUPE(02-548-3957) THE FARMER(02-514-2543)  
Reamadonna(02-797-7826) VDV, Calvin Klein Underwear, EMPORIO ARMANI UNDERWEAR(02-3446-7725) 글렌베리(02-548-3957) THE SHOE(02-3442-3012)



촬영장 침투 87%

# LOVELY LADY WITH A CAT

때론 순수하게, 때론 귀엽게, 때론 섹시하게!  
고양이 같은 그녀의 매력에 빠져보자

BY 곽경희 WORDS BY 김성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이순철(순수 청담분점 원장) MAKE-UP 수경(순수 청담분점 원장) STYLING 최희진

ASSISTANT 조창진, 김동수 CAT (간사님)



민트 컬러 코르셋 EBLIN  
블루 컬러 수영복  
adidas Originals  
목걸이와 양말  
모두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왼쪽**

리본이 달린 헤어밴드  
THE FARMER  
핑거리스 장갑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화이트 컬러 셔츠  
NICE CLAUP  
블랙 컬러 언더웨어  
개인 소장  
백기렌츠 XX  
슈즈 suecomma bonnie  
탄테이블 옆에 있는 독특한 디테일의 모자  
BELL&NOUVEAU

**오른쪽**

그레이 컬러의 니트 카디건  
CLUB MONACO  
화이트 민소매 티셔츠  
에디터 소장  
핑크 컬러 언더웨어  
Calvin Klein Underwear  
그레이 컬러의 사각 언더웨어  
EMPORIO ARMANI UNDERWEAR

# H

ONG SOO HYUN

〈일요일 일요일 밤〉의 '뜨거운 형제들'에서 테이블 위를 거침없이 기어가더라!  
정말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다. 그 모습을 보고 색  
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나는 단지 아바타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다.

지금까지의 작품 활동보다 '뜨거운 형제들'에 출연했  
을 때의 반응이 훨씬 뜨거웠다.

솔직히 조금 섭섭한 마음도 들었다. 아무래도 시  
청자는 자연스러운 내 모습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예능감이 출중하데 그동안 왜 몸을 사렸나?  
드라마와 영화가 좋아서 집중했을 뿐이다. 예능 프  
로그램은 처음 출연이었는데 나름 재미있었다(웃  
음). 앞으로는 좋은 기회가 생기면 가까이 출연할  
생각이다.

'뜨거운 형제들' 멤버 중에서는 누가 가장 재미  
있던가?

굳이 고르자면 김구라, 탁재훈, 박명수.

박명수 스타일의 개그가 재미있던 말인가? 의외다.  
호통 개그를 좋아한다.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호  
통이나 큰소리를 치면 속이 후련해지지 않나? 눈  
치 보지 않고 거침없이 말하는 건 즐거운 일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홍수현을 검색하면 시원한 의상  
을 입은 모습만 눈에 띈다.

시상식 의상을 입은 모습이 대부분일 거다. 알상을  
담은 사진 100장보다 시상식 사진 1장이 훨씬 임팩  
트가 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당신도 시상식 사진을 보면서 자신의 몸매에 감탄한 적이 있을 거다.

'내게도 이런 모습이 숨어 있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한다(웃음).

로맨틱 코미디 영화와 활액궁합일 것 같다. '뜨거운 형제들'에서의 모습만 보여줘도 성공은 문제 없을 거다. 게다가 지금 당신은 여배우로서도 가장 매력적인 나이가 아닌가!

빙고 이제는 어떤 모습도 어색하지 않다. 섹시한 모습도, 캄캄한 모습도 모두 매끄럽게 소화할 자신이 있다. 남은 건 마음에 드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 출연하는 일뿐이다.

그럼 지금까지 가장 재미있었던 본인의 영화는 무엇인가? 영화 데뷔작 〈번지점프를 하다〉. 8번을 봤는데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재미있다. 그리고 최근에 출연한 〈영화는 영화다〉. 내 영화는 아니지만 별 생각 없이 편하게 볼 수 있었던 〈릭 애스〉도 좋았다.

당신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인가?

착하고 퓌퓌이가 바른 사람이 좋다. 그렇다고 착하기만해서는 곤란하다. 개념 충만하면서 재미도 있어야 하고, 나랑 말도 잘 통해야 한다. 그렇다고 외모를 아예 안 볼 순 없다. 조카같이 잘 생긴 외모는 아니지만 딱 봤을 때 느낌이 오는 사람이면 좋겠다.

차라리 자구를 구하는 게 더 빠르겠다. 이상형이 아닌 남자가 당신의 마음을 얻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 좋아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결국 통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솔로 수컷은 존재하지 않았겠지. 당신 홈페이지에 놀러갔더니 취미가 음악 듣기라고 적혀 있더라.

오아시스, 콜드 플레이, 라디오 헤드, 에피톤 프로젝트를 특히 좋아한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음악을 들어보고 싶다면 나의 디지털 싱글 음반 〈트래블러(Traveler)〉를 추천한다. 내 음반이지만 들을 만하다(웃음).

음악 듣는 게 취미라면 독서도 빠지지 않을 텐데? 안 그래도 최근에 관심 보는 책을 읽고 있다.

그럼 내 관심도 한번 봐달라.

이마가 넓고 좋아 보인다. 정도 있어 보이고, 말년복도 좋을 거다.

당신처럼 미인을 만날 기회도 있나?

그건 잘 모르겠다(웃음).

흥! 솔직한 여자군. 마지막으로 MAXIM을 한마디로 정의해달라.

'호기심.'



왼쪽)

핑크 컬러 캠퍼스 Gaia

오른쪽)

독특한 소재 디테일의 시스루 상의

fleamadonna

꽃꽃 패턴의 바카니

adidas Originals

마이크로 쇼츠 VOV

핑크 컬러 앵글 금은보화

양말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스타드 장식의 워커

THE SHOE



# clap! NFL clap! 치어리더 퍼레이드

2010 NFL 시즌을 더욱 뜨겁게 달굴  
치어리더를 한자리에 모았다!

PHOTOGRAPHS BY TURE LILLEGRAVEN

➔ 이제 겨우 스무 살이다. 그런데 응원할 할 땐 정말 베테랑 같다.

베테랑 맞다. 벌써 4년째 치어리더를 하고 있다. 열일곱 살 고등학교 때 처음 팀을 만들었다. 앞으로 10년은 더 응원할 텐데 10년 후에도 대부분의 팀 동료보다 젊을 거다.

인간 피라미드 쌓기를 할 때 맨 위에 있다. 아니면 바닥에 있나?

바닥. 다른 여자애들이 나보다 더 작다. 그리고 나는 강하니까.

대단하다. 경기장 밖에서는 어떤 식으로 힘을 쓰나?

난 골프를 굉장히 잘 친다. 내 약점은 잘 모르지만 2500야드까지 공을 날릴 수 있다. 나의 아버지는 10대 때부터 골프를 치고 프로그가 되기 직전까지 갔다 포기했다. 아기가 생겨버렸기 때문이다. 그 아기가 나다.

음, 당신이 아버지의 발목을 잡았군. 미안하게 생각한다. 여전히 아버지와 난 골프를 같이 친다. 내 주변의 많은 남자친구들이 "넌 날 이길 수 없다"며 골프로 도전장을 낸다. 그럼 난 그냥 이렇게 말하며 스윙한다. "나 하는 거 잘 봐."

골프장 데이트는 어떤가?

한 번도 데이트 때 골프를 친 적이 없다. 가보고 싶다. 하지만 그는 절대 날 이길 수 없을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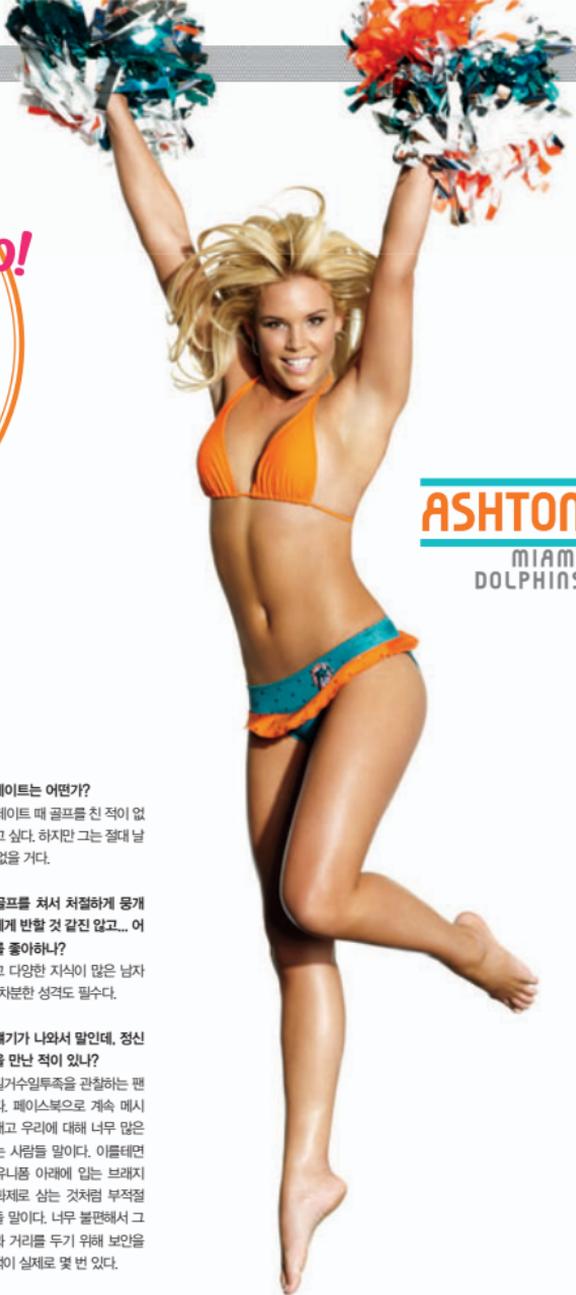
당신과 골프를 쳐서 처절하게 땀겨질 남자에게 반할 것 같진 않고.. 어떤 남자를 좋아하나?

교양 있고 다양한 자식이 많은 남자가 좋다. 차분한 성격도 필수다.

처분할 해기가 나와서 말인데. 정신 나간 팬을 만난 적이 있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팬들이 있다. 페이스북으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우리에게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 말이다. 이들에게만 우리가 유니폼 아래에 입는 브래지어까지 화제로 삼는 것처럼 부적절한 행동을 말한다. 너무 불면해서 그런 팬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 보안을 요청한 적이 실제로 몇 번 있다.

**ASHTON**  
MIAMI  
DOLPHINS



# IVELISSE

PHILADELPHIA  
EAGLES



그녀들의 아이싱  
양식하기

➔ 단도직입적으로 물겠다. 어  
떻게 하면 침대 위 여자친구  
에게 치어리더 의상을 입힐 수 있  
을까?

그녀의 몸을 칭찬하라. 아름답다고  
말하라. 당신이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하면 그녀가 자신의 몸에 대해 자신  
있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 그  
런 다음 그녀에게 입히고 싶은 유니  
폼을 고르면 된다.

**특별히 좋아하는 남자의 의복 스타  
일이 있나?**

유니폼을 입은 다부진 사람이면 누

구도 좋다. 풋볼 선수, 군인, 야, 경찰  
도 썬사이드.

**치과보조사 자격증도 있다. 병원에  
서 일할 때 치어리더 기질이 도움  
이 되나?**

치과에는 엄청 불안해하고 무서워하  
는 환자가 많다. 나의 활기찬 성격으  
로 그들을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다.

**비위가 무척 좋나 보다. 사람들의 더**

**러운 입안을 파헤칠 수 있다니...**

별로 혐오스럽지 않다. 구강 외과 수  
술 중 역겨운 장면도 많이 봤다. 기령  
입안의 냄새를 잘라내는 제거술 같은  
것 말이다. 근데 내가 본 것 중 가장  
이상했던 건 틀니였다. 노인들이 그  
걸 입에서 꺼내서 건네줄 때...

**또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스페인어를 할 줄 안다. 푸에르토리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릴 때부  
터 영국에서 자라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영어를 배워야 했다. 그때까진 스페인어밖에 할 줄 몰랐다. 그래서 엄  
마가 날 2개 국어 수업에 등록시켰다.

**경기 직전의 분위기는 어떨까?**

정신없다. 우린 경기 직전에 리허설  
을 하기 때문에 맘에 쏙이 들어 있다. 경  
기 전에는 머리를 밀리고 다시 밀고,  
마스카라를 칠하고 모두 거울과 사  
투를 벌인다.

**응원을 하지 않을 때 당신이 어떨  
지 궁금하다.**

여지다운 구석은 별로 없다. 화장도  
안 한다. 챔피언을 버리고 아이리인  
만 그린다. 난 무척 단순한 편이다.



## TRACEY

WASHINGTON  
REDSKINS

➔ 치어리딩이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봤다. 몸은 상한가?

보통 사람들은 단지 예쁜 여자들이 뛰고 울직이는 게 응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응원 동작 때문에 발목, 무릎, 발이 받는 부담은... 풋볼이랑 똑같다! 새끼손가락이 부러진 적도 있다. 지금은 다리 힘줄에 쥐가 났다. 코도 두 번이나 부러졌다.

누군가 당신을 공중에서 떨어뜨리 기라도 했나?

아니다. 인공 사다리를 해제하는 도중에 어떤 여자가 팔꿈치로 내 코를 가격했다. 아... 아팠다.

라커 룸의 분위기를 묘사해달라. 춤도 추고 바보짓도 많이 한다. 장난도 친다. 다른 사람의 유니폼을 숨긴다거나 굴욕 사진을 찍는다. 밖에서 보면 좀 바보 같아 보이지만 당사자인 우리는 무척 재미있다.

같이 놀러 나가기도 하나?

물론이다. 우리 지매 같다. 같이 밤을 새우기도 하고, 자판엔 호텔 방을 잡고 황소를 타는 곳에 놀러 갔다. 다른 사람들이 노는 것처럼 본다.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넘버원 치어

리더가 되려면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하나?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 춤도 잘 추고 외모가 화려해야 하고 친화력도 뛰어나야 한다.

친화력? 장엄하건대 남자들 대부분은 당신들에게 위화감을 느낀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난 대화하기 정말 좋은 상대. 소위 말하는 '나쁜 녀(B·I·T·C·H)'은 아니라는 소리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관심을 살 수 있을까?

너무 들이대지만 않으면 된다. 유머 감각도 있어야 하고 난 조금 괴짜 기질도 있고 반장대길 잘한다. 그러니

내 말을 골방 맞받아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약간 짓궂은 것도 좋다.

라이벌 팀은 어디인가?

음 레드스킨스와 델러스 키우보이스가 라이벌이나 치어리더로서 라이벌도 델러스 치어리더들이겠지?

붙어서 이길 수 있나?

데리고 와 보라. 덤비라고 해

## → 덩블링은 어디서 배웠나?

언젠가 부모님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트램펄린을 사줬다. 동네 남자들이 와서 덩블링을 하고 했다. 나도 항상 그 녀석들이 하는 모든 것을 해내고 싶었다. 그래서 혼자 연습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공포를 이기는 거다. 뒤로 점프해 공중에 몸을 돌려야 하나까. 마음먹기에 달렸다.

## 말괄량이인가?

아렸을 때부터 익스트림 스포츠에 한창했다. 웨이크보드, 서핑, 스케이팅보드. 모든 걸 해보고 싶었다. 항상 남자들보다 더 잘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무척 여성스럽다.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것 같다. 아드레날린을 폭발시킬 수 있는 거라면 난 워든지 도전하겠지만 또 다른 여성스러운 나는 춤과 패션, 리얼리티 쇼 시청을 사랑한다.

## 남자친구의 기분을 북돋아줄 당신만의 로맨틱한 트릭이 있다면?

단지 시려 깊은 것만으로 충분하다. 뭔가 대단한 것도 아니다. 내 남자친구는 내가 롱 보드 스케이팅보드를 타는 걸 좋아하지만 열두 살 이후로는 타지 않았다는 걸 알고는 나에게 스케이팅보드를 선물했다. 커를 스케이팅보드였대! 우리 함께 스케이팅보드를 타면서 해변을 달렸다. 최고였다!

**NINA**

TAMPA BAY  
BUCCANEERS

## NUMBERS

**\*8,192**

한 해 평균 NFL에서 쓰인 경의 수

**\*11**

지금까지 경기 도중 사망한 NFL 선수

**\*1.9**

풋볼 선수 중 뇌 이상 손상을 호소하는 선수 비율(%)

**\*1,218**

연평균 러치다운 수

TM

SOUL MATE



# The Emperor

## 알렉산드로스, 그리고 나폴레옹

거침없는 정복재 알렉산드로스와 나폴레옹의 공통점을 MAXIMI 전격 공개한다. 당신이 이런 공통점을 가졌다고 거침없는 정복자가 될 거란 소리는  
아니 오해하진 말고

BY 김상현 WORDS BY NASICA



## THEY SAY!

모국어 따위 게나 쥐라

### 나폴레옹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섬 출신으로 본명은 나폴리오네 부오파르테였다.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 꼬꼬마 시절,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는 자신의 서투른 프랑스어와 촌스러운 이탈리아 이름을 버섯은 프랑스 학생을 끔찍이 미워했다. 하지만 청년이 될 즈음 코르시카섬의 권력자 파올리와 사이가 좋아져 그 형에서 퇴출당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름을 프랑스 식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 바꾸고 코르시카 병안마치 버릴 정도로 뻣속까지 프랑스인으로 변신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권력을 휘잡자 리옹 지역 시장이 아무한답시고 “장군은 프랑스인도 아닌데 프랑스를 위해 이렇게 이렇게 헌신을 하시는군요!” 라고 말하자 얼굴이 허얏게 질려 자리를 뜰 정도였다. 모국어? 게나 쥐라고 했잖지.

“헛나 파올리가  
아예 없다면 나폴레옹은  
황제가 되지 못했겠음?”



## THEY SAY!

2인자는 없다. 모두 나만 보란 말이야

###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수하엔 뛰어난 장군이 많았다. 다 부, 란, 마르모, 베르테에, 베시에르 등 모두 당대를 주름잡는 능력자였다. 하지만 누구도 나폴레옹의 라이벌이라고 부를 만한 거물이 될 수 없었다.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그의 부하를 이수위할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진 베르테에 원수조차도 “우리 의무는 나폴레옹의 뜻을 그대로 수행하는 데 있다. 비록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말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폴레옹은 공격과 영예를 나눠 갖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자신의 법상에 손을 얹는 자는 결코 용서하는 법이 없었다. 특히 자신이 제독령일 때 군부에서 영장을 얻고 있던 실력자 모로 장군을 끊임없이 끌어내 싫어했다. 모로 장군이 오스트리아와 처분 호엔린덴 전투의 빛나는 승리 때문에 자신의 마렝고 전투 승전보가 묻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결국 모로 장군은 나폴레옹의 견제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고, 이후 러시아 편에 서서 나폴레옹의 몰락에 공헌한다 대포알을 맞고 전사했다. 아쉽게도 복수는 모로 장군의 것이 아니었다.



“그냥 미국에서 조용히 사는 건데, 괜히 복수하러 왔다가 대포알에 배에 박히네. 생” 나폴레옹의 견제 대상이던 호엔린덴 전투의 영웅 모로 장군이 모로 가고 있다.

### 알렉산드로스는...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인이 아니다. 놀라게도 그리스인이 버르버로이(아인족)로 분류하는 마케도니아 출신이다. 하지만 그는 철저한 그리스 배종이었기 때문에 무력으로 그리스를 정복한 후에도 진정한 그리스의 리더로 거듭나고 싶었다(누구 마음대로). 그래서 그는 모국어인 마케도니아어는 입에 담지 않았다. 서울에 온 지방 사람처럼 흥분하거나 화가 나면 저절로 마케도니아 말이 속사포처럼 튀어나오는 걸 막을 수 없었지만 말이다. “공개 니가 어구정 강생이를 밀러야 느그 명을 내주겠다는 거서어. 사방?”

“너도 그러다가  
행방이 흑간대



▲ 영화 《알렉산더》에서 빌 게이츠 열연한 필리포스(단칸)의 사브하인 아이스맨은 어디 가고 이제 무덤 왕관 쓴 돼지 길잡이



▲ 전설적 영웅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왕은) 방패에 나무와 꼬마는 사자를 그려넣었다.

### 알렉산드로스는...

알렉산드로스대왕이 후계자를 생각하기엔 이른 나이에 요절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자존심이 강했고, 그만큼 질투심도 엄청났으며, 자신과 견줄 만한 2인자가 생긴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숙적이라 불릴 만한 상대가 생기면 반드시 그를 죽여야 직성이 풀렸다. 안타깝게도 알렉산드로스대왕의 가장 큰 시기를 받은 사람은 다른 아닌 아버지 필리포스 2세였다. 필리포스 2세가 큰 승리를 거두고 다른 지역을 정복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이러다간 아버지가 모든 지역을 정복해서 내가 정복할 땅이 남아나질 않겠다”며 길길이 화를 냈다. 결국 필리포스 2세는 암살당했는데 이 일에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관여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그는 결국 죽을 때까지 후계자가 없었고, 후계자를 정하는 자리에서도 “니들끼리 다투장 따서 썬 놈이 왕 자리 먹어”라고 했을 정도로 2인자를 만드는 걸 싫어했다.

## THEY SAY!

연방주의 참 좋는데... 이걸 알릴 방법은 없고... 연방주의가 참 좋는데...

### 나폴레옹은...

프랑스는 물론 폴란드, 이탈리아, 독일라인 연방까지 자기 손아귀에 넣은 나폴레옹은 대육군(La Grande Armée)이라는 부대에 독일과 이탈리아 출신 병사도 징집해서 편성했다. 나폴레옹은 그들이 풀 돌 통쳐 '하나로 통합된 유럽'이라는 대의를 위해 싸워주길 기대했다. 물론 그런 핑크 빛 청사진은 183년 적과 야군 양측에 독일인이 포진된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산산조각 났다. 외국인이 프랑스를 위해 싸우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후 워털루전투에 패해 세인트헬레나 섬에 유배된 나폴레옹은 유럽을 하나로 통합한, 일종의 연방제로 만들고 싶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유럽이 하나의 통화 단위와 미터법을 쓰는 연방 체제가 되어야 쓸데없는 전쟁과 반목이 사라지고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어떤가? 20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EU(유럽연합)와 비슷한 생각이 들지 않나? 나폴레옹의 야심찬 계획은 그의 몰락과 함께 안드로메다로 사라졌지만 지금의 유럽이 EU로 통합되면서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각국의 전쟁 위험이 감소한 걸 보면 그의 구상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다만 시대를 너무 앞서 앞서 나갔던 거다. 유럽이 EU를 만들기까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극약 처방이 필요했으니까 말이다.



▲ 나폴레옹의 대육군(La Grande Armée). 그러나 외국인(이) 프랑스를 위해 싸우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바게트를 더 먹어야 하나?

### 알렉산드로스는...

그 역시 자신이 정령한 제국 모두를 하나로 묶는 연방주의를 꿈꿨다. 자신이 정령한 페르시아 왕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페르시아인도 마케도니아인과 마찬가지로 제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노력했다. 페르시아의 문물과 관습을 수용하는 것은 물론 페르시아 귀족 청년들을 훈련시켜 자신의 근위대로 삼을 생각까지 했을 정도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마케도니아 장병의 분노를 샀고 민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건담 시리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방의 구성원이 늘 사이좋게 지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이다.

## THEY SAY!

신분 상승의 처음길 외국인 공주와 웨딩마치!

### 나폴레옹은...

귀족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골몰해서 망명하던 나폴레옹은 첫 황후 조세핀과 이혼하고 오스트리아 프란츠 황제의 딸인 합스부르크 가문의 마리 루이즈와 결혼했다. 나폴레옹은 두 번째 황후를 정략적으로 맞이했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다(나폴레옹이 진짜 처녀와 관계를 맺은 것은 이 마리 루이즈가 최초였다는 설도 있다. 물론 그는 이전에도 수많은 여자를 상대했으니 모두 다른 남자의 부인이거나 정숙하고는 입을 쓰고 지낸 귀부인의 시녀였다). 나폴레옹은 마리 루이즈와 결혼한 후 자신이 부르봉 왕가의 조카이며, 카이사르의 피를 수혈 받았다는 등 동등한 낫부르려운 말을 신하와 외국 대사에게 늘어놓을 정도로 자신의 신분 업그레이드를 민족스러워했다. 이미 황제였던 그가 말이다

스의 딸 스타테이라에게 정착했다. 페르시아를 정령하긴 했지만 당시 알렉산드로스대왕의 마케도니아는 문화나 경제 수준에서 페르시아와 비교하면 들보집 수준이었다. 그는 페르시아와 아시아 지역에서 단순한 외국인 정복자가 아니라 진정한 디리우스의 후계자가 되고 싶었다. 그렇기 때문에 디리우스의 사위라는 신분을 추가했다. 그리고 보면 32세에 오질한 시말치고는 '대왕' 담게 결혼도 여러 번 했다. 당신도 본받らん 말이다.



▲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 황녀를 처음 맞이한 날. 코르시카 공주네로 나폴레옹은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공경 황녀와 땀배질!

### 알렉산드로스는...

그의 첫 여자는 페르시아 왕의 부하로 있던 아테네 제독 엠논의 미망인이었다. 이후 박티아나 귀족의 딸 록산네를 거쳐 미트라코트로 페르시아 왕 디다우

## SYNCHRO POINT

### 이런 것까지 닮았더라!

나폴레옹과 알렉산드로스대왕이 닮은 게 또 있기 나래



▲ 나폴레옹을 구슬리거나 함박했 소 있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 메테르니히

### 자식 북 없는 아버지

나폴레옹의 아들이자 오스트리아 황제의 손자인 나폴레옹 2세는 평생을 오스트리아가 장자가 메테르니히의 감시를 받다가 굶다 나이 22세에 결혼으로 사망했다. 그는 프랑스 황제의 아들인데도 프랑스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알렉산드로스대왕의 아들은 그보다 더했다. 결혼이나 못 매는 아가일 때 후계자 싸움으로 실패당했다.



▲ '베산자의 후손이던 줄 아메?' 내가 바로 스웨덴의 강왕령, 구스타프하고도 16세대

### 돌어나가 왕으로!

나폴레옹 부하 베르나도트는 그를 베산한 대가로 스웨덴의 왕가를 14세 자리를 거머쥐었다. 지금의 스웨덴 왕가가 바로 이 베르나도트의 직계 후손이니 그의 선택은 정말 탁발했다. 알렉산드로스의 부하 중에서도 왕이 나왔다. 안티고누스는 마케도니아 안티고누스는 시리아,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에서 각각 자신의 왕국을 세웠다. 콜로메르트라가 바로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직계 후손이다.



### 이집트 정복!

▲ 나폴레옹과 알렉산드로스대왕 모두 이집트를 정복했다. 이집트는... 무슨 친가

NEGOTIATION SPECIALIST

# YOUR TONGUE IS BEST WEAPON!

# 협상의 길



저자 김상헌  
일러스트 JACOB  
디자인 노가다 이은학

“삶이란 협상의 연속이 아니던가! 협상 능력을 갖고 닦아 원하는 걸 손에 넣어라. MAXIM이 친절하게 상황별 대처법을 알려주겠다. 남은 건 닥치고 실천하는 일뿐이다.”

2010년!!  
와이미디어 상반기  
베스트셀러!

MAXIM KOREA



## Case 1 교통경찰을 설득하라!

**포지션** 자극히 양심스러운 운전자  
**목표** 벌금에서 탈출하기!  
**위험 요소** 교통경찰의 삐뚤어진 마음. 그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게 할 것. 재수 없는 핑새라도 일단 그는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는 게 급선무다(나무 마음을 연 나머지 그는 바지 지퍼까지 무장 해제할 필요는 없다).

**GOOD** 미안하다는 삐꾸기를 날리는 건 기본. 여기에 슬며시 "경관님, 혹시 MAXIM 좋아하세요?"라는 질문을 던져라. 열에 아홉은 "물론이요"라고 답할 거다. 저, 8부 능선은 넘었다. 이제 군대 시절 MAXIM을 보며 성난 돌풍이름 불태운 추억담을 늘어놓자. 미션 컴플리트! 이미 그는 당신의 전우가 되어있다.

**BAD** 돈을 뱉어준다. 씹어빠진 경찰이라면 돈은 돈대로 주고, 벌금은 벌금대로 물어야 할지도 모른대기론 나쁜 건 덩이다. 깨끗한 경찰에게 돈을 뱉어준다면? 축하한다. 이로서 당신은 교통 벌금 이 외에 내야 할 벌금을 하나 더 추가했다. 전쟁



## Case 2 가망 없는 프로젝트에서 탈출하라!

**포지션** 가망 없는 프로젝트에 초대받은 남자 / **목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탈출하기

**위험 요소** 당신의 의도를 들킨지 몇 달 할 프로젝트에 당신을 끌어놓은 그들을 속이만 말이다. 그러려면 일단 당신이 프로젝트에 의욕이 넘치는 것처럼 행동해야겠다.

### GOOD

초반 3일 동안 업무를 파악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라. 4일째가 되면 상사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프로젝트를 온전히 마무리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태산이다. 요즘 집에서도 발잡을 이루지 못하기 일쑤다"라고 이야기하라. 스트레스 때문에 당신 머리털도 가늘할 지경이던 양념도 집과 회사에 골고루 뿌려줘라. 5일째가 되면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프로젝트입니다. 회사에 누가 될 수 없으니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라는 편지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다. 업무 종료 사정 즈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핵심! 그래야 사직서는 바로 처리되지 않고, 당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 BAD

상사를 찾아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팀원이 날 믿지도 못하고, 일도 엉망진창으로 굴러간다. 처리라 날 다른 팀에 보내달라. 그곳에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해보겠다. 이 프로젝트는 굴러먹었다." 속하한다. 당신은 프로젝트에서 탈출했지만 회사에서 불명불만만 떠어놓는 개병신 같은 눈으로 낙인찍혔다. 아예 만족스럽나?



## Case 3 중고차를 질러라!

**포지션** 해맑은 중고차 구매자

**목표** 바가지 가격에서 탈출하기

**위험 요소** 승상이 같은 중고차 시장 딜러들! 마음에 드는 차를 발견한 팀을 냈지만 그들의 먹잇감이 될 거다.

### GOOD

당신이 마음에 드는 차를 발견한다. 중고차 딜러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빙고" 바로 이 차다. 가격을 물어보니, 그는 당연히 싸하게 값을 부를 거다. 차의 가격을 3,000만 원 정도 불렀다면 신경 쓰지 마라. 최소한 6분의 1 정도의 금액을 뺀 2,500만 원 정도에 차를 사겠다고 주장하라. 군소리 따위 무시하고 같은 대답을 반복하면 지친 중고차 딜러가 "그럼, 2천 7백만 원 정도로 합의하자. 나도 노마진이다!"라고 말할 거다. 이때가 찬스다. "2,500만 원이려면 바로 지르겠지만 2,700만 원이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그럴 거면 다음 기회에 사겠다고 받아쳐라. 이것으로 협상은 당신의 승리로 종료! 괜찮은 중고차를 만족스러운 가격에 알게 될 거다. 현찰의 위력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니까."

### BAD

중고차 딜러가 적극 추천하는 차를 고른다. 손에 불이 날 정도로 비싼대도 대가로 딜러가 말한 금액의 10분의 1 정도를 겨우겨우 깎은 다음 현찰로 구매한다. 속하한다. 당신은 그 딜러가 어떻게든 처리하고픈 골칫덩어리에게다가 하지 않는게 시세보다 싸하게 영업했다. 빌어먹을.





## Case 4 강도에게서 벗어나라!

**포지션** 돈 뽑지마자 달리는 채수 없는 놈

**목표** 달리고, 또 달리는 것만은 막자!

**위험 요소** 강도의 놀란 미음, 당신의 땀지도를 타는 강도도 풀기 마찬가지다. 괜히 오버해서 강도를 자극하면 시원한 칼행을 선물받게 될 거다.

**GOOD** 강도가 당신의 돈과 귀중품을 다 탄 후 통장의 돈마저 토해내라고 종용한다. 이럴 땐 "카드 한도 초과다. 너한테 준 게 마지막이다. 먹고 죽으려도 돈이 없다"고 과감히 말하라. 그래도 믿지 않으면 현금 지급기에서 비밀번호를 의도적으로 잘못 입력하라. 한도 초과로 인출 불가인 것처럼 보이는 게 포인트. 3회 정도 잘못 눌러 주면 자연스럽게 지급 정지가 될 테니 강도가 당신 카드로 돈을 뽑고 싶어 헛기름이 나도 손 쓸 방법이 없다.

**BAD** 약에 편 강도를 만난다. 앞서 언급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 축하한다. 당신은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미친놈을 자극한 대가로 시원한 칼행을 선물받을 거다. 돈이 아무리 중해도 허벅지에 없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사실을 명심하자!

## Case 5 인질을 구출하라!

**포지션** '어쩌다 우연히' 인질범을 마주한 '남자'

**목표** 일단 인질부터 구출!

**위험 요소** 인질범을 무시하는 행동, 그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인질범의 목숨은 안드러머디행 금영철차를 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GOOD** 인질범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상황을 주도하라. 인질범의 요구를 들어 줄 사람이 당신뿐이란 사실을 그놈 머릿속에 심어줘라. 당신의 언어력을 대폭발시켜 정보를 수집하는 건 필수대(다시인사이드에 그놈 사인을 투척하라). 이와 동시에 그놈의 마음을 돌릴 사람(보통 가족이나 헤어친 연인을 찾는다. 남은 건 그들을 이용해 범인의 미친 짓을 관두게끔 설득하는 일이다).



**BAD** 범인의 무리한 요구에 당신은 짜짜기 든다. 범인 따위 가볍게 때려잡은 후 인질을 구하겠다는 언사를 내버린다. 이를 눈치를챈 범인은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인질은... 축하한다. 당신의 끝난 행동 때문에 잡혀 있던 인질의 목숨은 '한방에 흑 갔다!'

### HUMAN UNICORN

## 교통사고가 떴다

고만하지 말고 아래의 행동 강령을 따라할 것! 아무보록 당신에게 넉넉한 배행금이 함께할 것! 빈대장기구독 문의는 02-323-1182.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뭘먹을 잡고 차에서 내리는 건 한순간 트랜드다. 이때는 경음기(라고 쓰고 쿨럭스이라고 부르는)에 해당하는 게 대세다. 당신이 실재 차량을 해고자만 주저해 이렇게 행동하면 대명망하는 지름길이나 주의할 것.

### STEP1

(타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다. 축구공에 해당하듯 경음기(쿨럭스)를 향해 당신의 얼굴을 날리란 말이다.

### STEP2

"헤어이런!"이라는 소리가 들렸어? 성당이다. 이제 당신의 정신을 (드래곤 불)에 나오는 '시간과 공간의 방으로 보내라. 더 이상 생각 따윈 무용하다'

### STEP3

주변이 웅성거리도록 절대 고개를 들지 마라. 응급차를 타는 순간까지 당신은 기절 여부와 상관없이 기절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 STEP4

병원에 편하(?) 누워 보험금을 타며 그간 못 누린 휴가를 실컷 즐긴다. 시간이 남거나 심상하다면 MAXIM 10월호를 정주행할 것.

# 괴물

오늘도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재능을 발휘하며 인간을 잡아먹고, 가두고, 괴롭히는 괴물들에게 상을 내릴지나. 칭찬은 괴물도 춤추게 한다. BY 2012년



## 최고의 두뇌상

수상자: 그렘린 / 국작: 영국  
거주자: 전 세계, 주로 비행기 안  
선정 이유: 당신보다 잘 돌아가는 머리

“귀찮게 하다” 한 고대 영어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키 15~50센티미터로 루저 오브 루저들이다. 친구야! 수령 5~10년. 기계에 박식해 기술자들이 새로운 기계를 발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기계를 부수고 고장 내는 심술을 부리기도 한다. 그래서 기계가 이유 없이 고장 날 경우를 일컬어 ‘그렘린 효과’라고 한다. 당신이 받아놓은 아들이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면 다 이놈 탓이다(절대 엄마 탓이 아니다).

## 최고의 소심상

수상자: 우리아쉬  
국작: 루마니아 / 거주자: 산  
선정 이유: 예측 불가능한 이유로 토라짐

산과 신을 한결같은 건너는 어마어마한 덩치. 원래 우리아쉬는 인간들과 사이가 좋았다. 그러나 어떤 인간이 뜨거운 음식을 식히기 위해, 추운 날씨에 언 손을 녹이기 위해 호호 입김을 불지 우리아쉬가 불같이 화를 내며 인간을 이중인격자라고 몰아세웠다. 이유인즉슨(음식물) 차갑게 할 때도, (손을) 뜨겁게 할 때도 똑같이 ‘호호’ 입김을 부는 것은 위선적인 행위라는 거다. 결국 인간과 우리아쉬의 사이는 나빠졌다. 도대체 뭐가 문제!?

## 최고의 협동상

수상자: 백두동물 / 국작: 중국 / 거주자: 북명 / 선정 이유: 한 몸에 조화롭게 / 붙어 있는 100개의 머리  
개, 인간, 돼지, 호랑이, 새 등 100가지 동물의 머리가 한 몸에 달렸다. 이 괴물은 전생애 머리 좋은 승려였다. 자 신보다 머리가 좋지 않은 친구들에게 개, 대가리, ‘새 대가리’ 등 동물을 따부는 업보로 그는 다음 생애 목에 포함된 모든 동물 머리를 달고 태어나 그 지경이 되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친구들에게 ‘이 란친 같은 놈’, ‘이 장 동건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는 거다.

## 최고의 짜증 유발상

수상자: 맨드라고라  
국작: 유럽 / 거주자: 처형장  
선정 이유: 뒷집 초딩  
과 동일한 대사법의 비명

인간처럼 생긴 식물이다. 암컷은 검은색이고, 수컷은 흰색이다. 맨드라고라는 뽑을 때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대는데, 비명이 어찌나 크고 신장질적인지 듣는 사람을 미치게 한다. 냄새도 강해 이를 맡으면 병어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잘 캐면 향유를 가져다준다.

## 최고의 가수상

수상자: 만티코어  
국작: 페르시아  
거주자: 인도 정글  
선정 이유: 현상과 전혀 다른 맑고 고운 음성

붉은 사자의 몸통과 발, 인간의 얼굴. 웅(혹은 전갈)의 꼬리와 가시. 파란 눈. 세 겹의 차이를 가졌다. 키는 2미터 정도. 독을 이용해 인간을 잡아먹는다. 생강나무 식성과 달리 노래를 잘 부른다. 소리는 맑고 굽다. 노래를 담당하는 멤버가 외로운 별이라는 아이돌 그룹의 법칙은 고대부터 내려온 절대 진리일지도.

## 최고의 똥장녀상

수상자: 뷔브르  
국작: 프랑스  
거주자: 나무 위  
선정 이유: 보석에 대한 강한 집착

똥의 동통에 박쥐 날개가 달렸다. 주로 밤에 활동한다. 밤만 되면 몸을 핏겨 마신다. 보석을 너무 좋아해서 눈에 아예 다이아몬드를 박았다. 몸을 마실 때 보석 눈이 물에 떨어질까 봐 보석 눈을 떼놓는다. 그러다 도둑맞는 경우도 많다. 가끔 병을 치료해주기도 하지만 성격 자체가 번카스럽고 포악해서 이유 없이 사람을 공격하기도 한다. 어디서 많이 본 행동인가? 낯선 뷔브르에서 내 여자의 핏기를 맡았나?

## 문보살 특별상

수상자: 깃파  
국작: 일본  
거주자: 일본의 늑치리  
선정 이유: 문보살님과 동일한 식성

원숭이의 몸통, 개구리의 다리, 거북의 등갑질을 가졌다. 머리에 큰 구멍이 있는데, 구멍에 물이 차 있지 않으면 죽거나 힘이 약해진다. 깃파는 벌식으로 일하거나 동물 내장을 빨아 먹는다. 주식은 오이. 오이를 주면 공격하지 않고 잘해준다. 당신 내장을 노리는 것따에게 인사를 하자. 깃파는 공손한 괴물이기 때문에 따라 인사하게 되고, 머리에 담긴 물이 쏟아지면서 파워도 없어진다.

## 팬싱어미 바로잡기 협회 특별상

수상자: 반니크  
국작: 동유럽(및 슬라브 지역)  
거주자: 더러운 물속  
선정 이유: 관대한 식성

수염과 머리카락이 온몸을 덮을 정도로 길다. 개 미터로 육초 크기와 비슷하다. 옛날에는 육초에 물을 받아 여러 사람이 그것을 이용했는데, 물이 더러워졌을 때 반니크가 등장한다. 그가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땀, 머리카락, 비누, 손톱, 욕실이 깨진 화장품을 낸다. 공방에서 공을 굴리라는 팬싱 아동을 대상으로 반니크 특별 초청 강사가 있을 예정이다.

## MAXIM 특별상

수상자: 주주파리  
국작: 헝가리  
거주자: 농장  
선정 이유: MAXIM에 필요한 인재

2미터가량의 장신. 두꺼비와 얼골을 하고 있다. 끊임없이 일을 쫓아 말병을 부리지 않는다. 장강이라도 일이 끊기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다. 주주파리, 내 일으로 들어오소.

응, 철수! 보람 있어

영화야, 오늘도 열심히 로딩했어?



인생은  
나그네 같~.

### 최고의 드라마상

수상자: 불가사리

국적: 한국 / 거주자: 대륙

선정 이유: 비련의 여주인공과 같은 억울한 삶

전쟁 때 남편을 잃은 여인이 뱀뿔을 뚫어 만든 인형이다. 이 인형이 디라방의 쇠조각을 먹고 커진 것이 불가사리. 항, 화살 등으로 죽일 수 없다 하여 불가사리란 이름이 붙었다. 찹을 먹기 때문에 육을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뽕이 단단하다. 하지만 불로 죽일 수는 있다. 그가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인기를 얻자 이에 질투심을 느낀 왕이 불가사리를 만든 아줌마를 인질로 삼아 불가사리를 유인한 후 죽였다. 한국은 괴물초차도 한이 없어라.

### 최고의 왕대가리상

수상자: 카토블레피아 / 국작: 이티오피아

거주자: 산속 / 선정 이유: 머리가 크다!

물소의 몸통과 돼지의 얼굴을 가졌다. 온몸이 비늘이 붙어 있다. 이 괴물과 눈이 마주치면 돌로 변한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 대가리가 크고 무거운 항상 대가리를 꼭 숙이고 다닌다. 아랫가나 소와 돼지고기를 한꺼번에 즐기게 해주니 꼬마를 따름.

### 최고의 스텔상

수상자: 트롤

국적: 북유럽(스칸디나비아, 스코틀랜드)

거주자: 산 / 선정 이유: 스텔~

괴물 중 가장 지저분하고 냄새가 고약하다. 날 피리가 꼬이는데, 피리의 개체 수가 많은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가장 많은 피리를 데리고 다니는 놈이 우두머리가 된다. 당연히 물을 싫어하고, 물이 몸에 닿으면 피부가 타버린다. 참고로 스코틀랜드의 트롤이 스칸디나비아의 트롤보다 연약하지만 대신 더 괴양이 있어 음익을 즐길 줄 안다.

### 최고의 사회 활동가상

수상자: 탈로스 / 국작: 그리스

거주자: 크레타 섬 / 선정 이유: 최다 프리 하고



고마 내 몸에  
확인가소.

탈로스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몸을 뜨겁게 만든 후 인간을 꼭 깨어 죽인다. 이 놈의 발뒤꿈치에 바늘 못을 빼면 못으로 막아놓은 구멍에서 물속 날 성령이 모두 빠져나와 죽는다.

똥가든



### 최고의 패륜아상

수상자: 커포커우니

국적: 루마니아

거주자: 산

선정 이유: 엄마를...엄마를...  
창조자와 악마가 서로의 모습을 보고 만든 각각의 피조물을 하나로 합쳤다. 반은 창조자인 인간의 모습, 반은 악마인 개의 모습을 하고 있다. 눈은 5개, 입은

2개, 발은 7개 달렸다. 주식은 인간. 어느 날 커포커우니 형제가 잡아온 인간 소녀를 엄마에게 요리해 달라고 부탁한 후 나갔다. 혼자 남은 소녀는 피를 부려 엄마 커포커우니를 자기 대신 아궁이에 집어 넣는다.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는 잘 삶아진 엄마가 커포커우니를 먹는다. 엄마.. 나 무서워!

수줍♡

### 최고의 스토커상

수상자: 하이드비하인드

국적: 미국 / 거주자: 숲 속

선정 이유: 몰래 인간을

따라다니며 공격하는 어비범

주로 인간의 뒤에 숨는다. 이상한 기세를 느낀 인간이 오른쪽으로 뒤돌아보면 왼쪽으로 뒤돌아보면 오른쪽으로 재빨리 숨는다. 어렸을 때 했던 '갑돌이와 갑순이' 율동도 이보다 유쾌하지 않을 거다. 아무튼 이렇게 인간을 쫓다가 부지불식간에 공격해 굴로 끌고가 잡아먹는다. 꼬리가 달려 있어 숲 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낸다. 맞아, 꼬리는 가끔 이상한 소리를 내지. 탁탁탁..



### 최고의 상팔자상

수상자: 나가 / 국작: 인도 / 거주자: 궁전

선정 이유: 뱀 필자가 상팔자

인간 얼굴, 코브라 목, 뱀의 몸통을 가졌다. 바다나 강 아래 있는 낙원에서 산다. 이놈이 시는 공전은 온통 보석으로 차장되어 있다. 하는 일도 없이 춤과 노래로 하루를 보낸다. 사사.. 좋겠다.

### 최고의 비호감상

수상자: 촌촌~

국적: 칠레, 페루 등 남아메리카 / 거주자: 저세상

선정 이유: 보통 비호감은 이유가 없다



수상자: 촌촌

국적: 칠레, 페루 등 남아메리카 / 거주자: 저세상

선정 이유: 보통 비호감은 이유가 없다

몸 전체가 인간의 머리다. 양옆의 큰 날개 역활을 한다. 날 때 '촌촌'에, '공공', '딱딱', '촌촌' 등 다양한 울음소리를 낸다. 촌촌은 누군가 자신을 해코지하면 반드시 받은 대로 돌려준다. 자주를 내려 자신을 괴롭힌 인간의 머리를 저러는데, 잘린 머리는 또 다른 촌촌이 되어서 저세상과 이 세상 사이를 떠돈다. 촌촌~ 촌촌~

### 최고의 노쳐녀 히스테리상

수상자: 하르피아

국적: 그리스

거주자: 흑해 해안 산속

선정 이유: 완벽한 노쳐녀

의 조건

상반신은 마귀 할매. 날개를 포함한 하반신은 독수리 몸 달았다. 생김새가 더럽고 추잡스럽다. 스텔이 강해 배 먹을 것을 뉘ذن다. 쓰레기 데미에서 발건넌 색은 꼬기도 그냥 먹는다. 다른 노쳐녀와 달리 변변는 없다. 대신 실사를 한다. 양모



나 한 입만!

### 최고의 분비물상

수상자: 보나르 / 국작: 파미오니아 / 거주자: 산

선정 이유: 모든 걸 태우는 강한 불뿔

황소와 비슷하다. 초식동물이지만 그렇다고 민만하게 보면 안 된다. 보나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적의 얼굴에 똥을 싸주른다. 똥이 공기와 접촉하면 강력한 불꽃이 형성된다. 그냥 똥도 더러운데, 그걸 보나르, 나 똥 굴다.



똥질라 파웨!

네 여자겐  
따뜻하지

### 최고의 도시 남자상

수상자: 고블린  
국적: 불명  
가주자: 여자기  
선정 이유: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차가운  
고대 괴물



성질이 더럽고 교활하다. 다른 종족과 싸울 때 수자로 밀어붙일 정도로 집단의 힘이 강하지만 막상 알고 보면 자기네들이 잘 싸우지 못하네 우두머리도 개무시하다. 수명은 30년 정도지만 딱을 많이 치고, 새끼도 빨리 낳아 번식력이 뛰어나다. 인간과 딱을 치기도 하는데, 정상적인 인간 아기가 태어날 경우는 드물다. 요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엘프를 무서워한다(중).

### 최고의 입상상

수상자: 조브라틀  
국적: 루마니아  
가주자: 불명 / 선정 이유: 여자를 잘 꼬신다



원래는 금발의 뱀. 용의 형상이나 밤에는 잘생긴 눈으로 변해 여자를 꼬신다. 당시는 골인하기 힘들었을 때 마귀 딱딱질도 이놈은 쉽게 성사시킨다. 그것도 어린 사춘기 소녀들이나 갖 걸쭉한 새색시와 이놈과 동침한 여자들은 상사병에 빠져 이놈을 그리워한다. 이 말할 놈의 새끼

### 최고의 왕따상

수상자: 우로보로스 / 국적: 불명 / 가주자: 불명  
선정 이유: 혼자서도 잘해요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어 시작과 끝이 불분명한 원의 형상을 하고 있다. 영원. 자해. 제로. 악마 등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홀로 자신을 창조했고, 자신과 결혼했고, 임신했고, 스스로 죽는다. 술로상을 받은 니스나에게 거절당했다면 우로보로스에겐 혼자 사는 법을 배워라.

### 최고의 오컬트상상

수상자: 에카트라 / 국적: 그리스 / 가주자: 불명  
선정 이유: 스킬 넘치는 오컬트 섹스

상반신은 아라피온 여자로, 하반신은 살무사다. 암컷은 생식이 불가능해 입으로 수컷의 음경을 빨든다. 음경을 빨다가 유입이 수컷의 거시기를 끌어들이 죽인다(입맛에 안 맞았겠지). 다 자란 새끼들은 어머니의 살갓을 핥고 나오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죽는 쿨루루 집안이다.



### 최고의 불굴의 의지상

수상자: 형천 / 국적: 중국 / 가주자: 상안산  
선정 이유: 안 나오면 쳐들어가지 않고 나를 때까지 노래를 부른다

음악의 신이다. 우두머리 신과 싸우다가 머리가 날아갔다. 우두머리 신은 형천이 다시 머리를 찾아 낼까 봐 땅속 깊이 머리를 묻는다. 자생 능력이 강한 형천은 짐작하지 눈으로, 배꼽을 입으로 모양을 바꾼다. 싸움을 끝낸 우두머리 신이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음에도 그와 다시 싸우기 위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쿠파차 쿠파' 위 이런 노래겠지. 형천. 아무도 없으니 이제 그만하게.

### 최고의 슬로상

수상자: 니스나스 / 국적: 예멘  
가주자: 산림 / 선정 이유: 반쪽밖에 없다

홀로 고독하게 산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쪽밖에 없다. 죽는 가슴, 팔, 다리 등이 한쪽밖에 없다는 말이다. 존재감도 없다. 성질이 더럽거나 무섭지도, 착하고 순하지도 않다. 말수도 적다. 생을 함께할 반쪽을 찾고 있을 당신, 니스나스 어때? 단, 당신의 몸도 반으로 잘라야 한다.



### 최고의 조합상

수상자: 미르메글레온  
국적: 불명 / 가주자: 불명  
선정 이유: 사자의 머리와 개미의 몸통이러니!



사자와 개미의 교미로 태어난 이 괴물은 두 동물의 특징을 모두 지녔다. '사자의 거시기가 개미보다 더 큰데 어떻게?'라는 의문은 접어들어. 어차피 신화 속 괴물이다. 사자라서 풀도 못 먹고, 개미라서 고기도 못 먹는다. 그래서 굶어 죽는다. '응, 그런데 개미도 육식을 하는데?'라는 의문 역시 접어들...긴 필 접어줘! 이긴 너무 허접스럽잖아!

일부!

### 최고의 무뇌상

수상자: 제강 / 국적: 중국  
가주자: 하늘나라의 신속  
선정 이유: 뇌가 없다

다리 6개. 날개 4개. 머리는 없다. 정자의 책에서는 '혼돈'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혼돈은 세계 중앙 지역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남해와 북해를 다스리는 왕과 친했다. 남해 왕과 북해 왕은 혼돈에게 친선함의 표시로 보고, 듣고 먹고, 술집 구멍을 7개 뚫어줬는데, 혼돈이 죽어버렸다. 이럴 때 우리는 '나대지 마라'는 말을 사용한다.

말말이는  
왼쪽 두 발이  
2배대로!



### REAL LIFE MONSTERS

### 괴물...까진 아니고

괴물은 이제 저거를 테니 현실로 돌아와라.

#### 3위 눈 없는 구렁이



눈에 보이는  
게  
없!

중국 80년 선 왕정 시의 80년 구렁이 연구소에서 태어난 눈 없는 구렁이 2마리. 눈 없는 구렁이가 태어날 확률은 하버드대 입학 경쟁률보다 셀 100만분의 1, 가깝다. 3쌍!

#### 2위 꼬 없는 돼지



꼬 후비고  
싫어하!

중국인 평 양생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꼬 없는 돼지가 태어났다. 외형으로 보지 않지만 입 안쪽에 어렸던 꼬가 있으니 생형 화들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데 우리 그림 꼬자 사생 때든 어디로 넣어야 해?

#### 1위 머리 없는 닭 마스코트



닭 대가리 같은  
계집애!

1945년 로이드 올슨은 닭의 목을 도끼로 잘라냈는데, 머리가 잘렸음에도 닭은 살아 돌아왔다. 조년 신화 행어 올슨은 닭에게 마스코트 이빨을 붙인 후, 손 배터에 이용했다. 1947년, 불행한 마스코트 출신 공연을 끝내려 돌아오다 죽었다. 됐지? 대가리는 중요한 게 아니다!

# STYLE





# Trench Coat

BY 고희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ASSISTANT 조장민  
COOPERATION Ermenegildo Zegna

트렌치코트를 소유하고 있나? 그렇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갖는다. 가제트 형사처럼 의상 속에 숨겨둔 비밀 병기는 없어도, 다른 어떤 옷과도 멋스럽게 매치할 수 있으니 그 위력이 대단하다. 번덕스러운 패션 역사 속에서도 꾸준히 사랑받아온 트렌치코트는 울가를 더욱 특별해졌다. 클래식한 디자인부터 새로운 유행 아이템이 접목된 스타일. 여기에 유명 디자이너와 합작해 다양한 색감과 디자인으로 기본 형태와 패턴을 변형한 녀석까지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 오랫동안 입을 생각이라면 색감과 디자인은 무난한 것을 고르되 개성을 살리고 싶다면 소재에 변화를 주자. 감정색 가죽 소재 제품은 당신을 남자 중에 남자로 만들 것이다. 이제 당신은 코트 속 비밀 병기만 챙기면 된다. 여자가 좋아하는는 그거 있잖아. 그거.

군더더기 없는 기본 디자인에 탈착 가능한 판츠 디테일을 가미했다. 부드럽게 가공된 양가죽 안에 피스한 모직을 덧대었다. 가격 미정. Ermenegildo Zegna

# Fall



원본)  
 이따개 투톤 깃털 장식  
 가격 미정 BELL&NOUVEAU  
 곁장색 가죽 조끼  
 154,000원 CHEAP MONDAY by LULU  
 팔 부분이 벗어진 디자인에 깊은 색 데님 셔츠  
 134,000원 CHEAP MONDAY by LULU  
 곁장색 청바지  
 가격 미정 codes combine for men  
 북서문의 모던트를 준 운동화  
 149,000원 Creative Recreation

오른쪽)  
 그래픽이해진 선글라스  
 가격 미정 Aden Kudo by ALO  
 반석 가죽 재킷  
 960,000원 SYSTEM HOMME  
 밝은 회색 반츠에 티셔츠  
 39,000원 codes combine for men  
 님타색 청바지  
 59,000원 codes combine basic+  
 가죽 부츠  
 가격 미정 KISSA HOMME  
 님트 머플러  
 75,000원 TOMMY HILFGER DENIM

# Out B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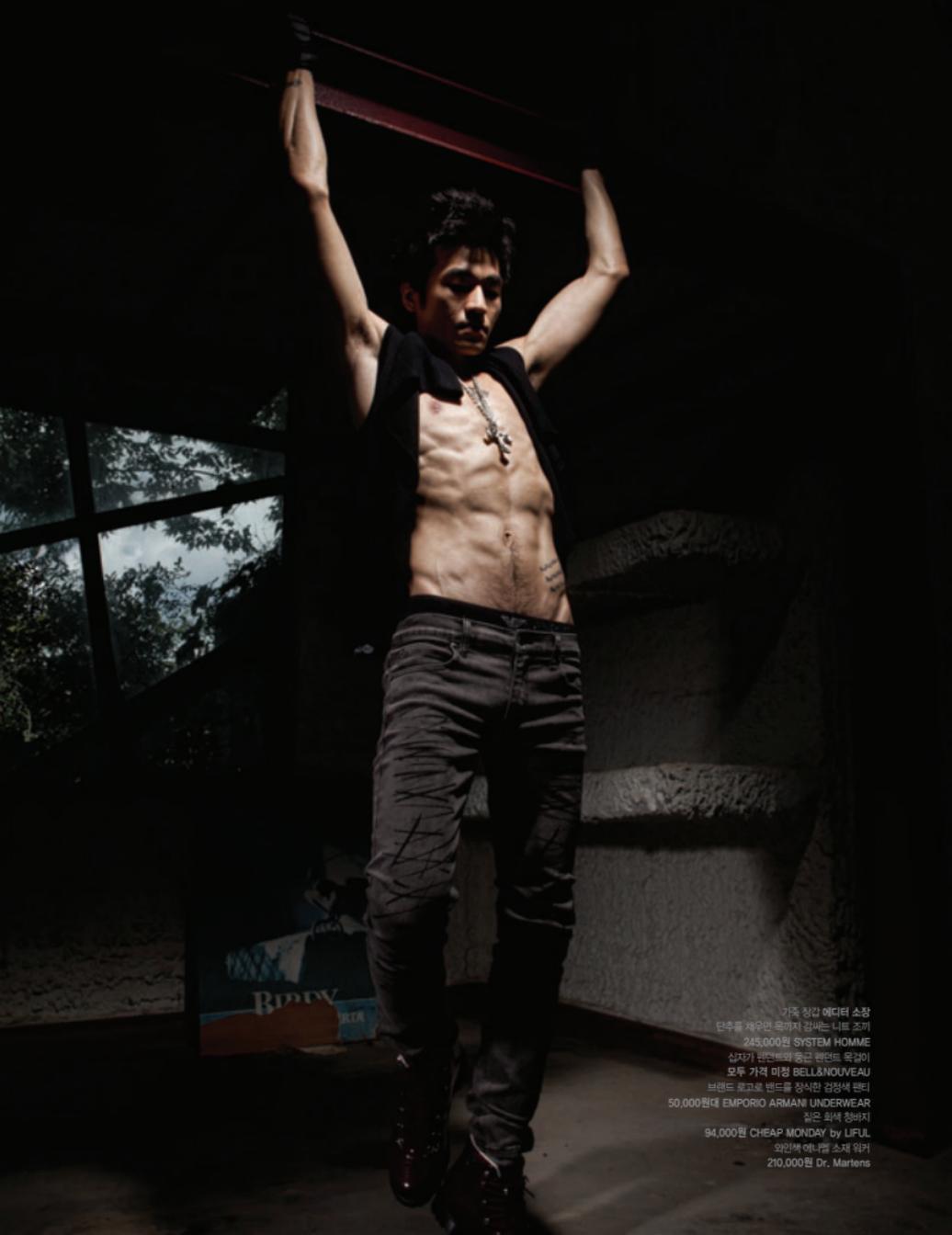
여름은 끝났지 오래, 굳이 이 시점에서 자연어를 실패한  
가을을 몇가지 아이템으로 저질 몸매도 가리고  
가족, 니트, 데님 소재와 채킷 점퍼, 민바지, 체크무늬  
몸 만들기를 시작하려는 건 아니겠지?  
멋쟁이란 소리도 좀 들어보자,  
워커만 있다면 이미 가을은 당신 것이다.

BY 곽원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이도우 MAKE-UP 곽영은  
MODELS 이형민, 홍영우 ASSISTANT 조정민



검정색 가죽 모자 가죽 팔찌 골드 브로치 샤프 버튼  
모두 가격 미정 JEMESSELL  
소재 끝 안감이 정제해 보이는 일리타리 재킷  
378,000원 HAZZYS  
국방색 연바지  
245,000원 SYSTEM HOMME  
발목까지 올라오는 운동화  
47,000원 CONVERSE





가죽 장갑 에디터 소장  
단추를 쳐우면 목까지 감싸는 니트 조끼

245,000원 SYSTEM HOMME

신자가 편안하고 둥근 벨런드 목걸이

모두 가격 미정 BELL&NOUVEAU

브랜드 로고로 벨트를 장식한 검정색 반티

50,000원대 EMPORIO ARMANI UNDERWEAR

짙은 회색 청바지

94,000원 CHEAP MONDAY by LULU

와인색 예나플 소재 워커

210,000원 Dr. Martens



컬러채의 젊은 화제 줄무늬 모양의 배니  
가격 미장 codes combine for men  
국방색 바림아이 장미  
100,000원대 adidas NEO  
스타드 장식의 데님 셔츠  
278,000원 REPLAY  
7부 레귤러 티셔츠  
39,000원 T-REVEL by LIFUL  
독특한 프링들이 돋보이는 젊은 화제 장바지  
94,000원 CHEAP MONDAY by LIFUL  
장장이 보츠다  
17,000원 ReelBok  
유망 컬링색 워커  
235,000원 Dr. Martens

보라색과 회색의 조화기 아우라진 점퍼

가격 미정 LIFUL

수납공간이 넉넉한 백팩

189,000원 T-LEVEL by LIFUL

말린 등산 조끼를 수 있는 면바지

230,000원 SYSTEM HOMME

오렌지색 상급편이 보인트인 보라색 워커

100,000원 adidas Originals





검정색 선글라스  
650,000원 MYKITA by ZO  
줄무늬 니트  
69,000원 codes combine basic+  
검정색 굽리브  
69,000원 Reebok  
국방색 카모바지  
245,000원 SYSTEM HOMME  
체크 무늬 워커  
140,000원 Dr. Martens

C O O P E R A T I O N S codes combine for men, codes combine basic+, EMPORIO ARMANI UNDERWEAR, Kai saakmann, Calvin Klein Jeans 02-3446-7725) adidas Originals, GOURMET by PLATFORM, A.P.C. 02-3447-7701)  
Creative Recreation 02-3443-1703) Adren Kudo by A.L.O. C.P. COMPANY, KISSA HOMME 02-3446-9949) SYSTEM HOMME, TOMMY HILFGER DENIM, HATZYS, CONVERSE, REPLAY, HEADLINE 2138-7769) BELLANOUVEAU 02-517-5521)  
JEMIE BELL 070-8247-7834) Dr. Martens 02-431-2582) Reebok, MYKITA by L'FUL (www.winterbususa.co.kr)



**청문 (복)**

매일 장식의 가죽 모자

가격 미정 BELL&NOUVEAU

단추 여밈을 시선으로 비대칭하게 디자인된 재킷

가격 미정 Kai-aakmann

의상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청바지

가격 미정 Calvin Klein Jeans

적화감이 좋은 신발

200,000원대 GOURMET by PLATFORM

**밥**

눈이 시릴 정도로 선명한 빨간색 배낭백이 장미

가격 미정 C.P COMPANY

레안색 반스레 티셔츠와 속이 비칠 정도로

성글게 랩 나뭇가 해너로 구성된 반스레 티셔츠

169,000원 SYSTEM HOMME

생지 데님 원츠

269,000원 A.P.C

노란색 끈이 포인트인 파란색 운동화

83,000원 HEAD

# STYLING TIP

## STEP 3. Vintage

진정한 멋쟁이는 유행 아이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만 남과 똑같이 입는 것은 거부한다. 누군가에게서 버려진 낡고 낫바랜 옷과 구두에 생명을 불어넣고 자신의 스타일에도 빛을 낸다. 빈티지 제품을 똑똑하게 입는 방법. MAXIMO 알려주겠다.



### 70's 핑크 록

가죽 재킷, 섹스나 폭력 등에 관한 지속적인 메시지를 프린팅한 티셔츠, 타이탄한 데님, 스모키 메이크업, 피어싱, 강렬한 레드와 블랙 컬러 대비, 워커, 해골이나 체인 액세서리 등으로 연출한 반항적인 룩. 1970년대 록 밴드의 무대 의상에서 시작해 이후 패션의 역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룩으로 자리 잡았다.



블랙과 레드 컬러의 가죽 라이더 재킷 177,000원 DARE TO BE RARE  
 블랙 티셔츠 30,000원 DARE TO BE RARE  
 블랙 가죽 팬츠 125,000원 DARE TO BE RARE  
 벨 모양 패턴의 블랙 진 가격 미정 BELL&NOUVEAU  
 매달 장식이 박혀 있는 블랙 가죽 워커 가격 미정 BELL&NOUVEAU  
 표인트로 착용하기에 좋은 아이템은 모두 가격 미정 JAMIE&BELL

BY 조장민 PHOTOGRAPHS ARC STUDIO  
 COOPERATIONS DARE TO BE RARE, BELL&NOUVEAU, JAMIE&BELL

## 90's 캐주얼

1990년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라면 미처코려던 게스, 스물, 잔스모츠 등의 인기를 기억할 것이다. 너도나도 청바지에 체크무늬 셔츠 그리고 잔스모츠 가방을 메고 다녔으니 말이다. 시간이 지니면서 트렌드는 변했지만 청바지와 체크무늬 셔츠라는 부동의 인기 아이템으로 남았다.



원픽 이디스나 하이볼 슈즈 136,000원 DARE TO BE RARE  
가운데 블랙 컬러 안경 가격 미정 JAMESBELL / 오버 사이즈 재킷 가격 미정 BELL&NOUVEAU / 박  
시한 재킷 셔츠 39,000원 DARE TO BE RARE / 카키 컬러 알리타리 백팩 가격 미정 BELL&NOUVEAU / 블루  
컬러 캔버스 가락 미정 BELL&NOUVEAU / 59대 데님 팬츠 가격 미정 BELL&NOUVEAU / 블루  
오렌지색 데님 재킷 가격 미정 BELL&NOUVEAU 원고 부분에 폐진되어 축축한 가죽 슈즈 가격 미  
정 BELL&NOUVEAU

### SHOPPING INFO

#### 1. DARE TO BE RARE

www.daretobere.kr  
신사동 644-22F (02-547-5670)  
화귀한 19세기 빈티지부터 70년대의 히  
피 80년대의 명품 콘서트 아이템과 90년  
대의 세컨드핸드 제품까지 갖춘 숍이다.  
데어투베어에서 가구와 의류를 비롯해  
다양한 소품을 구할 수 있다.  
가격대: 티셔츠 20,000~50,000원  
/ 가죽 재킷 90,000~300,000원 / 밀  
리타리 재킷 50,000~120,000원 /  
스카프 12,000~20,000원 / 목도리  
20,000~30,000원

#### 2. BELL&NOUVEAU

http://blog.naver.com/mellis2000  
신사동 540번 (02-517-552)  
미국과 유럽에서 직접 공수한 상품과 직  
접 만든 아트 오브제가 가득한 곳. 이요  
리, 보아 등 스타벅스가 즐겨 찾는 곳으로,  
트렌디하면서도 특별한 빈티지 소품이 가

득하다.

가격대: 가방 50,000~500,000원  
/ 액세서리 5,000~200,000원 / 재킷  
30,000~400,000원 / 트랜치코트 90,000원  
~380,000원

#### 3. JAMESBELL

http://blog.naver.com/itmik  
신사동 657-40 (070-837-7834)  
큐레이터로 활동한 여성의 감수성이 묻어  
있는 보물 창고 체이밍이벤트 수많은 연예  
인과 매체들이 사랑하는 빈티지 숍이다.  
가격대: 2인원부터 수백만 원

### VINTAGE GUIDE

#### 빈티지

상품이 만들어진 시대와 지역 고유의 특  
성이 살아 있어 현재까지도 그 품질이 잘  
유지된 의류와 가구, 소품을 말한다.

#### 빈티지 룩 노하우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티지하면 안된다면

노인장에서 마실 나  
스 매저에서 읽는다. 예를 들어 강렬한  
빈티지 상의를 입었다면 허리는 평평한  
치노 팬츠나 진을 입자.

#### 빈티지 의류 믹스 매치하는 노하우

무자정 생각만 하는 것은 단지 믹스일 뿐  
이다. 색상이나 소재 혹은 스타일에 통일  
감을 주어야 믹스 매치다.

#### 구입 시 주의사항

단추, 원단의 해진 냄새를 확인한다. 수선  
을 경험할 경우엔 어깨선을 맞추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어깨선을 맞추는 것에  
피트가 달라지기 때문 허의 역시 허리와  
허벅지 라인이 가장 중요하다.

#### 서울에서 빈티지를 살 만한 플라마켓

1. 불꽃 나이트 마켓(논현동 플라마켓 콘  
스트 할레 매달 첫째 주 토요일)
2. 무르(명동 가든플레이스 매주 토요일)

### OTHER SHOPS

#### 오브리인 숍

1. 광장시장(서울 종로 5가)
2. 활인동 베품시장(서울 동묘안역)
3. PAGE ONE (서울 홍대앞)
4. 섀프란시크마켓(서울 신사동)
5. NINE OWLS(서울 가로수길)

#### 온라인 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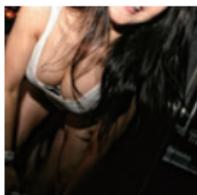
1. www.snelshoes.com
2. www.lzpop.com
3. www.aaww-30me.com
4. www.m-netje.com
5. www.jung4jano.com
6. www.koyu.co.kr

MAXIM PARTY

# COYOTE UGLY PARTY

영화 《코요테 어글리》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저런 바가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한번 품은 해냈을 거다. 있다. 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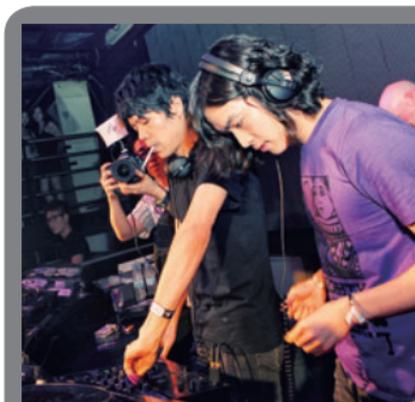
BY 유승민 PHOTOGRAPHS BY 최현우, RACCOON COOPERATION CLUB MASS, GOA Limited



## GOODBYE SUMMER

8월 30일. 덥고 끈적끈적한 여름이지만 여름일수록 뜨겁게 달아오르는 클럽의 하룻밤을 생각하면 여름이 가는 것이 또 빈갑지만은 않다. 바로 그 아쉬움을 안고 클럽 MASS로 모여든 사람들의 울여름 마지막 파티. COYOTE UGLY PARTY 속으로 들어가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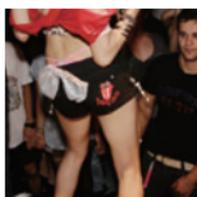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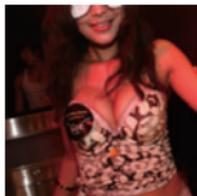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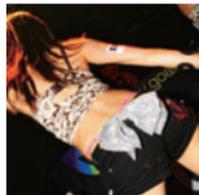
이날의 파티 콘셉트는 타이틀만으로도 알 수 있듯 10년 전 개봉한 영화 《코요테 어글리》의 콘셉트를 그대로 재현했다. 파티를 뜨겁게 달군 코요테들이 절정의 볼거리를 선사했지만 이날 참석 한 클러버들도 코요테들 못지않은 핫한 콘셉트로 MASS를 찾은 늑대들의 시선을 꼭 사로잡았다. 떠나는 2010년 여름에 대한 아쉬움을 가득 담아. 밤이 깊을수록 파티는 음양조화의 무릉도원을 향해 저달았다.



## ASTORO VOICE

클럽 춤 다닌다면 이들의 이름을 피해갈 수 없다. 2009년, 2010년 연속으로 (글로벌 개더링)에 초대받은 대한민국 최고의 일렉트로닉 듀오(글로벌 개더링은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페스티벌로 2001년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록 페스티벌의 대명사 글래스톤베리와 어깨를 겨루는 페스티벌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며 2010년 10월 9일 한강 난지 자구에서 열렸다. 흥을 가득 매운 파티 피플을 마치 미약이라도 한 듯 미처게 만드느 그들의 디제잉은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중독성 강한 비트와 함께 절묘하게 눈앞에 펼쳐지는 영상이 사람들을 어떻게 미처게 만들었는지 보고 싶다면 QR 코드 또는 MAXM 홈페이지에서 코요테 파티 영상을 감상하라.

## DJ OF THE DAY



## HOT COYOTES

이날의 코요테들을 보기 위해 물러든 인파로 클럽 MASS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평소와 확실히 달랐다. 이단지 모르게 콘서트 장을 찾은 관객에게서 느껴지는 기대감 어린 눈빛을 볼 수 있었다. 파티가 시작되고 코요테들은 시시각각 곳곳에 설치된 작은 무대 위에 나타나 사람들을 열광케 했다. 땀에 젖고 물에 젖어 반짝거리는 피부가 매력적이었던 그녀들의 사진을 더 보고 싶다면 QR 코드를 스캔하라.



파티 현장 침투하기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건강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

*World's Most Precious Whisky.*



EST. 1824

The  
MACALLAN  
SINGLE MALT  
HIGHLAND SCOTCH WHISKY

# MAXIM OCTOBER 2010

## 정기 구독 신청 방법

재창간기념 가격인하는 계속된다!  
 날권구매시 ~~5400원~~ → 4900원은 계속된다!

MAXIM KOREA 웹사이트(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웹사이트 하단에 있는 정기 구독 신청란을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주세요. Tel 02-323-1182



### 6개월 정기구독

(정가 32,400원) **27,540원**(15%할인)  
 + 1000씩 적립

※ 3가지 중 택일

1. 니베아 데오드란트 실버 프로텍트 세트
2. HORSECABBAGE 티셔츠
3. 가죽 핸드폰 케이스 (블랙/화이트/브라운 중 랜덤 2개)

### 12개월 정기구독

(정가 64,800원) **51,840원**(20%할인)  
 + 2000씩 적립

※ 3가지 중 택일

1. 1-2 DRY 언더암 패드 세트 (겨드랑이 땀 흡수 패드)
2. 연극열전3 연극 티켓 2장
3. 랩시리즈 보디 슬리밍 제품

### 24개월 정기구독

(정가 129,600원) **97,200원**(15%할인)  
 + 4000씩 적립

※ 3가지 중 택일

1. 연극열전3 연극 티켓 4장
2. Columbia 캠핑용 접이식 고급 의자
3. Columbia 백팩 (진한 그린색)

※ 정기구독은 첫달 사용분에 한하여 배송비가 부과됩니다.  
 ※ 의류 사용분의 경우 사진과 디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카드, 휴대폰 결제 www.maximkorea.net 홈페이지 이용  
 ※ 무통장 입금 (예금주, 주식회사 와이미디어)

81-02-569-910012-03094 국민은행 186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 100-026-07400 우리은행 1005-701-637646

# TRICK OR TREAT

A VERY MAXIM HALLOWEEN



\* 트릭 오어 트리트(Trick-Or-Treat)  
과자를 안 주면 장난을 치겠다고  
합어하는 일로만 놀이

여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컬렉션을 준비했다. 오는 10월 31일 할로윈 데이에 그 어떤 밤보다도 광란의 파티가 펼쳐지게 될 거다.  
도바라진 간혹사를, 윈도우맨, 색시한 하직, 양친 속의 코스튬 본능을 꿈틀거리게 할 할로윈 코스튬 스페셜 준비 됐나?

PHOTOGRAPHS BY JIM MALUCCI



진시 엔서 코스튬  
www.3wishes.com  
금 도금 박피  
designed by Anita and  
Ankit Kalkvad for Jaipur  
Jewelers Inc. NJ  
www.jaipurjewelers.com

## 할리우드 어패럴

고전적 코스튬과 노출의 역사

### ◀ GIPSY DANCER

중군, 좋아, 계속 흔들게

**HEATHER GRAHAM** <더 행오버> 2009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모유 수유를 하는 라스 베가스의 이국적인 연사가 그녀의 복귀작 배역이 될 줄은. 뭐 그럴 수도 있지

**MARSA TOMI** <더 레슬러> 2008

아무리 우리가 노출 많고 타이탄의 의상을 좋아 한다지만 미키 루키가 2시간 남짓 그런 복장을 하는 건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 2시간을 견딜 수 있던 건 마리사 토미 덕분이다. 실에 굴곡이 있지만 그러나 섹시한 아름다움 마음을 가진 그녀. 섹시한 스트리퍼 로메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DEMI MOORE** <스트리트즈> 1996

이 영화는 그녀의 커리어와 우리의 비디오 담판기 버튼을 망가뜨렸다고 생각된다.

### MAID ▶

그래, 그래, 저 의자 밑에 먼지가 많이 쌓인 것 같은데?

**XIAN QUON**

<앨빈과 슈퍼밴드> 2007

그녀가 나온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영화를 죽치고 앉아서 보게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JENNIFER ANISTON**

<돈 많은 친구들> 2006

그녀가 프랑스 메이드 의상을 입고 나온다. 그게 다다.

**JENNIFER LOPEZ**

<리브 인 맨하탄> 2002

태초에 제니퍼 로페즈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영명은 박스 오피스 1위 감이었다.

메이드 린제리  
Frederick's of Hollywood  
www.fredericks.com  
먼저들이  
Trashy Lingerie  
www.Trashy.com  
러플 탑 스타킹  
www.3wishes.com



## WONDER WOMAN

우리 아버님들은 원더우먼이  
변신할 때 잠을 끌어 삼켰다했다.  
만화 코스프레는 예나 지금이나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더 황해질 뿐.

**LYNDA CARTER**  
(원더우먼 TV시리즈) 1976  
금빛 방울을 향한 우리의 페티시는  
오늘날 원더걸스까지 이어진다.

**FAMKE JANSSEN**  
(엑스맨) 2000  
우린 울체를 마음대로 이리 저리  
조종할 수 있는 빨간 머리에  
사족을 못 쓴다.

**CHARLIZE THERON**  
(원더) 2008  
사블리츠 테론이 할 스미스를 때  
장면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물론 재미는 없었지만 (아은 플릭스)  
에서 보여준 스파 위상이  
없어 아쉽다. 역시 슈퍼 히로인은  
피싱이 타이틀수록 좋다!

원더우먼 코스튬

Frederick's of Hollywood

[www.fredericks.com](http://www.fredericks.com)

소문장사

Alexis Bittar

[www.alexisbittar.com](http://www.alexisbittar.com)

### Brain Candy 맛난 할로윈 교젓잡거리 비하

해마다 90억 개에 달하는 캔디 권역수수를 담은 작은 사탕이 가게에 풀린다. // 10월 한 달 동안 팔리는 허쉬 초콜릿의 무게는 약 1억2,259만kg이다. // 미국 아이의 44%가 할로윈에 사랑을 모으러 다니면 100개 이상을 모을 수 있다. // 10월 마지막 주에 팔린 초콜릿은 약 4,066만kg이다. // 2008년 Trick-Or-Treat 놀이에 참여한 5~13세 아이들은 약 3,600만 명이다. // 미국 아이들호 주 법률은 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최대 무게를 22.7g로 제한했다.

## SASSY CIVIL SERVANT

공무원 코스프레라니  
역시 양키들은 뭔가 다르다.

MICHELLE RODRIGUEZ  
(로스트) 2005

확고한 그녀에게 무가력하게  
제모 당하고 싶었는데



## PIRATE

이보게 해적 아가씨  
우릴 좀 약탈해달란 말이오!

KEIRA KNIGHTLEY  
(캐리비안의 해적) 2003  
그녀는 항상 올맨도 볼름보다  
스카하고 세시한 캐리더로  
등장한다.

GENA DAVIS  
(퀵모트 아일랜드) 1995  
그녀는 세시했다! 우리가 장금  
한다! 지금 모습을 보면 도저히  
못 믿을 테니 1995년 이전  
의 옛날 사진만 검색해보라.

ANGELINA JOLIE  
(해커스) 1995  
사실 해적은 아니지만 19세  
의 줄리라면 뿔 따위 바꿀  
수 있다.



해적 코스튬, 코르셋,  
소크, 벨트, 해적모자  
Trashy Lingerie  
www.Trashy.com  
소빙대원 코스튬  
www.3wishes.com





## SALOON GIRLS

이 집 서빙이 영 형편없구먼.  
아래 와서 옆에줄 앉아보게

**MEGAN FOX**  
(조나 헉스) 2010

영화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 앞두는 폭스가  
언기만 플리와 그녀의 웨스티어를  
기억하고 있다. 왜지?

**VINESSA SHAW**  
(3:10 투 유머) 2007

그녀가 바로 침대에 앙증으로 누워  
있던 그 여인네다. 그래, 그거다.

**KATHARINE ROSS**

(내일을 향해 쏴라) 1999  
어마할상의 아버지는 이 영화 속  
그처럼 명품, 진지하게 카우보이  
가 되는 걸 그만뒀을 거다.

# GRAB BAG

## 활활 타오르는

### 호박 초롱 만들기

《Extreme Halloween》의 저자 톰 날든이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에서 가장 화려한 호박 초롱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 주었다.

####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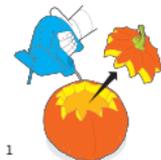
- 실용 (목공용 진동 공구)
- 구멍 내는 도구
- 두루마리 휴지 롤
- 등유
- 소화기

**1 단계** 날카로운 진동 실용을 이용해야만 동네 마트에서 산 호박 조각 세트에 들어있는 조각편한 가구를 써도 된다. 이 케모플렉스에 호박의 윗부분에 지그재그 모양으로 구멍을 잘라내라. 그리고 뚜껑을 열어 속을 파낸다.

**2 단계** 실용으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무섭고 불쌍하고 우울한 무서운 표정을 만들어 내려본다. 최대한 창의성을 살려 눈과 입을 표현한다. 시시하게 만들 거면 차라리 호박죽이나 끓여먹어라.

**3 단계** 장갑을 끼고 등유를 두루마리 휴지에 흠뻑 부어라. 그리고 갓 만든 호박 머리 안에 넣어라.

**4 단계** 호박을 야외의 안전한 곳에 놓아라. 호박 입에 긴 상냥이나 라이터를 넣어 휴지에 붙을 것이다. 불꽃은 공중으로 약 90cm\*당 처출을 것 이고, 적어도 45분 동안은 꺼지지 않을 거대다. 이 만 '교자를 안 내놓으면 장난을 칠 테다' 라고 외치는 과명(이들의 눈법을 배우지는 마라. 우리 대인배니까 예새)를 따르는 것쯤은 꼭 창자 소화기는 꼭 지참하고 소화기로 삼막 후리를 처리하는 건 권장하지 않을까?



1



2



3



4

## 그녀에게 주문 걸기

뉴욕에는 주술과 마법에 관한 모든 것들을 취급하는 회사가 있다. 마법의 힘을 맹신하는 그 곳 직원이 어떻게 하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알려 주었다. 마법의 힘으로!

(모든 사람의 주문들은 금요일 밤 보름달이 있을 때 외역이 효과가 최고라는 걸 명심하라. 피사)

**1 단계** 카타만 핑크색 잉크를 칠하라. 그렇다. 꼭 핑크색이 아닌 핑크다. 그게 핑크의 여신 비너스랑 연관되는 색이거든.

**2 단계** 이제 온라인 주문 사이트에서 병당 7달러에 파는 비너스 오일(주술용 오일)을 구입하라. 핑크는 알 필요 없다. 거기에 카리다프롬과 장미, 스피어민트, 통가콩, 일랑일랑과 섞는다. 윤 당신이 구글에서 "통가콩"과 "일랑일랑"을 검색할 시간은 주웠다. 땀? 근대 이거 너무 수상한데, 합법적인 거 맞아?

**3 단계** 아까 만든 오일을 양초에 문질러내실땀은 당신 몸에 문질러 보거든. 문질러 볼 때 이루어지고 싶은 스타일의 여자에 대해 크게 외친다. 최대한 구체적인데, 머리는 갈색인지, 금발인지, 마른 스타일인지, 매마드 같은 스타일인지 등등.

**4 단계** 비너스 아슨은 숫자 7과 구리를 좋아한다. 그러나 초가 10분밖에 10분당 7개를 놓아 재료를 버치라. 초가 7일 동안 타도록 한다. 7일 내내 가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 분씩만 태우면 된다. 동력 배에 삼지 꽃과 며칠 동안을 태웠는 (삼국지의 스케줄은 일단 접자. 지금 당신은 '주술'이란 걸 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라. 그리고 편하게 앉아서 꿀에 그리던 여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려라.

**5 단계** 그림 설명은 없다. 그렇지만 간직해온 빈티지 예니 캐러티 피규어는 그녀에게 자랑하지 마라. 그녀에게 걸려 있던 마법을 깨버릴 거다. 마음은 일정한 채 참아라.



1



2



3



4

## COSTUME ON THE QUICK

안다. 코스튬 의상도 꽤나 비싸다는 거. 아주 주머니 가벼운 사람을 위한 코스튬이 있다. 변신은 단 5분이면 충분하다!



### 백화점 향수 판매원

가진 옷 중 가장 센티 나는 양복을 꺼내 입는다. 명함 수백 장을 손에 쥔다. 가장 좋아하는 향수를 비치 주머니에 부서 넣는다. 당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색사한 여성들의 손목에 향수를 뿌려주거나 명함 수백 장의 향수 칠갑을 하여 건넨다. 얼마나 멋진가?



### 카니에 웨스트

머리를 반사복으로 뒤집 두피에 지그재그 문양을 새긴다. 눈에 흑 박는 컬러의 선글라스를 끼고 단추를 채운 셔츠 위로 찢어진 아이버리거나 인을 뺀 도롱이 그려진 스웨터를 걸친다. 이제 머지않아 땀 뿜어낸다.



### 원유 유출 사고 처리 전문가

가서 고무장갑, 수술용 마스크, 그리고 동물 분체 인형 하나를 구한대롱을 인형 하나 정도는 있지 않게 거칠 것이지 마라. 동물은 아들이면 새가 좋다. 인형에 검은 페인트를 마구 뒤집어뿌린다. 그리고 뛰어야 하는 척한다. 뒤 별 의미는 없다.



### 멜 깡손

변신 좌회통을 붙들고 거친 억양으로 "이 길은 새끼가" 를 외쳐봐 보라는 거다.



## WILD AND WONDERFUL

조니렘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  
나오는 매트 해티(미친 모자장수) 코  
스프레가 이렇게 훌륭했다니!

**MALIN AKERMAN**

(히트브레이크 키드) 2007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이 첫 총집합 기대되자?

**SHARON STONE**

(키자노) 1995

마리 1분을 빼는 게 더 미친 짓일까 아닌 몽말보  
조 페사의 거사기를 빼는 게 더 미친 짓일까?

**ANGELINA JOIE**

(처음 만나는 자유) 1999

그렇다. 이 기사에 이름을 두 번 올리도 충분할  
만큼 그녀는 섹시하다.



## CAT WOMAN

타이트한 캣우먼 의상은  
언제 봐도 멋스럽다. 티  
질 것 같으니까 벗기는  
법만 좀 알면 좋겠다.

HALLE BERRY  
(캣 우먼) 2004  
가죽 슈트라, 홍지

MICHELLE PFEFFER  
(베트맨 2) 1992  
비닐 슈트라, 더 홍지

EARTHA KITT  
(베트맨(TV 시리즈)) 1966  
아버지는 매일 밤 그녀의 가로광대  
는 소릴 들으며 잠에 빠졌지

블랙 비디슈트  
American Apparel  
가죽 환소채피래  
고양이 귀 머리띠  
Trashy Lingerie  
[www.Trashy.com](http://www.Trashy.com)

## LIKE A VIRGIN

하얀 의상을 입은 여인에 대한 우리의 찬양은 마돈나의 1984년 뮤직 비디오로부터 시작되었다. 세상에 '숫처녀처럼' 이라니!

### KATHERINE HEIGL

(27번의 결혼 리허설) 2008  
약 5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수익을 낸 흥행작이다. 흠, 이 기입에 같은 영화를 여자들만 봐다면 이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겠어?

### UMA THURMAN

(킬 빌) 2003  
결혼식 날 선물로 머리에 중앙을 받은 그녀는 이후 색시한 복수극을 시작한다. 브라넵

### CAMERON DIAZ

(나 남자친구의 결혼식) 1997  
1990년대는 카메론 디아즈의 시대다. 97년의 줄리아 로버츠? 디아즈랑은 비교가 안 되지

새색시 드레스, 장갑, 면서포  
[www.lalalingerie.com](http://www.lalalingerie.com)  
천주 목걸이  
R.L.Gaviano





### VEGAS SHOW GIRL

한 때 워커힐 쇼에서 보았던 스컬 복장은 촌스러워도 우릴 동하게 하는 뭔가가 있다.

#### KYLE MINOQUE (윌럼 후즈) 2001

이 초록빛 요정은 우리에게 환각 중세를 불러 일으켰다. 중세는 적어도 잊 주는 것이다.

#### GINA GERSHOW & ELIZABETH BERKLEY (쇼츠) 1995

이 세상에 그 어떤 발연기도 이들의 재즈 댄스를 이길 수 없다.

## REAL HAUNTED HOUSE 흥가로 초대합니다

당신 인생에서 처음으로(혹은 마지막으로) 이 흥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떤가?

### 원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유령을 몰리켜기 위해 지혜를 확장 공사해 이 한다고 한 심령술사의 일메어비 간혹 집 지인 남자형제가 있을 거대 집주인 사라 칸체스터는 60개의 방과 47개의 계단을 추가로 시공했다. 유령들은 그 이모 같은 집구석에서 해하고 있다고 한다.

### 빌리시카 도끼 살인사건 하우스 (아이오와 주 빌리시카)

당년 끔찍 예제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무어 가족과 운도 지지리 없는 두 명의 친구들은 도끼로 머리를 맞아 무참히 살해당했다. 발인은 곧내 잡히지 않았다. 무어 가족의 유령이 들린 집에선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 바비 맥키의 뮤직 월드 (켄터키 주 월드)

이 나이트클럽은 사탄 숭배 의식을 위한 무수한 살육이 이루어지던 장소 위에 지어졌다고 한다. 무수한 살인, 총살, 성자라는 침수까지 그 곳에서 이루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 건물의 지하에 지옥으로 연결되는 문이 있다고 믿는다. 문을 열면 당신 방으로 연결되는 건가?

### 팬서트 스테이트 (펜실베이니아 주 스프링 시티)

정신질환자를 사육장에 가두고 무지비하게 학대한 수용 시설 형제가 다른 누군가를 깨울엔 이를 몽땅 쫓아버렸다. 그 곳 관리인은 빈 방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나 발소리, 구토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나라에선 군대 면제용으로 큰 인기를 끌었겠지.

## TO YOUR HEALTH

난치병은 이 환상적인 간호사 언니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치러야 할 아주 사소한 대가일 뿐이다. 아, 이거 멧기열도 하루 만에 다 낫겠네.

### SALMA HEYEK

(에코스 더 유니버스) 2007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고 기다리면 그녀가 나타난다. 형 믿지?

### DARYL HANNAH

(킬 빌) 2003

그녀는 사람 잡는 간호사지만, 그 귀여운 인내는 어필 강개

### SARAH CHALKE

(스크립스) 2001

미안해. 그녀는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다. 하지만 우린 어떻게든 사라 샤크를 이 리스트에 올리고 싶었대!

+  
이들은  
브라질 모델 자매다.  
Que Bonita  
(진짜 예쁘다!)

왼쪽 간호사 코스튬

Trashy Lingerie

[www.Trashy.com](http://www.Trashy.com)

오른쪽 간호사 코스튬

[www.kisslingerie.com](http://www.kisslingerie.com)

스타킹

[www.3wishes.com](http://www.3wishes.com)









행복은 혼다를 타고 온다

Ride to Love - Honda

**HONDA**



세상의 시선을 사로잡는

혼다 스타일의 Chopper

**VT1300C**

36° 프론트 포크 앵글 / 하이 스타어링 마운트 / 컬러: Black, Silver

남성적인 매력이 빛나는

Classic Retro 스타일

**VT1300C**

깊고 깊은 디자인의 탱크 / 4배-러 빅스 장착가능 / 컬러: Black



도시를 유혹하는 세련된

Urban Pro-Street 스타일

**VT1300C**

21인치 프론트 휠 / 15인치 리어 휠 / 컬러: Black, Red



마침내 남자의 로망이 완성된다! 혼다 VT1300 시리즈

혼다 **V-TWO-WIN** 페스티벌

10월 31일까지

**1**

무이자 리스 지원

연이자 0% 0% (연 10% 이상) 단월 100,000원

**2**

취·등록세 지원

\* 두 가지 혜택 중 택일,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공식딜러

강북 딜러 02) 2272-5282

광주 딜러 062) 527-5050

강남 딜러 02) 566-3670

부산 딜러 051) 621-0032

인천 딜러 032) 502-7777

대표전화 **1577-2700**

혼다코리아(주) [www.hondakorea.co.kr](http://www.hondakorea.co.kr)

# MAXIM

SOUTH KOREA

## BENTLEY

Continental Supersports  
Convertible

MUST HAVE GEAR for  
SOUNDHOLIC

## MAXIM PARTY

코요테 어글리와 광란의 밤

Sweetest Idol  
초콜릿

## STYLE

MAXIM AUTUMN COLLECTION

*Fall Out Boy*

진상 스포츠 스타 총집합  
사무실 풍수지리  
린지 로한  
킬러들의 소설  
홍수현



**KICK OFF!**  
**JUMP OFF!**  
NFL 치어리더

진짜 남자를 만나다  
**김영호**

Alexander vs Napoleon

우리가 키워야 할 것  
색시할 등 근육  
아랫도리 물건  
초대형 햄버거 타워

우리가 찾아야 할 것  
MAXIM 속 김태희  
최고의 괴물  
상황별 위기 대처법

2010년 10월호



ICON: **Tiger JK**